

여성



특·집

특집/① 주부인력 활용방안 강구
및 실천

특집/② 조순 서울특별시장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특집/③ 주말 가족시간대 TV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미나

96-12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21세기 정보통신 개척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완벽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서비스!
미래 정보통신 사회의 꿈을 서울이동통신이 실현합니다.



- 고객만족도 1위 (한국소비자단체)
- 3년연속 최다 히트상품 선정
- 성장률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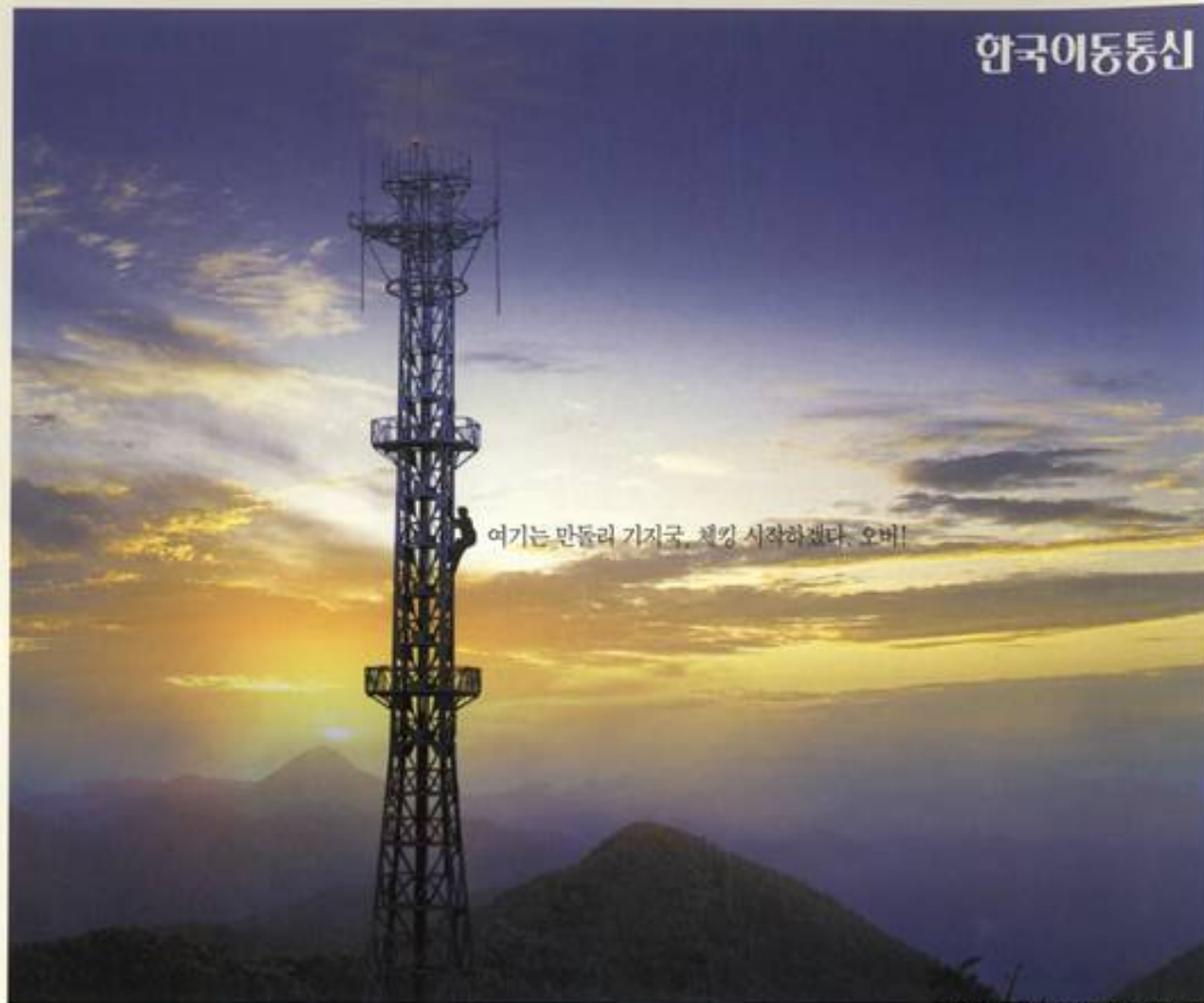
통신서비스업 최초
A/S인증마크 획득

국내 무선호출 성장률1위의 기업, 서울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은 국내 최고에 만족하지 않고, 인도 무선호출서비스,
국제 FAX서비스인 SKY FAX서비스 등 통신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이동통신은 국제무선호출, 양방향팩스서비스,
CT-2, TRS, PCS 등을 통하여 전 세계를 연결하는
첨단 통신서비스를 실현하여 풍요로운 미래커뮤니케이션시대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정보통신의 정상을 목표로-
지금 서울이동통신이 계속 뛰어가고 있습니다.

015 서울비비

서울이동통신

고객상담센터 102) 5577-015



여기는 만돌리 기지국. 체크 시작하겠다. 오버!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기지국

디지털 011 사람들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친 다음 날 이른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통신채널을 연결해 드리기 위해 디지털 011의 엔지니어는 그 시간에도 까마득한 기지국 철탑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안테나 방향이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빔볼로 장비에는 이상이 생기지나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말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좋은 기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전파운영 노하우와 철저한 서비스 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길도 없는 산중에 세워진 기지국을 점검하기 위해 늘 산을 오르내리는 디지털 011 사람들 - 당신의 통신채널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한국인의 통신채널



디지털 011의 보이지 않는 힘 - 바로 철저한 서비스정신입니다

월간 여성

월간여성 12월 통권347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생활의 과학화로 경쟁력을 키웁시다 / 오세화

6 특집/1 주부인력 활용방안 강구 및 실천

주부의 취업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 박숙자

30 특집/2 조순 서울특별시장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60억원 '97년에 조기달성하기로

40 특집/3 주말 가족시간대 TV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미나

주제강연: 주말가족시간대 TV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 / 김학천

지정토론: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 / 박명세, 김정애, 김희천, 윤청광, 전규찬

62 협동회원단체를 찾아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64 매스컴에 비친 여성

① 획일화된 주말 쇼, 코미디 프로그램 / 김희천

② 소모적인 아침 일일연속극 / 전상금

72 해외여성통신

日 노동성, 유명무실한 남녀고용기회평등법 개정논의 / 김은주

75 여성문화

연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이세기

76 여성학 지상강좌

여성의 공적참여 확대 / 강기창

81 손쉬운 요리 / 안승준

82 여성계동향 / 이구경

86 다시 읽는 글

① 여성의 사회참여 / 이흥구

② 신기한 여성대사 / 라그네 비르테 룬드

88 협의회 소식

93 우리들의 광장

9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주년을 축하합니다

생활의 과학화로 경쟁력을 키웁시다

오세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종로에 고층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였다. 지상 12층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번째 층도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깊고 넓은 땅구멍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지하 7층의 지반공사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선생님께선 이 예를 드시면서 “기초를 다져야 한다. 높이 짓고 싶을수록 깊고 넓은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라”고 강조하였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융합되어 가고, 생존 뿐 아니라 보다 질 높은 삶을 위한 경쟁이 관대한 웃음, 큰 포용과 함께 무역전쟁, 국제협약 등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직은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얻은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같은 예감으로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기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용되는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미래만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지켜주고 어쩌면 어느 만큼의 풍요를 허락할지도 모른다는데 동감하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 미래 지향적이며 안정감이 있고 효율적이고 일정한 길이로 그럴수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의 모양은 원이란단다. 그리고 안정감하면 피라미트 형, 미래 지향은 하늘을 향한 뾰족한 점이다. 그래서 바닥이 넓은 원뿔이 이상형이 되겠다. 그렇게, 최첨단의 과학과 좀 덜 첨단인 보다 많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회 전체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이를 받치고 키워 주어야 한다.

사회의 안정되고 건전한 저변, 그것은 언제나 가정의 안정한 중심이기도 한 여성들의 몫이며, 또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잘 해온 일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 지식을 생활 깊숙이 체질화시켜간다면 새해부터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리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과학을 알고 이해하는 재미와 생활 속에 활용하면서 얻는 그 편리함을 누렸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특집

특집/① 주부인력 활용방안 강구 및 실천

특집/② 조순 서울특별시시장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특집/③ 주말 가족시간대 TV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미나

주부의 취업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 박숙자 (본회 근로여성위원)

I.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연구의 목적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날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던 주부들도 점차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의 의식전환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주부인력의 활용은 비단 여성들의 자아실현만이 아니라 국가정책적으로 인력활용의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소자녀화 추세에 의해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일찍 벗어나게 된 중년 여성들이 시간적인 여유는 많아졌으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활동영역을 제대로 찾지 못해 우울증, 신경과민, 무력감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주부들의 정신적 위축은 자신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생활 및 사회적으로도 저해요인이 되며 국가적으로도 주부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커다란 인력손실을 안게 되는 것이다.

주부인력의 사회참여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

.....

그동안 주부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정부와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부의 사회참여가 아직도 저조한 것은 다양한 사업들이 주부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부들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 그리고 이에 근거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활동면에서의 능력발휘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 것으로서, 이들 모두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민주공동체로 만드는데 이바지 하는 방법들이다.

주부인력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내에 묻혀있는 주부인력을 동력화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예컨대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인력화하여 취업으로 연결시키거나, 가정밖으로 눈을 돌려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체계적인 작업이 요청된다. 실제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주부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등 정부와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업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의 사회참여가 아직도 저조한 것은 다양한 사업들이 주부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와 공급자들의 욕구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여 주부인력 활용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한정적이고 취업과의

연결도 잘 안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자와 봉사를 요하는 사람간의 체계적 연결망이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부들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 그리고 이에 근거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주부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파악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경제활동면에서 주부들의 취업의사 및 희망하는 취업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어떠한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주부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은 어떠한가?

셋째, 자원봉사활동면에서 주부들이 희망하는 참여형태는 어떠한가?

(2) 연구문제에의 접근방법

이러한 연구문제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주부대상 질문지조사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들이 원하는 사회참여의 형태, 즉 취업희망형태와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원하는 자원봉사의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현재 주부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사례조사(면담)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평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운영중인 주부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양한 주부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부인력 활용방안과 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부

프로그램의 안을 제시하였다.

II. 주부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현황 및 관련연구 검토

(1) 주부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현황

1) 여성 직업훈련 정책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여성자신의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은 정무장관 제2실에서 입안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의 여성개발 부문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계획안 중 여성 직업훈련기능의 확충분야에는 여성직업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혼여성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인력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특수직종 교육개발 차원에서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기혼여성에 대해 여성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생에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하며 우편물취급 사무원, 원예종사자, 귀금속 세공 등 단기간 교육으로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며, 직업훈련 지원체제강화 차원에서는 기혼여성의 훈련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주간·야간 코스를 동시에 개설하는 등 수업기간을 조정하고 훈련원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여성직업훈련정책의 실행정도를 보면 1996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들순, 1996).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단기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일하는 여성의 집, YWCA,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어느정도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혼여성=단기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고정화되어 훈련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훈련

실시기관의 특성에 따라 크게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이들 중 여성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은 46개소로 1995년 현재 정보처리, 패션디자인 등 56개 직종에서 2,663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노동부, 1995). 그러나 이러한 공공직업훈련의 대상은 대부분 미혼여성으로, 특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안성여자기능대학은 91년에 개원한 전국 유일의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이지만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체 스스로가 양성·충원하는 제도로서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의 사업체는 의무대상업체로서 전국에 239개의 사내직업훈련원이 있었고 이중 176개 훈련원에서 115개 직종에 걸쳐 총 26,100명의 여성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노동부, 1995). 훈련내용은 주로 신발류제조, 전자기기조립, 반도체조립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의무사업체 대상 규모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체로 대폭 축소되어 훈련원의 수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정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이나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해 훈련실시가 곤란한 분야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훈련형태로 주로 사무관리, 서비스분야의 훈련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국 139개소 중 91개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71개 직종에 총 6,520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노동부, 1995).

그외에 노동부에서는 1993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단기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을 촉진시키고,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인근 근로여성의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치하고 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15개소를 신설한다는 계획하여

93년도에는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광주에 3개소를, 94년도에는 대구, 인천, 대전에 3개소를, 95년에는 마산, 안양, 청주에, 그리고 96년에는 서울 강서구, 군산, 부천에 설립하여 현재 총 12개소가 있으며 97년도에는 계획했던 3개소(구미, 천안, 목포) 외에 추가로 2개소를 서울 송파구와 부산 동래구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민간 여성단체인 대한YWCA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일하는 여성의 집'은(서울의 여성자원금고, 온터두레회의 2곳에도 위탁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설치되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노동부, 1995). 1995년도 '일하는 여성의 집' 직업훈련 현황을 보면 총 이용자가 4,543명이었으며 이중 49.9%인 2,269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6국가감자료). 여기에서 실시하는 훈련직종은 사무자동화, 독서지도, 한복만들기, 산모돕기, 간병인, 각 분야의 조리사, 가사보조인, 도배, 미용 등 비교적 훈련기간이 짧고 현재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상 기혼여성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들이다. 1995년도 '일하는 여성의 집' 훈련생이 직종분야별 분포를 보면 단순서비스직종이 71.3%, 전문직종 24.9%, 제조업 관련직종 3.8%로(노동부 근로여성국, 1996) 단순직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은 1960년대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 등 지역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각 시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95년 현재 여성회관은 시·도립 19개소, 시·군립 29개소, 민간 14개소로 총 62개소가 있으며 주부를 대상으로 양재, 편물, 수예, 미용, 수공예, 급식조리, 분재, 다도, 타일, 도배, 도장, 컴퓨터, 기계자수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능사 양성의 직업훈련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은 서울시 구로구의 여성발전센터(구 부녀복지관)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능교육을 첫째 기능으로 들고 있다.

민간단체중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YWCA 근로여성회관이다. 1970년대부터 직업훈련사업을 전개한 서울YWCA 근로여성회관에서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무자동화, 컴퓨터A/S, 여성직업상담가, 전자출판, 방과후지도 교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관련된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리사, 환자돌보는이, 피부미용, 머리미용, 커튼봉제, 제과제빵사 등이 대부분의 직업훈련 기관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직종도 단순서비스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2) 자원봉사활동 정책

한편 여성인력을 자원봉사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1991년 국무총리의 지시로 정무장관 제2실에 여성자원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1995년 현재 전국 249개의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자원활동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의 분산된 창구를 지역단위로 통합·운영하며,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활동의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자원활동의 전 사회적 확산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새로이 기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구역별(시, 군,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내의 가정복지과나 여성회관, 또는 부녀복지관 등에 설치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자원활동자 모집 및 교육, 자원활동자 활용기관 모집, 자원활동자와 활용기관 연결업무, 활용기관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부인력 활용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하나는 주부를 대상으로 취업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의향을 파악하였고, 다른 하나는 현재 주부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주부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사례조사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각 접근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부대상 질문지조사

본 연구의 조사대상집단은 기혼여성 중에서 현재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주부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연구의 목적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주부인력의 사회참여를 통한 활용방안 모색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주부들로서 전업주부와 시간제 근무나 부업 등을 하고 있는 주부가 해당된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위의 기준에 적합한 주부들로서 연령(30대이하, 40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두집단으로 나누어 360명씩 할당하였으며, 주택방문시 외형상의 생활수준(중산층, 하층)과 학력(고졸이하, 전문대이상)을 고려하여 각각 90명씩이 되도록 안배하여 총 720명을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조사전문 모니터요원 34명이 각 집단의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아 질문지를 배부한 후 자가응답한 것을 수거하도록 하였으며 수거과정에서 무응답이나 애매모호한 응답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확인작업을 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가정적 배경에 대하여(7문항), 취업활동에 대한 의견(24문항),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17문항), 자원봉사활

동에 대하여(12문항), 그리고 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부 6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문항들을 수정, 보완한 후 확정하였다.

자료수집은 1996년 7월 12일~7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수거된 720부 중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71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부호화 작업을 거쳐 전산입력시킨 후 SPSS PC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표분석, t-검증분석, F-검증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생대상 질문지조사

현재 주부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다양하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6개 기관(일하는 여성의 집 1개소, 근로여성회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인정직업훈련원 2개소, 민간단체 1개소)를 선정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부대상 프로그램의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문지를 배부한 후 자가응답한 것을 수거하였다. 자료수집은 1996년 9월 12일~9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수거된 질문지중 불성실한 것들을 제외하고 총 26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질문지의 내용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 동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요구사항 등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PC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표분석, t-검증분석, F-검증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주부대상 직업훈련기관 사례조사

본 사례조사에서는 주부들의 취업을 위한 단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부녀복지관 1개소, 일하는 여성의 집 1개소, 인정직업훈련원 3개소, 민간단체 운영 직업훈련기관 2개소의 총 10개 기관을 유의표집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의 책임자나 실무담당자를 훈련받은 면접원 2명이 방문하여 약 1시간정도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수강생들의 실습도구와 교재도 관찰하였다.

면접내용은 기관의 역사와 주부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준비과정(수강생모집, 프로그램 설정 등),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실시후 취업과의 연계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전반적으로 협조적이었으며 면접내용으로 부족한 부분은 기관의 안내책자, 프로그램 소개지 등을 참조하였다.

IV. 조사 분석결과

(1) 주부대상 질문지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총응답자 718명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먼저 연령분포를 보면 할당표집의 결과로 30대이하가 50.4%, 40대이상은 49.6%로 거의 반반이었다. 학력 분포는 중졸이하가 13.8%, 고졸이 45.8%, 전문대졸이 11.0%, 4년제대졸이상이 29.5%로 고졸학력의 주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지표들 중의 하나인 가구당 월평균 수입을 보면 100만원이하가 4.3%, 101만원~150만원이 18.2%, 151만원~200만원이 23.5%, 201만원~250만원 17.4%, 251만원~300만원 16.5%, 301만



원이상이 20.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를 보면 아주 잘산다는 0.7%, 비교적 잘산다는 9.2%, 중간정도 산다는 71.5%, 비교적 못산다는 17.7%, 아주 못산다는 0.8%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선정과정에서 전일제 취업을 한 기혼여성은 제외되었으므로 현재 전업주부인지 아니면 시간제일이나 가내부업 등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업주부가 70.5%나 되었으며 시간제나 아르바이트로 가외일을 하는 경우는 16.7%, 가족이 하는 일을 돕거나 가내부업을 하는 경우는 12.8%로 나타났다.

2) 가정생활의 실태

가. 가구형태 및 가사노동분담

먼저 응답자의 가구형태를 보면 부부가구나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가 86.1%였으며 나머지 13.9%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로 나타났는데 동거인의 80% 이상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등 시댁식구였으며 친정어머니나 친정동생 등 친정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한편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률을 보면 가사노동의 100%를 주부 혼자 담당하고 있다는 경우가 절반이상으로 51.5%나 되었으며 가사노동의 90~99%를 담당하고 있다는 경우는 20.1%, 80~89%는 12.8%, 79~70%는 6.6%, 69~60%는 2.8%, 그리고 59% 이하를 담당하고 있다는 비율은 6.2%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은 일차적으로 주부의 몫임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우 나누어 담당하는 사람들의 2/3정도는 남편이었으며, 다음이 자녀, 시어머니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가사일 외의 가용시간

한편 응답자가 현재 가사일 외에 취업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한 결과 '가용시간이

전혀없다'는 경우는 3.7%에 불과하였으며, 가용시간이 주당 1~9시간인다가 22.0%, 주당 10~19시간이 26.9%, 주당 20~29시간이 26.0%, 주당 30~39시간이 14.2%, 그리고 주당 40시간이상도 7.2%나 되어 사실상 응답자의 대부분에서 인력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부의 가용시간은 막내자녀가 얼마나 어린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막내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막내자녀가 아직 미취학인 경우는 31.7%였으며 초등학교 이상 취학인 경우는 68.3%였는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용시간이 전혀없거나 주당 19시간이하, 즉 하루에 3시간미만밖에 가사일 외에 쓸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비율이 취학자녀를 둔 주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 어린자녀를 둔 주부들의 경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지원이 따르지 않는 한 사회참여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1) 막내자녀의 취학여부별 주부의 주당 가용시간

가용시간/취학유형	미취학	취학	전체
전혀없다	15(7.3)	9(2.0)	24(3.7)
주당 1~9시간	34(16.5)	109(24.5)	143(22.0)
주당 10~19시간	61(29.6)	114(25.7)	175(26.9)
주당 20~29시간	53(25.7)	116(26.1)	169(26.0)
주당 30~39시간	33(16.0)	59(13.3)	92(14.2)
주당 40시간 이상	10(4.9)	37(8.3)	47(7.2)
계	206(100.0)	444(100.0)	650(100.0)

* Chi-Square=18.003(p<.005)

* 자녀가 없는 대상자는 제외되었음.

다. 생활만족도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의 생활(자아실현)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화하도록 질문한 결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73.37점, 자아실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2.28점으로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자기 자신의 생활(자아실현)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만족도가 주부의 사회참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현재 경제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여부별로 생활만족도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시간제나 가내부업의 형태일지라도 자신의 일을 갖고 있는 주부(이하 '부업주부'라 함)와 전업주부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해 본 결과(표 2) 결혼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 73.98점, 부업주부가 71.91점으로 전업주부가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자아실현만족도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 61.02점, 부업주부가 65.25점으로 부업주부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F=7.15, p<.01$).

(표 2) 전업주부와 부업주부의 생활만족도 비교(평균점수)

생활만족도/주부유형	전업주부	부업주부	전체	F검정
결혼생활만족도	73.98	71.91	73.37	2.67(ns)
자아실현만족도	61.02	65.25	62.28	7.15($P<.01$)

또한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경험 여부별로 생활만족도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결혼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경험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실현 만족도에 있어서는 전혀 참여경험이 없거나 과거 참여경험만 있는 경우보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도록 높게 나타났다($F=3.15, p<.05$). 이를 종합해 볼 때 주부들의 자아실현만족도는 결혼생활만족도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전업주부보다는 현재 부업을 하고 있는 주부들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주부들이 자아실현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무언가 자신의 일을 갖고 가사일 외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주부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취업활동에 대한 의견

가. 취업경험여부

먼저 응답자의 취업경험여부를 보면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62.9%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취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20.5%,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16.6%로 나타났다.

과거에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의 61.7%는 결혼 전에만 취업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30.7%는 결혼 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결혼(48.5%)이었으며 임신(7.6%), 출산(24.7%)의 이유를 합하면 약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취업에는 결혼과 출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부업주부의 근로실태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가사노동 외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업주부 118명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분석해 본 결과 보험설계사, 의류업, 양장점, 세일즈 등 판매·서비스 직종이 49.6%로 절반정도였고 학원강사나 과외, 번역, 디자인 등 전문직종이 32.2%였으며, 파출부, 가사일하면서 잔일 등 단순노동이 12.2%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일하는 시간을 분석해 보면 10시간 미만은 6.1%에 불과하였으며, 10~20시간 미만이 16.5%, 20~30시간 미만이 32.2%, 30~40시간 미만이 17.4%로 하루평균 4~5시간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당 40시간 이상씩 일하는 경우도 27.8%나 되어 사실상 전일제근무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주부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전체적으로 주당 평균 일하는 시간은 30.86시간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6.21, p<.001$). 즉, 가족(남편)이 하고 있는 일을 돕는 경우는 주당 평균 41.92시간, 가내 부업을 하는 경우는 주당 평균 32.36시간으로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주당 평균 28.85시간,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주당 평균 25.92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보수지급여부를 보면 고정된 보수를 받는 경우와 때때로 보수를 받는 경우가 각각 39.8%씩이었으며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는 8.7%로 나타났다. 월평균 보수의 정도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 2만원에서 500만원을 받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30만원 이하를 받는 비율이 16.3%, 31만원~50만원이 27.9%, 51만원~70만원이 24.4%, 71만원~100만원이 20.9%로 부업활동하는 응답자의 약 90%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73만원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수지급여부도 일하는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월급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와 가내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때때로 보수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족(남편)의 일을 돕는 경우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재 주부로서 부업활동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참여나 능력발휘를 위해서가 22.9%, 가족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가 15.3%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취업을 위한 전단계로 부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0.8%에 불과했다. 한편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규취업을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부업형태로 일하는 이유를 보면 가사일때문이 25.2%, 육아문제가 33.9%로 59.1%의 응답자가 가사노동으로 인해 정규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취업의 기회가 없어서가 13.0%,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어서가 11.3%로 취업기회의 부족때문이라는 비

율도 1/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족의 반대나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비율은 6.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부들이 정규취업을 하지 않고 부업활동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일을 하지만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사일, 자녀양육문제 때문에 정규직을 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 전업주부의 비취업 이유

한편 전업주부의 경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표 3) 가사일이 25.4%, 육아문제가 31.4%, 노인부양이 0.8%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정내의 역할 때문이라는 비율이 57.6%나 되었으며 취업기회가 없어서는 13.2%,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어서는 11.1%로 나타나 기혼여성에게 적합한 취업기회의 부족을 지적한 경우가 1/4정도나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업주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주부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가사노동의 부담과 취업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3) 전업주부의 비취업이유

분류	빈도(%)
가사일 때문	158(25.4)
육아문제	195(31.4)
노인부양 때문	5(0.8)
건강상	38(6.1)
가족의 반대	40(6.4)
취업기회가 없음	82(13.2)
적성맞는 직장없음	69(11.1)
기타	35(5.6)
계	622(100.0)

라. 앞으로의 취업희망의사

이번에는 응답자 모두에게 앞으로의 취업희망의사를 질문한 결과(표 4) 취업을 전혀 원하지 않는

비율이 26.2%에 불과해 다수가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의사를 보면 좋은 직장이 있으면 하겠다는 32.4%, 좋지 않더라도 기회가 있다면 취업하겠다는 10.3%, 여건이 좋아지면 취업하겠다는 28.2%, 어떤 직장이든 취업하겠다는 0.9%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취업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의사를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학력에 관계없이 3/4정도의 주부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취업을 전혀 원하지 않는 주부들의 가장 큰 이유는 건강상, 시간이 없다, 현재에 만족한다, 나이가 많다, 쉬고 싶다는 순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으며 마음에 맞는 직장이 없거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등 취업구조상의 문제를 이유로 지적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전업주부들이 취업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가사노동의 부담과 취업기회의 부족을 지적한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주로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주부들이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4〉 앞으로의 취업희망의사

분 류	빈도(%)
전혀 원하지 않음	180(26.2)
여건 좋아지면 취업하겠음	194(28.3)
좋은 직장 있으면 취업하겠음	223(32.5)
좋지 않더라도 기회되면 하겠음	71(10.3)
어떤 직장이든 취업하겠음	6(0.9)
기타	12(1.7)
계	686(100.0)

다. 희망하는 취업형태 및 이유

이번에는 앞으로 취업희망의사를 갖고 있는 49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취업형태에 관

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5), (표 6) 판매·서비스직(26.7%), 사무직(23.2%), 교육직(12.4%), 전문관리직(8.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판매·서비스직과 사무직을 매우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정 근무형태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를 희망하는 근무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평생직으로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수를 많이 받으려고,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표 5〉 희망업종

분 류	빈도(%)
판매·서비스직	95(26.7)
사무직	83(23.2)
교육직	44(12.4)
전문관리직	30(8.5)
기능직	19(5.3)
디자인·홍보	15(4.3)
생산직	11(3.4)
상담직	6(1.7)
기타	53(14.9)
계	356(100.0)

*무응답이 138명임.

〈표 6〉 근무형태

분 류	빈도(%)
정규직	57(17.8)
시간제	135(42.1)
일주일에 몇일	44(13.7)
내가 일하고 싶을때	49(15.3)
재택근무	30(9.3)
기타	6(1.9)
계	321(100.0)

*무응답이 173명임.

위해 정규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간제 근무나 재택근무 등 비정규직을 원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육아와 가사노동 때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외에 자유시간을 갖고 개인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일하는 대가로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보수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에서 월 300만원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나 가장 많이 응답한 월보수액을 보면 100만원이 25.0%, 50만원이 13.4%, 80만원이 12.8%, 70만원이 1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을 내어 본 결과 월평균 84.3만원이었다. 희망하는 보수 역시 원하는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분석한 결과 정규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보수는 월 117.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제 근무형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보수는 월 73.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취업을 할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업할 생각인가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취업 시작시기는 당장 가능하다는 비율이 4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막내자녀 초등학교 입학후로 나타났다. 취업을 언제 그만두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35.1%, 능력있을 때까지가 31.8%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2/3는 평생직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희망 이유를 두가지 고르도록 한 질문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로 지적한 이유에 각각 2점과 1점으로 가중치를 주어 점수화하였는데, 그 결과 1순위는 경제적으로 돈을 벌려고였으며, 2순위는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서, 3순위는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4순위는 실심하고 시간이 남아서, 5순위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순위는 응답자의 학력(고졸이하/전문대이상)에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주부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경제력을 얻기 위한 것이며 사회참여나 능력발휘는 부수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한편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월 5만원에서 월 300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100만원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80만원이 13.1%, 150만원이 10.0%, 50만원이 9.1%, 60만원이 9.3%, 70만원이 8.7%의 순으로 나타나 취업을 할 경우 원하는 월보수액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사. 자격증 소유실태

만일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이나 특별한 기술의 소유여부를 보면 자격증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주부들이 68.4%나 되어 2/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격증이나 기술을 한가지 소유한 사람이 25.1%, 두가지 이상 소유자는 6.5%로 나타났다.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는 교사자격증(62명)이 가장 많았으며 기능인 자격증(31명), 사무기능자격증(28명), 간호사자격증(2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기재한 경우도 25명이나 되었다.

아. 일반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의견

이번에는 주부 자신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취업)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먼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매우 찬성이 27.0%, 비교적 찬성이 63.5%로 무려 90.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견은 10% 미만이었다. 여성들의 취업기간에 대한 의견을 보면 결혼과 관계없이 여성의 취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불과 1.3%에 그쳐 대부분의 주부들이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취업시기를 나누어 볼 때 자녀양육기간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재취업해야 한다는 의견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자녀양육에 관계없이 취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21.5%, 막내자녀가 학교에 들어간 후에 취업해야 한다는 10.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녀양육기간동안은

여성이 취업하는 것에 반대의견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여성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탁아시설의 확충 등 복지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27.0%, 가사노동 분담 등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시간제 근로 등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3%, 여성 스스로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2.9%로 나타나 의견의 대부분이 복지지원체계의 확충과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개선을 지적하였다. 이는 앞에서 자녀양육기간동안에는 여성들이 취업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과 상통하는 점으로, 기혼여성들의 자녀양육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여성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지도 및 참여경험

기혼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이 10.8%였으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7.7%로 과반수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잘 알고 있으면서 교육도 받아본 사람은 7.6%였으며 잘 알지만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33.9%나 되었다. 과반수가 기혼여성을 위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홍보가 잘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주부가 응답자의 7% 정도밖에 안 되었으나 이들 5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교육받은 기관을 보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백화점, 신문사, 구청

등의 정부행정기관, 기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부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주부는 직업훈련원, 사회복지관, 부녀교실(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32명(전체 응답자의 4.5%)만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응답자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잘못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교육받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데, 수강한 과목내용이 기술반이었다는 응답은 60.8%였으며 나머지는 취업관련교육(7.1%), 취미반(12.5%), 교양교육(5.4%), 판매·세일즈(14.3%)로 응답하여 직업훈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교육받은 기간은 3개월이 34.5%로 가장 많았고 6개월(20.0%), 4개월(16.4%), 1개월(12.7%)의 순이었다. 교육비용은 월평균 4만원이었으나 기관에 따라 무료에서부터 월 25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월평균 교육비를 보면 직업훈련원은 무료였으며 백화점·신문사는 2만3천원, 사회복지관은 3만8천원, 단체의 부녀교실은 5만3천원, 정부행정기관은 7만1천원, 기업체는 2만3천원으로 나왔으나 같은 기관내에서도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수강료의 차이가 커 기관유형별 월평균 교육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교육받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상대적인 평가와 절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는데 먼저 자신의 기대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평가를 보면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3.9%, 기대보다 좋았다는 35.7%, 기대보다 미흡했다는 30.3%로 볼만하다는 만족한 사람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만족이나 불만이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만족여부가 교육받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사회복지관과 정부행정기관의 교육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아주 미흡하다는 응답이나와 이들 두 기관은 프로그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희망자의 요구사항

모든 응답자에게 앞으로 주부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를 질문한 결과 전혀 받아볼 생각이 없는 사람이 20.8%였으며 경우에 따라 받아볼 생각이 있거나(74.5%) 무조건 받아볼 의사가 있는(4.4%) 비율이 거의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들 중에서 앞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힌 주부들만을 대상으로 원하는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응답한 비율은 76.1%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직업훈련이라 볼 수 없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이 원하는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컴퓨터관련 교육이 2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전문요리강좌, 공예기능교육, 미용기술, 경영관련 교육, 탁아모 및 방과후 지도교사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요리사나 미용사 교육은 그동안 대부분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나 나머지 내용들은 현대사회에서 선호되는 직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훈련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자녀교육법, 외국어교육, 상담기술 등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특히 자녀와의 관계)에 요구되는 자질들에 관한 것으로 과거 꽃꽂이, 뜨개질 등의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선호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하겠다.

직업훈련 받기를 원하는 교육기관 선호도를 보면 (표 7) 종합사회복지관이 35.8%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다음이 대학의 평생교육원(21.7%), 민간여성단체(12.3%), 학원(11.1%), 공공직업훈련원(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학의 평생교

육원에서는 현재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연속교육의 욕구와 전문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별 선호도는 응답한 주부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068$ $p<.01$). 즉,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선호하는 순위에 있어서는 주부의 학력이 고졸이하이거나 전문대이상에 관계없이 같게 나타났지만 그 비율의 차이를 보면 전문대이상 학력집단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거의 같으나 고졸이하의 학력집단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선호하는 사람이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약 2.5배 가량 많아 종합사회복지관 선호도가 월등 앞서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교육기관별로 어느 학력집단의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학력별 희망하는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전체
공공직업훈련원	35(12.2)	18(8.6)	53(10.7)
종합사회복지관	115(39.9)	63(30.1)	178(35.8)
민간여성단체	39(13.5)	22(10.5)	61(12.3)
백화점·언론사 주부교실	23(8.0)	14(6.7)	37(7.4)
대학의 평생교육원	48(16.7)	60(28.7)	108(21.7)
사설전문훈련원(학원)	26(9.0)	29(13.9)	55(11.1)
기타	2(0.7)	3(1.4)	5(1.0)
계	288(100.0)	209(100.0)	497(100.0)

*Chi-Square = 17.068($p<.01$)

한편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은 3개월이 15.0%, 6개월이 35.6%로 3개월짜리 단기 코스보다는 6개월코스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개월도 10.8%나 되어 장기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은 하루중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는 한달에 3만원이하가 38.4%, 4~5만원이 35.7%, 6~10만원이 18.5%로 대부분 3만~5만원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원하는 바가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어학 교육, 컴퓨터교육, 정보처리, 환경관리사, 인테리어, 속기사 등 전문기술교육의 중설을 요구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고급스러운 프로그램(4명),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2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5)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가.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및 활동내용

응답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여부를 보면 70.9%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11.9%, 과거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17.2%로 주부들 중 약 30%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참여경험여부는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봉사활동의 종류를 보면 불우이웃봉사가 22.4%로 가장 많았고 종교봉사(15.1%), 지역사회봉사(12.8%), 병원봉사(7.3%), 행사봉사와 모니터링봉사(각각 6.7%), 노력봉사와 상담봉사(각각 5.0%)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구체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역사회봉사나 노력봉사, 종교봉사 등 대부분이 불우이웃을 찾아가 청소, 빨래, 음식만들기 등을 도와주는 단순노력봉사활동으로 보인다.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경로를 보면 종교활동을 통해서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그외에 친구·선배를 통해, 이웃의 권유, 우연히 등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참여하게 된 경우가 2/3이상인 반면, 신

문·방송이나 학교, 회사, 부녀회 등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참여한 경우는 3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29.3%가 자신에게 만족을 준다는 점을, 14.6%가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12.1%가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약 93%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7.0%에 불과하였다.

나. 자원봉사활동 참여희망자의 요구사항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보면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18.9%였으며 경우에 따라 참여할 생각도 있다는 71.6%, 무조건 참여할 생각이라는 8.4%로 나타나 응답자중 8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키고 봉사방법 등을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킨다면 주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면에서 바람직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공동체를 건설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번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봉사활동의 종류를 순위대로 2가지를 지적하도록 한 후 첫번째 희망 활동에는 2점을, 두번째 희망활동에는 1점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을 구하는 방법으로 선호하는 봉사활동의 순위를 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응답자의 학력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에 따라 선호하는 봉사활동의 종류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졸이하 학력의 주부들의 노력봉사활동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이 행사보조, 상담, 안내 및 접수, 사무/행정보조, 위문활동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대이상 학력의 주부들은 상담활동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이 학습지도, 도서관업무, 사무

/행정보조, 행사보조, 조사연구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봉사활동을 연결시켜 줄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더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 어느 정도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전혀 필요없다는 사람은 24.6%였으며 나머지 3/4는 얼마간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비와 점심값은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42.7%로 가장 많았고, 교통비 정도가 15.9%, 점심값 정도가 6.9%였으며 교통비와 점심값 외에 수당까지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9.0%나 되었다. 따라서 주부인력을 자원봉사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재정적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진정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한 의식교육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강생조사 분석결과

기혼여성들 주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6개 기관에서 1996년 9월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6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훈련기관별 응답자의 수는 <표 8>과 같다. 사회복지관과 민간여성단체의 응답자가 적은 것은 이들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부대상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고 최근들어 주부들의 수강생이 감소하여 회수된 설문지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들 6개 기관중 일하는 여성의 집과 근로여성회관은 같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조정도가 다르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주요 교육대상층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에서는 두 기관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표 8> 수강기관별 응답자 수

분 류	빈도(%)
인정직업훈련원(2곳)	119(44.8)
일하는 여성의집(1곳)	69(25.9)
근로여성회관(1곳)	55(20.7)
사회복지관(1곳)	10(3.8)
민간여성단체(1곳)	13(4.9)
계	266(100.0)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학력을 보면 고졸(중퇴포함)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졸(중퇴포함)은 27.2%, 전문대졸(중퇴포함)은 14.8%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가 42%나 되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남편이 있는 여성이 83.1%였으며 별거·이혼·사별로 남편이 없는 경우가 3.9%, 그리고 미혼여성이 13.0%로 나타났다. 본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조사대상자이므로, 주부프로그램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수집한 결과 미혼여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본조사의 일차적 목적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평가이므로 응답자의 결혼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혼여성의 설문지도 모두 포함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구당 월평균 수입을 보면 100만원 이하가 12.6%, 101~150만원이 24.4%, 151~200만원이 26.4%, 201~250만원이 16.3%, 251~300만원이 13.8%, 그리고 301만원 이상은 5.6%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수준에 대한 응답자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를 보면 아주 잘산다는 경우는 한명도 없었으며, 비교적 잘사는 편이 4.7%, 중간정도가 72.4%, 비교적 못하는 편이 21.4%, 아주 못산다가 1.6%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대상 설문지조사의 응답자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약간 낮은

편이라고 하겠다.

2) 프로그램 수강과정

먼저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 동기를 보면 기술을 배우려고가 42.6%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30.6%로 수강생의 약 3/4로 취업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25.7%의 응답자는 여가선용, 취미생활을 위해 수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조사대상 프로그램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의 1/4정도는 여가선용으로 생각하고 있어 직업훈련과정으로서의 의미가 감소된다고 하겠다. 한편 프로그램의 수강경로를 보면 친구나 주변사람의 소개로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를 보고 수강하게 된 경우는 36.7%, 기관을 찾아서 알게 된 경우는 14.0%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

가. 교육기간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총 교육기간을 보면 1개월짜리가 4.6%, 2개월이 1.2%, 3개월이 59.6%, 4개월이 6.5%, 6개월이 24.2%, 7개월이 0.4%, 9개월이 2.7%, 12개월이 0.8%로 나타나 3개월짜리와 6개월짜리의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간에 대한 의견을 프로그램의 기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1~3개월짜리 단기코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짧은 의견이 있었고 6개월이상 장기코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기간별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F=44.47$ $p<.001$). 한편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교육기간으로는 3개월이 34.7%, 6개월이 33.5%, 4~5개월이 14.9%로 대부분 현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 교육비용(월수강료)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월 수강료는 무료에서부터 월 25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무료인 경우가 20.0%였으며 5만5천원이 12.5%, 17만원이 20.8%로 훈련기관에 따라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 전체적 분포를 보면 1만7천원~3만원이 18.1%, 3만1천원~6만원이 20.4%, 6만1천원에서 9만원이 7.5%, 10만원에서 15만원이 11.4%, 15만원이상(최고액수는 월25만원)이 22.7%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의 수강료에 대한 평가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49.4%, 싸다는 의견은 24.0%, 비싸다는 의견은 2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비용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월수강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데($F=109.10$, $p<.001$) 6만원이상부터는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에 월16만원이상인데도 싼편이라는 의견이 있어 단순히 수강료만으로 비용의 과다를 논하기보다는 교육내용의 질이나 시설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월수강료를 보면 무료에서부터 월 3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적정 수강료는 월15만원(14.4%), 월5만원(13.9%), 월3만원(13.0%), 월10만원(9.1%) 등이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육기관별 바람직한 월평균 수강료를 구해보면 인정직업훈련원 수강생들은 월 10만8천원정도를, 일하는 여성의 집 수강생들은 월6만8천원정도를, 복지관 수강생들은 월6만1천원정도를, 그리고 민간단체 수강생들은 월1만8천원정도를 바람직한 적정 수강료라고 응답하여 현재의 수강료보다 더 낮게 보고 있었다.

다. 교육내용

현재 교육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기대보다 훨씬 좋다가 35.2%, 기대보다 약간 좋다가 31.2%, 기대와 마찬가지로 22.5%, 기대보다 약간

미흡하다가 10.3%, 기대보다 훨씬 미흡하다가 0.8%로 대부분 만족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현재 수강중인 교육기관별로 분석해 보면 기대보다 좋다는 평가는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관이 높았으며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평가는 일하는 여성의 집과 훈련원에서 나왔다. 기대보다 어떤점이 좋았는가를 보면 '자세히 가르쳐 준다', '강사진의 수업준비 등 열의'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기대보다 미흡한 점으로는 '개별지도가 아니라서 실습기회가 적다(시설미비)', '이론위주의 수업방법', '강사진이 미흡하며 강의내용이 중복된다'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물론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의 기대에 비한 것이기 때문에 수강생의 기대수준이 어느정도였는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절대적인 평가의 방법으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10점에서 100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90점이 28.2%, 80점이 25.3%, 100점과 70점이 각각 12.2%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주었으며 평균점수는 85점이었다. 이를 다시 훈련기관별로 평균점수를 구해본 결과 민간여성단체의 점수가 9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회복지관(89.4점), 인정직업훈련원(87.6점), 일하는 여성의 집(81.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5가지 요인들(강사의 실력, 강사의 성의, 교육환경, 교육시간대, 취업알선노력)별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강사의 성의, 강사의 실력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교육환경이나 취업알선노력에 대해서는 불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2점, 만족한 편이라는 1점, 그저 그렇다는 0점, 불만인 편이라는 -1점, 매우 불만이라는 -2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균을 구해보았다.

그 결과 역시 강사의 성의(열의)에 대한 평가가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알선노력에 대해 가장 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는 교육기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나 취업알선 노력면에서는 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덜 만족스러운 것으로 밝혀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취업과 잘 연결이 안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교육기관별 만족도(평균점수)를 각 요인별로 보면 강사선정과 강사의 성의 등 강사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이 사회복지관, 인정직업훈련원의 순이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저그렇다는 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며 교육시간대에 대해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만 제외하고는 모두 1점보다 높아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취업알선노력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아 모두 그저그렇거나 불만인 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복지관의 취업알선노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미루어 볼 때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가장 커다란 과제는 훈련후 취업과의 연결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 하겠다.

라. 취업과의 연계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프로그램들이 취업알선 노력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강생들은 프로그램 수료후 취업과의 연계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당연히 취업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22.2%, 취업과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45.6%, 취업과 연결될 수 있을지 걱정인 비율이 7.1%로 나타나 수강생의 74.9%는 취업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취업을 생각하지 않거나(15.9%) 취업과의 연계를 기대하지 않는(7.9%) 비율은 23.8%였다. 따라서 수강생들의 취업욕구에 부응하도록 취업알선 활성화는 직업훈련 기관들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표 9〉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분 류	빈도(%)
취업과 연계 활성화	25(22.3)
교육내용의 다양화	24(21.4)
교육의 전문화(전문인 양성)	17(15.2)
취업기회의 다양화	15(13.4)
맞은 교육기회 제공	5(4.5)
실습위주의 알찬내용	5(4.5)
교육시간의 차별화	5(4.5)
탁아시설 확보	5(4.5)
교육프로그램 홍보 활성화	5(4.5)
수강료 저감화	4(3.6)
재교육 필요	2(1.8)
계	112(100.0)

마지막으로 주부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표 9) 역시 취업과 연결된 교육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전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리고 실습위주의 알찬내용의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였으며 교육시간대를 차별화하고 수시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교육장내의 탁아시설 확보에 대한 요구,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V. 직업훈련기관 사례조사 결과

현재 주부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들 가운데 유형별로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들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다양한 만큼 규모나 특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격증 소지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정훈련기관(3개소 면접)은 프로그램 구성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여 취업알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 복지 전반을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관(3개소 면접)은 주부

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특화시키기보다는 부녀복지 분야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집, 근로여성회관, 노동부 위탁의 단기적응훈련과정 실시 민간여성단체, 그리고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는 부녀복지관 등 4개 기관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이중 일하는 여성의 집과 근로여성회관은 같은 민간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부대상 직업훈련 기관들을 3개의 분야로 나누어 10개 기관을 조사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면접대상인 대부분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직업훈련기관이 별로 없었던 초창기에는 일간지 광고도 손쉽게 할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광고의 범위가 넓지 못한 실정이다. 즉 광범위하면서도 효과적인 홍보에 치중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로 일간지의 알람란이나 반상회, 그리고 지역정보지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프로그램 홍보에 의해 일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수강생들의 수강경험을 통한 개인적인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홍보방법은 거의 모든 훈련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관련있는 대학의 학과에 홍보물을 보내기도 하고 있다. 각 기관의 홍보가 백화점 무료강좌나 사설학원의 비대화로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 기관의 사정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한다.

2) 강사진의 선정은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지역정보지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그리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용한다. 대략 30여명이 한 분반을 이루고, 한 분반에 한명의 강사진이 있다. 강사는 교육하는 일 외에 수강생들의 출석관리를 맡고 있으며, 취업상담은 각 기관의 다른 담당자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직업훈련 기관들의 제정이 어렵다보니 강

사진이 보수가 낮아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3) 재정문제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수강생들의 수강료에 의존하고 있고 그외 수익사업, 후원금,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정직업훈련기관은 사설 학원과 비슷하게 전액 수강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위탁교육에 한해서는 사업비의 보조를 받는다. 이러한 위탁교육이란 주부의 고용촉진을 위한 단기교육과정들이다. 시립 부녀복지관의 경우에는 전액 서울시 재정후원을 받으며, 민간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은 정부의 보조, 수강료, 단체기금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재원이 다를 수 있으며, 재정적인 사정에 따라 수강료가 무료에서 월 20~30만원의 수준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한 민간단체의 경우, 재정확보를 위해 자체 수익사업을 위한 알뜰바자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민간단체의 경우 재정적인 후원 외에도 교육재료와 도구를 자체적으로 후원받은 경우도 있다. 가령 중소기업체의 낡은 재고품이나 재활용품을 받아 실습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4) 실제 수강생들의 연령분포는 18~50대까지로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이런 실제 수강생들의 연령층과는 달리 교육계획에 있어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기관마다 조금씩 달랐다. 공공직업훈련과정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대개 35세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가 취학한 후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주부들은 배제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외 복지관이나 일하는 여성의 집, 그리고 정부산하 기관의 주부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의 연령 대상을 따로 설정하지 않거나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23세이하, 또는 40세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점은 대개 연령제한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현대 사회의 수요에 따라 새로 개발된 직종들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하는 여성의 집 프

로그램들을 보면, 건축제도 CAD는 23세 이하로, 애니메이션과 텍스타일디자인은 35세 이하로, 귀금속세공은 3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다.

한편 종합사회복지관과 일하는 여성의 집에는 교육시간 동안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간제로 탁아비를 받고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인정직업훈련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탁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여러 실습도구를

공공직업훈련과정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대개 35세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녀가 취학한 후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주부들은 배제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외 복지관이나 일하는 여성의 집, 그리고 정부산하 기관의 주부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23세이하, 또는 40세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점은 대개 연령제한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현대 사회의 수요에 따라 새로 개발된 직종들이라는 점이다.



수반하므로(재봉, 미용...) 어린자녀와 같이 수강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주부가 이러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란 실제 힘든 실정이다.

5) 개설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역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정직업훈련기관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고정되어있어 설립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령 미용이면 미용만, 요리면 요리분야에서만 조금씩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는 정도이며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대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여러 종류이지만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후의 취업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이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크게 조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주부의 취업을 위한 단기직업훈련과정들은 주로 양재, 흥패션, 머리미용, 피부미용, 조리 등 전통적인 여성직종으로 분류되는 분야 등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이나 좀 더 폭넓은 층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취업보다는 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은 경향이다. 한 민간여성단체에서 오랜동안 새로운 여성 전문직종을 개발하여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도배사, 귀금속세공사, 피부미용사, 장신구디자인 등 직업종을 개발하였고 최근에는 새로운 주부직종으로 전자출판, 컴퓨터디자인, 사무자동화, 왁스카방, 보석감정기능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30세이하, 35세이하, 40세이하 등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 자녀양육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특기할 만한 점은 민간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근로여성회관의 경우

‘직업개발부’라고 하는 부서가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으로 새로운 직업개발을 위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며 다른 기관과도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연결망이 구성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6) 주부들이 어느 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가 하는 정보는 주부들의 인력활용을 위해 중요한 지표이다. 거의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인 점은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시기는 봄과 가을이며(특히 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는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주부들이 가사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부들이 물리는 교육시간도 대부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인 오전 10~12시대가 가장 많다. 이런 주부들의 수강시간 선호경향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었다.

7) 교육 후 기관에서 직접 자격증을 주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료증을 주고 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함께 준비하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인정직업훈련기관과 일반 복지관의 자격증 취득반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이 보통반보다 길게 되어 있다. 자격증의 취득은 이런 교육과정 수료와 함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단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이 있다. 한편 자격증 취득 이후의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수강 이후 관리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8) 교육후 취업과의 연계문제에는 사실 각 기관의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다르다. 인정훈련기관의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후 취업은 대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기관에서 취업상담을 해주긴 하지만, 많은 경우 개인이 광고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복지관의 경우도 별도로 수요측과의 연결없이 개인적인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기관에서는 아예 교육 초기부터 취업보장이란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민간여성단체의 경우 100% 취업보장을 목표로 수강생들과 처음부터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수요측과도 연결을 갖고 있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다고 하는데, 애니메이터, 미용사, 요리사, 환자돌보는이 등은 취업이 잘 되는 분야이며, 흥패션, 양재 등은 기업에 취업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개인적으로 수선점을 운영하는 선에서 취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병원 등의 수요처와 계약을 맺고 고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마친 인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결국 취업은 각 교육기관과 수요를 필요로 하는 측과 연결될 때에는 어느정도 안정적이고 보장적인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관계망에 의한 연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업훈련기관이 그러한 수요·공급의 연결고리 없이 그때그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담해 주는 정도였다는 점이다.

9)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건의하는 개선책으로는 교육프로그램과 취업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동시장의 수요 등을 빨리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기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각 기관의 강사나 관리자도 역시 예전에는 봉사정신으로 보수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을 하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가 힘들어 금방 나가는 경우가 많아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VI. 결론 : 주부인력 활용방안

(1)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

첫째,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기혼여성들의 인력활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시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정규취업을 못하는 첫번째 이유가 바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으로 밝혀졌으며, 앞으로 취업을 해도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탁아시설의 확충은 우선과제이며 이와 더불어 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주로 만2세이하의 아동들로 제한하는 탁아시설들이 여성들의 산후휴가가 끝나는 직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영아탁아가 가능해져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만 취업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에의 주부인력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95년도에 발표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10대 추진과제에는 이들 두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취업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혼여성들은 정규직보다는 시간제 근무를 원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시간제 근무에 대한 선호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들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충된다면 시간제 근로에 대한 선호경향이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고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늘려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제 근무의 선호경향이 탁아시설의 확충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아무튼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한 시간제 근로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법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실제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약직, 촉탁직의 형태로 취업이 되어 있을 경우 자신을 시간제 근로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중 여성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점차 증가추세라고 하는데 임금이나 복지혜택 면에서 정규직에 비해 아주 불리하게 되어있는 실정이다. 시간제 근무가 정규직에 비해 일하는 시간의 차이만큼만 불이익을 받게끔, 즉 다시말해서 근무 시간에 따른 차이만을 인정하고 다른면에서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주부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시장에 정규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노동의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째, 행정부처내에 새로운 직종개발 전담부서 마련

주부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부처에서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주로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전통적 여성직종에 국한된 현행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운용이나 정보산업과 관련된 정보서비스 직종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보장을 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서도 주부들은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내에 직종개발 전담부서나 인원을 배치하고

체계적으로 수요·공급관계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직종발달추세 등을 분석하여 우리사회의 발전수준에 적합한 신직종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대상집단의 학력이나 전문지식 등에 적합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 직업훈련기관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네째,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전담부서 강화

주부인력을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봉사하고자 하는 주부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조직적인 연결망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교육부가 성적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홍보부족과 인원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무장관(제2)실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국 200여개의 센터를 관리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자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면 이의 일부를 자원활동참여자들에 대한 교육,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주부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방안

첫째, 새로운 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주부들의 대다수가 취업의사를 갖고 있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가 강한만큼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 여성직종인 양재, 미용, 한복만들기 등의 기능사 훈련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화사회에 요구되는 직종들, 예컨대 컴퓨터관련 사무처리, 자료검색, 어학관련, 여행관광요원 등 신직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주부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35세미만, 40세이하 등으로 국한시키는 연령제한을 없애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차별화

다양한 계층의 주부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분야를 전문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강대상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차별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취업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고학력인 경우에는 취업하였던 직종이나 전공과목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차별화하여 인정해 주도록 하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저학력, 무경력의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능을 훈련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직업훈련 기관별로 프로그램의 수준 차별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법은 훈련기관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준을 차별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중장기 기술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정직업훈련원에서, 단기 기능훈련 프로그램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정보관련(컴퓨터 프로그래밍, 인터넷 자료검색, 어학관련교육 등) 프로그램은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차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여성의 재교육기관으로서 여성들간의 사교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고학력 여성들은 현재의 직업훈련 교육기관보다는 보다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 주부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따라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산업, 어학, 상담, 경영, 예술기능 등의 면에서 고급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시설투자 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직업훈련 기관별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훈련기관을 특화시키고 수강생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네째, 직업훈련과정에 여성의 직업의식 강화교육 포함

모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시에 반드시 여성의 직업의식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자세, 여성과 관련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과 가정생활의 원만한 양립방안 등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교육기간과 시간대 결정시에 자녀들의 시간표 반영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에 대하여는 현재의 3개월 내지 6개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므로 1~2개월짜리 단기코스는 줄이고 양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확장보다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특화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기간 만이라도 취학 자녀들과의 생활리듬을 맞출 수 있도록 가능한한 3월과 9월에 시작하여 학생들의 방학과 시기가 맞출 수 있도록 5개월, 4개월 코스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오전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직업훈련기관내에 탁아시설 마련

직업훈련 기간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탁아시설이 현재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 마련되지 못한 기관이 많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직업훈련기관에는 탁아시설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자원봉사활동에의 인력활용을 위한 방안

자원봉사활동 연결망의 중심점 구축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중심점의 기능을 하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를 새로이 설치하기 보다는 현재 정부장관(제2)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의 기본교육 실시, 자원활동 지원자의 상담 및 배치,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I. 주부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형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현재 정보화사회에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보았다. 이들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정보화사회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대부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들의 전문지식(학력)이나 경력들에 비추어 고학력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반의 개설은 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할 경우 대학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새로운 직종개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철저한 시장조사와 미래사회의 수요예측에 의한 장기적인 연구와 조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주로 주부인력의 공급자 측면에서 접근한 공급자의 요구에 대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분석이 요청된다. 후속적인 연구로 우리보다 정보화가 앞선 서구사회에서의 여성직종에 대한 분석과 한국적인

실정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신직종개발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되는 3가지 모형은 그러한 조사에 근거하지 못하고 단지 주부인력 공급자의 측면에서 모색해 본 미래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형에 불과하다.

〈모형1〉 인터넷 정보자료검색원 양성 프로그램(고급반)

* 대상 : 대졸학력, 사무직 취업경력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주부, 영문 해독이 가능한 자

* 목표 : 국제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 연결망을 거쳐 각국의 연구자료, 도서 등을 검색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췌해주는 정보 서비스 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료후 자격증 시험을 보도록 유도함(인터넷정보자료검색사)

* 기간 : 주당 6시간씩 총 12주(3개월) 총 72시간

* 준비시설 : 컴퓨터, 국제통신망 인터넷 가입

* 교육내용 :

- 정보화사회와 인터넷, 자료검색 간의 관계
- 정보화사회에서의 여성의 취업형태, 기대되는 자질 등
- 컴퓨터를 통한 실제적 정보자료 검색방법, 예상되는 문제들과 해결방법
- 정보소유자의 기본윤리와 자세
- 지적소유권 등 정보산업과 관련된 법령, 규칙 등

* 예상 취업가능영역 : 정보산업 관련기관의 자료 검색원

인터넷정보자료검색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

* 훈련원 :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고학력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개설될 경우 효율적일 것임.

〈모형2〉 자료 전산입력원 양성 프로그램(초급반)

* 대상 : 중졸학력, 간단한 영어단어 해독,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도 됨.

* 목표 : 최근 시장조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조사한 자료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자료입력원은 이러한 자료처리 단계에서 가장 간단한 수준의 컴퓨터 입력언어만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간 : 주당 6시간씩 총 12주(3개월) 총 72시간

* 교육내용 :

- 정보화사회에서의 컴퓨터의 기능, 자료화, 전산작업의 효율성
- 컴퓨터의 기본원리, 기본언어습득(DOS와 숫자입력을 위한 한가지 언어 훈련)
- 자료의 입력과 확인방법, 예상되는 문제들과 해결방법
- 여성의 취업과 직업의식, 기대되는 자질 등

* 예상 취업가능영역 : 시장조사기관, 통계분석기관의 자료입력원
시장조사기관과 훈련기관간에 미리 계약을 통해 수료후 곧 취업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임.

〈모형3〉 전문 상담요원(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 양성 프로그램

* 대상 : 고졸이상의 학력(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전공자 우선)

* 목표 : 복지사회로의 발전하에 사람들의 가정적, 성적 고민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들어주고 상담해 줄 요원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전문상담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임.

* 기간 : 주당 6시간씩 총 16주(4개월) 총 96시간 (상담실습 24시간 포함)

* 교육내용 :

- 인간관계의 기본원리, 심리학
- 가정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된 법률의 이해
- 현대사회에서의 가정문제, 성문제, 사회학, 사회복지학
- 실제 상담기관에서의 4주간 실습
- 실습 후의 상담활동 분석

* 예상 취업가능영역 : 각종 상담소에 상담원으로 취업가능(특히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각 일선행정기관에 상담원을 둘 가능성이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카운셀링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다음은 본회가 지난 11월 29일 조순 서울특별시시장을 초청해 가진 여성정책간담회 내용을 녹음본이한 것이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60억원 '97년에 조기 달성하기로

우리나라는 여성을 교육은 시켜놓고 쓰지는 않는 큰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경쟁력 10% 증가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꼼꼼하고 숲·담배 달고 참을성 있고 일관성 있는 성격을 오히려 회계, 통상, 법의 분야를 여성에게 맡기면 여성의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농림면에서도 여성인력을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조강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연숙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성지도자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자리를 통해 서울시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역점사업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한국이 가지는 모든 문제와 모순을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시는 해답이 없는, 논리를 초월한 사안들을 수없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시정을 1년 5개월동안 해온 저의 경험은 저에게 벽찬 일이기도 하였습니만, 다른 한편으로는 뜻있고 보람되고 영광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라면 어떤 사회든지 모순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서울에 특히 모순이 많은 이유는 서울의 역사 자체가 그런 모순을 가지게끔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당시 서울의 인구가 100만명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100만명이 되었고, 비단 1,100만명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16개의 위성도시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분당, 일산, 미곡시

동에 살아 법적으로는 경기도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민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의 2,00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해 있어 서울은 남한 인구의 반이 생활하고 있는 세계적인 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도시계획이 없이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라면 가령 시가를 어떻게 만들겠다, 도로, 상하수도 등을 어떻게 내고, 가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지하철을 어떻게 뚫고 학교를 어디에 세우고, 상가를 어떻게 세우겠다 등등…… 이와같은 마스터플랜을 갖고 도시를 건설했다면, 가령 미국의 워싱턴, 시카고, 클리블랜드와 같이 발전했겠지만, 서울은 거꾸로 발전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들어와 집을 짓고, 도로가 뚫리고 상하수도, 가스 등이 공급되고 그리고 나서 지하철이 새삼 뚫리게 되고, 또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학교를 세우는 식으로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서울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것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학교 교육도 많이 받고 서양의 선진도시에도 갔다온 경험이 많아 미국에



가봤더니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리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시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미리 짐작은 했습니다만, 시장이 되고나서 지금까지 매일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5개월동안의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래도 이만큼 된 것도 다행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차질이 있고 잘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웠던 그 방향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는 반드시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청의 공무원체계가 가지는 공무원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생각해 볼때 공무원들의 질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정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며 여건이 제대로 주어진다면 훨씬 더 많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능력, 공무원 인원, 조직, 기술, 지식 측면, 의식의 문제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 지방자치가 되고나서도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여러가지 새로운 모순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또한 하고 싶은 일들이 제대로 잘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초대민선 시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여 작년 7월 1일 삼풍백화점 현장에서 취임식 없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9월 1일에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 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7대 과제였습니다.

첫째 안전, 둘째 교통, 셋째 환경, 넷째 복지, 다섯째 문화, 여섯째 주택을 포함한 우리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일곱째 대외적으로 열린 국제적인 도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저의 임기동안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서 7대 과제를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의 조직을 개편하고 금년부터 새로운 방침 아래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한 지 일년도 채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정의 목표로 내건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편법을 그만두고 정도를 걷자, 강제가 아닌 자율·자발을 존중하자, 어떤 것을 자꾸 은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함으로써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정을 하자, 또한 외부에 자랑하기 위한 전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일을 하자. 모순을 제거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 10월 28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 저희는 서울을 더불어 사는 열린 도시로 만들자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서울시의 공무원제에 있어서는 자정노력을 하고 정풍운동을 강화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행정체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이 첫째 안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성

수대교의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그리고 가장 크게는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있는 큰 공공 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전면에서의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있는 16개 다리를 비롯해서 터널, 지하철, 고가도로 등의 보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나아졌느냐 볼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안전의 수준은 매우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도시 시설물들은 그것이 건설되었을 당시 시설이나 혹은 설계면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고 이제는 노후된 것이 많아 안전면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인원과 경비 그리고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안정한 도시 시설물을 보수하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이 완료된 후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건축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지하철 5호선 일부구간이 불안정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구조적인 안전문제는 없다는 진단 결과를 보고 받았습시다.

어쨌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미리 조심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 연말에 당산 철교를 안전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철거하고 '97년 상반기에는 양화대교의 구교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교통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 구조 체계의 확보 등은 시민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과거의 시장이 하던 일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시장은 부실한 다리 하나라도 세우면 그 시장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부실한 것을 점검·보수하다보니

노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 생색은 잘 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저희들이 하려고 한 일이 교통입니다. 교통문제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구상을 하게 된 것이 금년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통대책을 만들어서 13일에 '서울시 교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까지 서울시의 교통대책은 주로 지하철을 건설하고 도로를 놓는 일이 대중을 이루었습니다.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로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해도 도로가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서울시의 도로는 연평균 3.7%씩 증가했습니다. 제작년의 서울시 예산의 60% 이상이 도로에 쓰였습니다. 비정상적이죠. 도로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산의 60%가 도로에 쓰인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로 사정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뚫고 하는 일이 교통정책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1년에 3.7%씩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10년동안에 4.6배가 증가했습니다. 도로보다 훨씬 자동차가 빨리 증가함으로써 도로를 아무리 만들어도 교통문제는 나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자동차수가 300대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600.4km² 밖에 안되는 데 자동차는 210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가용 승용차의 주행량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많습니다. 동경보다는 약 2.5배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서 저희들은 지하철 개통,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건설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줄이지 않으면 서울시는 도저히 교통 때문에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겠다는 판단하에 결국 '자동차 사용 줄이기 운동' 이것이 저희들의 교통정책의

주요부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자가용승용차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교통수송분담율을 볼 때 자가용 승용차는 약 14%입니다. 지하철은 현재 30%, 택시가 약 10%, 나머지는 버스·마을버스 등입니다.

한편, 자가용 승용차의 도로 점유율은 65%입니다. 도로의 약 2/3는 자가용 승용차에 의해 점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 점유율에 비해 수송분담율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하는 수요감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실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 사실은 수단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면 시장에게 신호기를 만들 권한이 없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권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관한 권한, 교통표지판 설치 권한, 주행세 징수권한, 주차단속 권한 등이 시장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 이러한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권같은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울의 교통문제를 반드시 적어도 호전시켜 놓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뜻입니다.

혼잡 통행료, 이것이 본래 서울시에 의해서 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서울시에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의회의 통과를 거쳐 겨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대와 비판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없다 뿐이지 외국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것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면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방침을 세심한 준비를 거쳐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쓰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고, 서울시환경현장을 선포하고 녹색서울시위원회를 만들어 기초적인 행정들은 제대로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기대책, 상하수도 대책, 쓰레기대책, 공원녹지대책, 이와같은 것들은 모두 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꺼번에 나아질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향만큼은 확실하게 옮겨 잡혀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이것을 추진하느냐 얼마만큼 시민들이 협조해 주느냐, 이를테면 쓰레기 문제가 서울시청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공동체 의식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갖고 협조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쓰레기의 약 37%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시민들이 빨리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약 70%를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없습니다. 동경도 도시로 보면 후진 도시이지만, 여기도 쓰레기의 70%를 소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약 1%도 소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은 쓰레기 매립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약 15년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소가 없어집니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는 쓰레기의 소각, 재활용을 위한 확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쓰레기를 김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의 파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량은 8.5톤 트럭의 1600대분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들의 동참·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쓰레기 정책은 12월 12

일에 있을 선진국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세미나에서 저희가 확고하게 방향을 잡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주민들과 언론 그리고 당국이 협조를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큰 모순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시장이 되기 전에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구의 반인 여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요즘 경쟁력 10% 증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교육은 나름대로 여성에 대해서 큰 차별 없이 하고 있지만, 학교를 나와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교육은 시켜놓고 쓰지는 말자는 큰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훨씬 더 밝고 명랑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국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여성의 활약이 많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남성과 꼭 같은 일을 해야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이 본래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격이 꼼꼼하고, 술·담배 덜하고, 참을성 있고, 일관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직책, 예를 들면 회계, 통상, 섬의 등 여성에게 맡길 분야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능률면에서 볼 때 여성인력을 활용할 여지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인력을 중요시 안하는 풍조가 있는데 여성들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성취업기회의 확대, 공공부문에 있어서 고용의 증대, 채용 목표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공무원 응모하는 것을 보면 비록 직책은 낮지만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그 수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면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육원 시설을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 60억원을 명년까지 조기 달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공원녹지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복지·장애인·노인·여성에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1년이 채 못되는 일천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큰 도시의 행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큰 연못에 조그만 돌맹이 하나를 던져놓고 물이 얼마나 움직이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큰 돌맹이를 많이 던져넣어야 물이 다소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돌을 던지는 방향, 내용은 확실하고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교통관리실, 하수구를 포함한 일부 공무원들이 물의를 빚어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응답〉

▶ 이인숙(국제존타서울클럽회원) : 지하철이용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면 두 줄로 타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갈아타야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은 남겨두어서 급한 사람은 빨리 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마련해 주실 것をお願い합니다.

▶ 조시장 : 지하철이용시 에스컬레이터를 꼭 두 줄로 타서 급한 사람이 빨리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

는데, 이것이 일종의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꼭 횡대로 걸어갑니다. 이에 반해 일본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종대로 갑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써 붙여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기 지하철은 지하철공사, 2기 지하철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귀기울일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제도나 규칙을 만들어도 그것이 잘 시행돼서 효과를 보는 것은 시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경로석이 있어도 시민들이 경로석을 노약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그 경로석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제도의 마련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희자(서울시간호사회 회장) : 서울시정 7대 과제 중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시장 : 우선 노인에 대한 정책을 '97년부터 상당히 많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해결되면 남은 가장 큰 문제가 노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을 돕는 것은 젊은이를 돕고 가정주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복지정책에 42~3% 정도의 예산을 증가시키고 인원도 더 많이 배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등 복지정책에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윤수자(본회 조직관리위원) : 시장님께서 중앙일보가 주최한 ‘서울시민 삶의 질 고르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서울시의 비상식수 중 80%를 마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대장균과 중금속이 과다 검출돼서 소독을 철저히 하거나 정수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각 구청에 지시한

결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중앙일보 '96년 11월 12일자 보도입니다.

또한 제가 환경공부를 하다보니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수도의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20세 성년을 기준으로 마실수 있는 TDM이 20ppm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수도물은 75~90ppm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또 지금 보통 수도물을 홍보할 때 수도물을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물을 끓이는 이유는 염소라는 소독약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긴데, 전 세계적으로 볼때 수도물 소독제로 염소를 쓰고 있는 나라는 다섯나라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계속 염소로 수도물을 소독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지하수나 수도물중에 중금속이 과다검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치매가 오고 성인병이 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해나 물오염에서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에서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시를 북마전으로까지 비유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서울시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시장님은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여성신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차기 예비대통령후보 1위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내년 대선에 출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조시장: 솔직히 저는 80%는 마실 수 없다는 말은 안했을 겁니다. 혹 서울물이 위험하다고 말했을 지는 모르나 자극적인 얘기는 성격상 잘 안하는데 혹시 했다면 제가 실수로 말했나 봅니다.

저는 시장이 된 후로 확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도물 이외의 물은 절대 안마십니다. 물론 끓이지 않고 1년동안 마시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마십시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점 절대 안심하시고 수도물을 사용하십시오.

서울시의 부패구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정풍운동·자정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시민과 업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부패하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유리할처럼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가령, 업자들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일을 잘 봐달라고 뇌물을 주는 문제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야 일이 잘 된다는 의식을 가진 업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풍운동을 통해서 서울시정을 깨끗하게 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정치활동을 하리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활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고기효(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고 동회장이 530명이 있습니다. 일전에 최형우 전 내무부장관께서 동회장으로 여성 200명을 발령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내무부 소관이지만 서울시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동회장이 많이 나오면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처럼 두루두루 살펴서 서울의 환경문제해결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명선의 동회장을 언제쯤 발령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시장: 서울시 행정권이 시장에게만 있다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권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는 구를 지휘할 지휘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시장이 구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한순(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부회장): 서울시정 7대 과제의 목표가 인간중심·생활중심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능력과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듯이 위기에 여성들을 기용하시면 효율적인 성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부문에 전문적 지식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들을 부시장으로 정책적으로 기용해서서 그 능력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경쟁력을 20~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해서 이제는 규제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지도적 행정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시장 중 한 명을 여성으로 임명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 조시장: 저도 그 의견에 완전히 동감하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정자(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이사): 시장님께서 금년에 초등학교 급식을 완전 실시할 계획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라면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급식의 질 향상과 함께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조시장: 초등학교 급식문제가 '97년 쯤에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되는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희(서울시의원, 본회 근로여성위원): 지난 6·27 선거에서 시장님께서 여성공약으로 공무원채용시 남성 군경력을 호봉에서만 인정하도록 하여 임용 과정에서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

론 이 문제는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임용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떻게 지키실지 답변해주시고.

▶ 조시장: 제가 이 말씀을 했다가보다는 선거공약집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채용시 군복무를 점수에 가산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정부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성에 대해 가산하는 방향으로 해서 형평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연심(본회 부회장): 시내에 다니면서 택시를 타면 무조건 합승을 합니다. 또한 짐이 많으면 태워주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합승을 반대하지만 급하면 합승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합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제도화든지, 합승을 할때 손님의 승낙을 받아서 한다든지, 혼자 탈때는 요금을 비싸게 한다든지, 합승을 할 때는 좀 싸진다는지 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또한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걷기운동 내지 자전거운동을 벌여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시장**: 택시의 합승판행은 어떤 제도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택시운전기사의 성향과 수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택시의 고급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택시를 모범 택시로 개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 운동과 걷기운동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정자(중앙부인회 상임이사)**: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성의 능력개발사업은 이제까지 주로 부녀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내년에도 복지관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현재 교육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는 무관한 취미강좌나 교양강좌가 대부분이고 기술교육도 부업수준의 단순교육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관의 교육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여성단체들이 해왔던 여러가지 기능교육이나 취미, 교양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중에는 여성기능교육에 조예가 깊고 연고가 있는 여성단체도 더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여성단체에 예산을 할애해서 여성들의 전문 기능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조시장**: 저희들이 부녀복지관의 이름을 여성발전센터로 개칭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는 3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중랑구에 하나 더 세우는 등 자꾸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만 교육내용이 여성들을 위한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니라 급식조리, 자수, 표구, 도매 등 실지로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되고 있어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들은 여성의 취업과 기술을 위해 4개월간 교육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최승혜(IMC 대표이사)**: 여성고학력인력을 비롯한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자문회를 마련하시면 여성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에 택시도 다닐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학교에 다니는데, 중·고등학교에도 급식을 실시해서 여성인력의 활용과 함께 우리학생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시장**: 여성자문위원회로 저희들은 서울여성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개 분과로 나뉘어져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98년까지 계속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급식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세원(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저는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을 때마다 죄의식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쓰레기 봉투 하나에 쓰레기를 담아 많은 비닐봉투가 버려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규격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슈퍼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받은 비닐봉투가 고스란히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비닐봉투는 잘 썩지도 않고 썩는데도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는데, 미국처럼 우리도 시장이나 상점에서 종이봉투를 사용한다면 버려지는 비닐봉투가 훨씬 줄어 환경을 덜 오염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조시장**: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데, 싸고 손쉬운게 비닐봉투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명령으로 한꺼번에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노력을 하면 보다 개선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실로 하여금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은방희(한국여성문화생활회)**: 서울시 내년 예산을 보면 공원조성에 관한 특별한 계획중에 8개소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대해서 토지보상 예산액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대상자 중에는 공원조성 장기미집행의 결과로 거의 일평생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권적으로 실시하여 토지수용을 당한 개인에게 막대한 재산피해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여 토지수용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8개소 장기미집행공원지역에 묶인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용분의 보상을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조시장**: 공원 조성에 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물 문제는 서울시의 엄청난 고민거리입니다. 공원이 지정 당시와는 도시의 규모와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지정해 놓은 곳이 이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도시가 자꾸 팽창을 해왔기 때문에 50년 전의 도시계획이 지금은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공무원, 시의회, 민간이 현지조사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밖에 없고, 50년 묵은 일이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박정하(구정고 3학년 여학생학부모)**: 저희는 내신 분리산정문제가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투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5일자로 내신산정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교장의 특권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졸 여성이 취업에 불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이들은 대졸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놓고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내신분리산정은 저희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것입니다. 구정고 이과반 남학생은 273명, 여학생은 24명입니다. 사실 통합산정을 하면 여학생들은 24명 모두 50위안에 다 드는데, 내신분리산정을 하면 여학생 24등은 남학생 273등과 같은 내신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비록 올해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다음 해부터는 이런 제도로 인해 저희 아이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자들이 때문에 당하는 차별을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조시장**: 내신통합산정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서울시 산하에 있어 서울시의 예산을 사용하나 실질적으로는 교육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제가 유인종교육감에게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학교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연숙(본회 회장)**: 우리가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 발견한 것은 시장님께는 여의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님께 힘을 실어드려서 좋은 뜻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아침 간담회를 끝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본회가 개최한 세미나 내용입니다.

주제강연

주말 가족시간대 TV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

김학천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

주말의 가족시간대는 낭비적인 중복편성과 내용에 관한 지속적인 불만이 노출된 방송의 영역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얻은 바가 너무 적은 중첩된 오락프로그램은 어떤 방송이든 초기의 약간의 시청률 손해를 감수하고 내용을 조절하고, 중복시간을 피하고, 화려하게 들뜬 색채를 조금은 단출하고 우아하게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I. 배경-원인으로서의 과제들

주말 가족시간대..., 방송에 있어 이와 같은 시간적 위치는 방송의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모두 지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수용자의 접근 조건이 가장 평이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족시간대'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는 세태이긴 하다. 생활공간 자체가 변하거나 생활시간이 뒤바뀐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에 접하는 성향은 급격히 개인화하고 취향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시간대의 강조 경향은 세대나 연령층을 어느 만큼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배치되거나 시간에 따라 내용 역시 조절되는 일반적 규범을 전제로 해서 그 뜻이 선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시청그룹인 가족이 많이 모인다는 뜻도 있지만 특별한 계층에 대한 고려여부가 반영된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평범한 '가족시간대'의 해석이 흔들리거나 뒤바뀌는 이미 오래되었다. 적어도 각 세대가 모두 일정부분의 만족할 수 있는 편성에 대한 견해 표명이 아니라 대체로 10대 위주의 프로그램 집중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라디오의 경우는 오랜동안 심야에 혼자 듣는 방식이 청소년에게 접근해 왔고 텔레비전에 있어서는 가족시간대 외의 편성에 있어서도 미디어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사회적 염려가 수반되는 프로그램이 늘 지적되었다.

일주일 중 가장 편하게 많이 보는 시간의 내용과 편성에 대한 경향은 사실상 조금이라도 많은 수용자에 접근하려는 방송사의 의욕 때문이었고, 그 시간대에는 상당히 규범을 배려한다 하더라도 자기 회사의 본질적 기여는 더할 나위없이 취약해진다는 비판적 감시가 지속적으로 편성중에서 비판받는 부분을 만들어 내었다. 다만 이와 같은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지나친 일탈로부터는 견제해 주는 것이 오늘의 미디어와 주 소비자의 자세일 것이다.

요컨대 주말의 가족시간대는 낭비적인 중복편성과 내용에 관한 지속적인 불만이 노출된 방송의 영역이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싫다는 데도 거의 비슷한 상품을 여러 회사에서 떠맡기는 모습이 된 그런 시간대였다. 거듭된 비판에도 거듭되는 형태에는 방송쪽에서 볼 때는 쉽사리 변경을 하기 어려운 요인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수용자에 대한 다양성, 선택기능의 약화와 낭비적 경쟁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용의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성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이유는 물론 간단하다. 외형적 이유는 오로지 시청률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막무가내의 시청률 경쟁을 허용하는 배경은 근래에 두터워지기 산업화와 그에 따른 시장경쟁논리를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장 경쟁논리는 각종 방송정책기구들에 의해 강조되고 그 결과로 급작스런 다채널의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송의 품질과 판도를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시청률 경쟁은 뉴미디어에 의한 시장경쟁논리 이전부터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청률 경쟁의 격화는 단위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이 어느 정도는 추구해야 할 대상성을 모호하게 했을 뿐 아니라 편성시간대의 개념조차 흐리게 만들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편성개념이 '가족시간대'일 것이다.

요컨대 시청률 싸움은 방송현장의 복잡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목적을 알 수 없는 싸움이였다. 숫자로 나타난 약간의 차이,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거나 메꾸기 위하여 프로그램이나 방송사가 지불해야 하는 댓가가 터무니없이 큰 것임에도 이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변형, 또는 수준의 절하도 마다하지 않았다.

방송사는 수용자의 기호와 호응을 기대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강변할 때가 많았지만 실제 수용자 계층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로 제기한 휴일 가족시간대의 연예·오락물만 해도 그 성향은 절대적으로 10대를 겨냥한 특색을 띠지만 결코 1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노출되는 상태는 아닌 것이다. 방송프로그램발전연구위원회가 '94년에 집중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뉴스와 드라마는 연령상승에 따라 현격한 상승을 보이지만 연예 오락은 오히려 완만한 변화 추세인 것이다. 어쩌면 이와 같이 변화가 적은 시청행태가 더욱 경쟁의 열기를 부추겼을 수도 있다.

여기에 이제는 다채널의 긴박성이 가미된 것이다. 결국 시청률은 현재 그 자체로서 상품이 되었다.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파악하여 방송사에 전매하는 상품이 되었다. 외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광고료를 지불하는 자료로써 활용되지만 방송의 단위가 원래부터 구획된 영역내에서 활동하는 체계인만큼 시청률이 파악된다 하더라도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이를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시청률에 지나치게 얽매어서 광범한 문화사업에 부질없는 족쇄를 채운 꼴이 되었다. 방송은 단순 숫자로 표시되는 시청률의 차이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무도 안보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피해까지를 과장해서 예상하곤 했다. 다행히 다채널 시대란 구호는 이와 같이 부적절한 경쟁개념을 오도하는 구실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제는 조금이라도 높은 시청률의 가능성만 보이면 중복된 편성과 내용으로 대결을 일삼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시청자들조차도 그 엄청난 낭비성과 다량성의 저해에 대해서 오히려 무덤덤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방송을 윤락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하루, 또는 일주간의 참예한 자극을 찾는 수단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소모적인 경쟁의 결과를 방송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간간이 시청률 경쟁의 질곡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아직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드라마, 연예 오락의 끈질긴 중복편성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내용의 가치측정을 시도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특히 연예·오락 부문은 이 조사방향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형편이다. 중복발고도 내용의 빈약성이 여실히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문제로서 유념해야 할 것은 방송의 속성에 대한 해석이다. 방송의 상업화, 산업화를 주장하는 방송사측에서는 이제 TV가 어느 분야보다도 단순 오락 기능으로서 대중에게 접근한다는 신념을 내세운다. 가끔씩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수

용자의 향락과 규범의 이중성 중에서 전자인 향락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소홀할 때는 TV로서는 회복능의 타격을 입는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은 법으로 규정해 놓은 편성의 규범조차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물론 서류로 구비되는 법적 한계는 기묘하게 맞추어 지켜가고 있다지만 전문기관인 방송위원회가 필요한 시기에 정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주로 교양 프로그램분야에서 많게는 10%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교양부문에서 모자라는 분량은 자연적으로 오락으로 옮겨가고, 오락은 결과적으로 법으로 정한 여분을 모두 흡수하고도 넘치게 되어 결국 위법에 이르는 분량이 된다. 전체 프로그램의 50%를 넘으면 위법이고, 전문기관이 필요시에 분석할 때는 초과량이 발견되는 것이다. 최근에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역시 방송사에 알리는 평가지수(AI)에 따르면 교양과 교육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70점대를 점하고 연예 오락 계열은 거의 모두 60점대를 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프로그램의 흥미와 유익성을 함께 평가하는 이 방법은 단순한 시청률조사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한 방식으로 인식되긴 했으나 그것 역시 시청자가 평가할 대상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비슷한 평가 결과밖엔 나오지 못하는 약점을 보이게 된다. 특색과 다양성이 적다는 총체적인 결과가 고작인 것이다.

연예·오락 시간대를 논의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큰 배경은 수용자와 프로그램, 또는 방송 제작자 사이의 문화적 인식을 들 수 있다. 가족시간대를 점하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면 그 구성형식과 색채가 놀라울 만큼 같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여기에서 색채라 함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분위기를 모두 일컫는다. 출연자의 구성에서부터 의상 등 외적인 특색이 특히 동질적이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10대-, 그것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초급학년 정도의 유행 분위기로 그대로 이

어져 있다. 연예·오락은 주로 코미디·음악쇼·퀴즈 등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 또는 고발적 시사에서처럼 끔찍한 폭력이 여과없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도색적인 선정성도 비교의 관점에서는 정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의 형언할 수 없이 괴박한 외모는 방송 프로그램을 사진찍은 듯이 달았다.

아름답거나 개성을 보이는 경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혐오감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바지와 머리모양 등이 그러하다. 힙합이라고 불리우는 그 큰 바지는 활동성, 멋, 위생관계 등 어느 것에도 적합한 설명을 부여하기 어렵다. 눈에 띄는 괴박한 모습 꾸미기에 무조건 보수적인 비판을 가할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소년 계층에게 전혀 요량없이 스미는, 설명이 어려운 감각과 그토록 비슷하게 표출되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화 감각의 과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일본 등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괴박한, 첨단적인 모습을 청소년에게 꾸미도록 하는 나라지만 대도시의 한구석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과시되는 현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거의 전국의 방방곡곡이 그러하다. 일정한 수의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나 빠진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어른도 못입을 볼결한 큰바지를 입고 다닌다. TV의 음악쇼 무대는 거의 예외 없이 이모습으로 가득차곤 한다.

또한 이런 모습은 학교, 가정, 사회와 적절하게 어울리는 청소년의 모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대문화에 열광하는 청소년이 모두 일탈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점차 이해하는 도중이지만 맹목적인 시각문화가 청소년을 파고드는 양상은 우리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과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괴박한 유행의 모습에서 읽게 된다.

지금의 주말의 가정시간대는 일반 시청자가 이토록 무덤덤한 가운데 청소년과 제작자만 보조를 맞추어 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상 그 괴박한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청소년이 더 많

은데도 방송은 적절한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기색이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의 문화감각이 급속하게 변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색채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려와 지적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방송현장에서의 방어적인 인식은 방송을 통한 우리의 문화진단을 매우 편파적이고 나아가서는 또하나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데까지 이르는 한다.

신문이 지적하는 이 문화적 취약점은 광고 경쟁에서 비롯한 편견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이른바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이의는 고식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에서 수용자 이중성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전부한 비판이라는 반응을 얻기도 한다.

그 비판이 날카로우수록 이는 보편성이 적은 엘리트주의나 교양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현실이 배제된 원칙론만으로 가득차서 인간 심성의 밑바닥을 형성하는 쾌락원리를 전혀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인쇄매체가 저지르는 저질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방송의 약점만을 과대비판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특히 모니터단체의 교양주의는 계몽주의적 자세로 일관되어 반오락적 담화가 주류를 이루고 도덕적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보호주의 양상을 띠고 반발하는 경우도 보아왔다. 이런 점이 분명한 문화현상에 대한 우리들 전체의 인식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양상일 것이다. 불특정다수를 겨냥하는 대중매체에 있어 최소한의 규범적 인식의 보유는 전체주의적인 획일성이나 강압에 의한 강제된 윤리화는 다를 것임에도 우리가 지닌 문화인식은 이처럼 나뉘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오락프로그램의 TV 출연자와 똑같은 괴박한 모습을 한 청소년이 한 번쯤 그해보는 일과성 일탈이 아닐 것이란 심증이 드는데도 이와 같은 인식의 거리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II. 실태와 갈등

오락프로그램-, 특히 주말의 황금시간대를 점유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진부하다는 평을 들을 만큼 그것은 되풀이되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힐난과 재미가 있으니 보는 것이고 본다는 것이 곧 의미라는 은연중의 주장이 맞서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의 문화환경으로서는 아무리 진부해도 필요하다는 인식은 떨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앞장에서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한 조건들이 편성과 내용에서 모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좀더 실질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방송의 제작자와 학자 그룹이 함께 진단하고 서술한 연구보고서의 일부와 이 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모니터회의 체계적인 지적과 필자가 역시 11월에 다시 확인한 편성평태 등을 인용해 보겠다.

1) 전문가 집단의 관찰

이 관찰과 분석은 위에 예시한 방송프로그램발전위원회의 관찰이다. 여기에는 2명의 전문연구자와 3명의 방송현장 제작권위자가 참가하였다.

우선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편성중에 그 비중이 아주 적은 때는 11% 정도였다가 많은 때는 17%를 넘는 때도 있었다. 이 비중은 유럽의 민영방송과 미국의 3대 네트워크의 평균비율과 비슷한 분량이 된다. 공영방송의 경우는 그 절반의 수준, 즉 10%에 못미치는 비율을 유지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편성량에 있어 전형적인 상업체제의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청률은 오히려 10대에서부터 성인층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된 양상을 보인다. 조사결과로만 보기에 성인의 어린이화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 풀이다.

프로그램의 형태는 코미디, 퀴즈, 게임쇼, 음악쇼,

심야토크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심야 토크쇼를 빼면 주말의 가족시간대를 점하는 프로그램들인 것이다. 이미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장르별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코미디

- 부자연스런 웃음 유발과 폭력성 문제
- 주제 의식이 약하고 소재가 제한되는 점
- 형식 개발의 과제

원래 코미디의 소재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방송환경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적절한 풍자와 세련된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직업을 웃음거리로 취급한다든가 인체의 결함을 소재로 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여기에 어거지로 남녀역할을 바꾼다거나 유행을 노리고 만드는 조어들, 사투리 등이 억지 웃음을 만드는 주소재로 인정받아왔다. 짙은층을 겨냥한 패러디와 가족계층을 두루 겨냥하는 시트콤이 새 분야로 열의있게 개발을 시도했으나 내용의 골격이 뚜렷하지 못하고 어느 만큼이든 감동주는 요소가 전무하기 때문에 유행을 만드는 외모에 치중한 경향을 보였다. 유머의 원래 뜻이 습기라든가 눈물이라는 점에서 인간 심성의 깊은 곳에 접근하는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이다.

나) 게임·퀴즈쇼

- 형식의 제한성
- 연예인 위주의 구성
- 간접광고로의 일탈

전형적인 퀴즈프로그램이란 그 형식이 무한정으로 다양할 수는 없으나 내용과 형식이 창의성을 개발하고 추리력, 기억력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순발력이나 행운에 의해 고가의 상품을 받고 분위기만 즐기는 것으로서는 다소 재미있더라도 인기가 오래가기 어려울 뿐 아

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신뢰성에도 흠이 가게 된다. 지나친 승부욕에 사로잡히는 긴장도 프로그램의 수명을 짧게하는 요인이 된다.

프로그램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약점도 과제로 지목받는다. 그곳이 직업분야라 할 수 없이 출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예인의 활용문제이다. '94년의 퀴즈 프로그램의 출연자 비율은 연예인과 연예인의 직업이 대략 6:1 정도였다. 여타의 직업인은 구색을 맞추는 정도의 기능을 한 것이다.

이들 연예인들은 필연적으로 타사의 방송이나 다른 프로그램에도 겹치기 출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여건은 내용도 중요시해야 할 프로그램 구성을 외적인 장식만으로 그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기왕에 확보한 내용도 분위기 위주로 가볍게만 처리된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적절한 전문가나 일반인을 프로그램 분위기에 맞추어 동원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퀴즈프로그램의 과도한 상품의 문제는 오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형적 불공정 방송, 또는 불공정 거래로까지 지적받아 왔다. 더구나 퀴즈를 통해서 얻은 요행에 의한 상품은 보는 사람 모두에게 사행심까지 유발시키는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 받았다. 그러나 간접 광고 그 자체는 퀴즈프로그램의 상품보다 드라마나 보도 프로그램중에 의식적으로 배치한 장면으로 돌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들은 모두 새롭게 대부한 방송의 취약점이며 극복을 요하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 간접광고는 오락프로그램을 통하여 유행의류가 적극성을 보인 일이 있고 그 여파는 청소년의 패션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설사 구체적인 상품명이 암시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장식구와 화면에 포함되는 서비스업 등은 간접적인 혜택을 입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수용자에게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기 보다는 방송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평가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간접 광고효과는 청소년 계층에게 주는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적은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음악쇼

- 똑같은 형식과 낭비적 구성의 과제

점차 어려워지는 출연자 추세와 이에 보조를 맞추어 화려해지는 무대를 지적할 수 있다. 무대의 화려함과 출연자의 유행선도를 위한 분위기 구성도 어느 한 세대에게만 호소력을 갖고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주는 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이 부문에서 우리는 외국의 어느 방송에 비해서도 소모적인 프로그램 제작양상을 보이고 있다. 형식전체가 방송사에 따른 차별성이 없음을 말할 것도 없고 연예인도 인기여 따라 거의 중복되는 형식이다. 시기에 따라 다소 변화하기는 하지만 음악의 특색도 그때의 유행, 인기에만 기울어 여러형태의 '음악성'을 보여주는 측면은 오히려 인색하다. 전체적인 목표는 전혀 이치를 알 수 없는 청소년의 열광에만 두게 되어 일찍부터 매스·미디어의 교과서적인 역기능만을 맛보게 하는 추세인 것이다. 일부 드라마 등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현실도피, 백일몽 등의 역기능이 그것이다. 시각적 연출효과에만 주력한 나머지 음악의 의미가 창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율동위주의 프로그램의 오락분야의 특성을 모두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현란하고 빠른 율동속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실제 음악성있는 음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서구 방송계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는 립싱크 방식이 아직도 많이 활용된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악적인 속임수일 수 있으며 분위기만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의 전락이라고도 여기는 것이다.

방송사에 따라서는 출연자의 패션을 일부 통제하는 사례도 있으나 청소년의 환호와 프로그램 전체의 성격이 비슷한 경향이라 보면 어려운 일부통

제가 효과를 거두지는 의문이다.

라) 심야토크쇼

- 내용의 열악함
- 연예계 중심의 출연진 구성
- 진행자에 대한 신뢰감 부족

심야토크쇼는 가족시간대에 배치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렴한 제작비용에 비해 오락적 구비조건이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한 분야이다. 처음에는 보는 사람에게도 큰부담을 주지 않고 삶의 특이한 단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그 쉽다는 특성은 곧 내용체계를 신변잡담 위주로 끌어갈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출연진이 다른 오락물처럼 연예인 일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락적 요소의 지나친 강조는 MC까지도 전형적인 연예인으로 배치함으로써 무엇인가 내용도 포함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아예 버리도록 했다.

여기에서 나누는 가벼운 이야기는 자주 선정적인 소재로 기울어져 여타 오락물에 대한 비판과 염려를 모두 포함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2) 시청자 단체의 분석 및 문제제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최근의 프로그램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이번호 '여성' p. 64~68 참고)

III. 몇가지 방안

전문가 그룹과 모니터 그룹이 관찰,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이미 수없이 반복된 개선 방안을 열거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다.

- 채널별 연예오락프로그램의 차별화, 특성화가 필요하다.
- 시청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연예·오락프로그램의 시간대별, 매체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 형식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소재 전달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 음악 장르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
- 무조건 모방하는 행태를 벗어나고 시청자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오락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제작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 작가양성 제도의 개선
- MC발굴 및 분업화
- 시청률 정책의 재고 및 프로듀서 선택제
- 외주제작의 활성화

전문가들이 (제작자 포함) 지적한 위의 사항은 오락프로그램, 특히 오락성이 가장 두드러진 가족 시간대의 오락물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수용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대책으로 일찍부터 논의된 사항들이다. 그러나 이들 사항은 추진되거나 개선을 위해 거듭해서 논의되는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왜 연구되고 공인된 개선안이 시행될 수 없는가 하는 조건들을 다시 시작부터 검토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종합편성을 하는 4개의 일반채널 중에서 핵심편성시간이 3개나 꼭 같이 겹치고 있다면 우선 특성화란 이름으로 그 낭비적 중복을 피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러나 채널들은 요지부동인 것이다. 이것은 잘못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인 양 번지고 있는 상업주의-과도한 시장경쟁논리가 원인이 된다. 방송에 관한 시장논리는 좁은 국내의 안방만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무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그 구호는 허세일 뿐이다. 비록 좁지만 우리의 안방에서 의심받는 품질로는 세계시장은 커녕 이미 확보한 한정된 소비자조차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시장논리는 앞으로 시작될 20여개의 위성채널을 포함해서 70개

정도의 채널이 모두 운택한 경영을 하면서 세계시장으로 약진을 거듭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휘두르고 있지만 불과 4~5개의 채널이 국내에서 수준에 이르기 어려운 상품을 가지고 서로 발목을 쥐고 있는 상황으로는 그 청사진의 장래는 알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방송이 시작만하면 졸부가 된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기왕에 출발한 후발 미디어들이 그런 현실을 이미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있지만 인기의 경쟁을 통과만 하면 예상외의 호조를 맞는다든가 다른 채널은 다 어려워져도 혼자서는 든든한 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결국 프로그램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프로그램의 품질을 불모로 해서 얻은 수익이란 정당한 수익이기 어렵거니와 세계화의 발판이 되기는 더욱 힘들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업주의를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방송사의 책임자들이 방송을 문화적으로 가꿀 수 있는 자율적 협의기구를 만들고 가동해야 한다.

이 협의회에서는 방송전체가 지켜주어야 할 수용자층의 마지막 규범-이것은 어느 나라나 헌법의 맞먹는 무게로 강조하거나-즉, 청소년 보호와 가정과 가족보호의 경계선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분방하고 역동적인 청소년 계층의 오락물이 전국적으로 예외없이 바람직하게 유행을 선도한다고 인정되면 역시 자율협의회의 토론을 통해 이를 피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재규명되고 제한을 받을 것은 막무가내의 상업주의나 실체가 모호한 시장 경쟁논리가 될 것이다. 입만 열면 외치는 WTO나 다매체, 다채널은 지금으로서는 가난한 청소년의 바지통을 우습도록 넓혀 놓은 것 밖엔 없다.

두번째 제의도 역시 서론에 의지하지만 진부한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시청률 경쟁의 순화가 그것이다. 시청자는 프로그램을 보는 당사자이므로 이들의 머릿수를 세어 보았다는 주장에는 사실상 할 말이 많지 않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소비자 숫자가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대목에서는 항의가 정당해진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시청율이 없거나 낮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방송사의 항변에 땀이 글썽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제한된 시청자수가 적절하게 나누어진 상태가 프로그램 전부에 족쇄를 채우는 현상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에 있어 편성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할 가치이지만 공론화한 평가에 대해서 독선적인 편성이 유지된다면 여기에는 시청자의 힘-소비자운동차원의 힘이랄까 보아야 할 것이다. 유감이지만 거듭되는 시청률 싸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처방이 생각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저질의 오락물, 낭비적인 오락물 뿐 아니라 이른바 볼륨드라마라고 불리는 자극제와 시청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불공정보도, 권위주의 보도 따위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인식의 과제, 또는 문화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방송은 유행하는 세대를 프로그램을 통해 전했을 뿐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전달이 인기가 있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채널과 같은 시간에 내보내는 게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역시 시민단체가 여론을 환기시키고 번거롭지만 처음부터 다시 토론을 시작하는 수 밖에 없다.

문화감각이란 주관적인 성격을 지녀서 법이나 규정 등의 제도적 통제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이 규제를 얹는 전형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

지만 폭력이나 선정 등 경계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세세한대까지 규제를 가하는 규정을 내놓았다가 법원이 이를 제지하고 결국은 의회가 끼어들어 방안을 제시하는 예를 남기고 있다. 규정으로 통제하지 말고 방송시간으로 규제하자는 방안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새삼스레 외적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프로그램의 등급제나 방송시간, 즉 편성시간의 제약들은 방송사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 문화적 감각으로는 매우 불안하지만 꼭 방송을 해야 한다면 그런식의 통제가 오히려 상업주의에 부합한다고 여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는 서구처럼 편성시간의 조절만으로 해결을 피하기도 어렵다. 청소년의 학습관행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음 뿐 아니라 부모가 저녁시간을 통제하는 기능도 서양에 비해 지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나 문화적 색채가 가장 강하게 처리되는 오락물의 향상은 타율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가 노출하는 상황적인 갈등요소를 주관적이나마 평가하고 그에 상응한 향락문화의 수준을 정하는 일은 제작자의 주관적 과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가 노출하는 갈등상황이 이들 문화창조자들을 조종하는 키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그것은 사회를 당혹케하는 온갖 청소년 문제, 성인계층의 삶의 가치 몰락, 여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 모두의 막가는 향락주의 등이 될 것이다. 텔레비전은 안보면 되는 것이라는 명제로 위의 갈등 상황에서 혼자서 책임의 발을 뺄수는 없는 것이다.

답답한 결론이지만 얻는 바가 너무 적은 중첩된 오락프로그램은 어떤 방송이든 초기의 약간의 시청률 손해를 감수하고 내용을 조절하고, 중복 시간을 피하고, 화려하게 들뜬 색채를 조금은 단출하고 우아하게 바꾸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지정토론

방송의 주인은 바로 시청자

“오늘의 방송의 문제점은 방송사가 소비자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지 않는 방송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못났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머슴을 제대로 부릴 줄 알면 머슴이 막가지 않는데 우리는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사회 : 이연숙

토론자 : 광명세 KBS 2TV 주간

김경애 동덕여대 여성학 교수

김희천 매스컴 모니터 부회장

윤창광 방송위원회 연예 오락 심의위원

전규찬 한국 방송 개발원 책임연구원

▶ 이연숙 : TV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쉽게 생각했는데 김학천 교수님 말씀을 듣고나니 상당히 비판적이 되네요. 그런데 한가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시청률 경쟁을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상업방송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지만 우리나라처럼 광고가 다 붙어 있고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수입이 있는 공중과 방송에서 좀 더 나아지는 시청률 경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천 교수 : 그 문제는 방송 경영자들도 소상하게 털어 놓지는 않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방송광고공사에서 권하는 2조 원이 넘는 돈과 KBS가 걸어들이는 3~4천억의 시

청료를 더해서 대개 2조 5천억원 정도를 어차피 네트워크사를 가진 세 회사가 나누어서 쓰는 형편입니다. 거기서 세 방송사중 어느 하나가 재미는 조금 덜하지만 유익하고 정잡고 괜찮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광고가 붙지 않아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저 시골의 촌부에서부터 방송국 사장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존재를 걸어놓은 시청률 싸움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에 대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또 방송국의 책임자가 두군데 다 목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는 정부고 하나는 노조라든지 직원 계층의 힘입니다. 그곳에 턱없이 잘 보이려는 이유로, 문화적인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합니다. 달리는 저회같은 전문가들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방송 그것만으로 밥을 먹는 대단한 전문가들이 어찌 자고 불특정 다수 오천만을 상대로 방송을 해 놓고 19% 시청률은 21%에 대해서 졌다는 형편없는 판정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에 졌는가, 왜 졌는가, 뭐가 졌는가. 각 프로그램을 본 그룹이나 시간이 다 다른데 단 1%라도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은



방송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고쳐져야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인식 중의 하나인 이런 인식이 고쳐지는 게기가 되어야 하며, 실제로 돈을 조금 덜 버는 문제도 방송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진 않고, 그건 회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도 없이 물었지만 그 문제로 해에는 방송사의 담당자들도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이연숙 :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쭙 본 이유는 지금 방송이 전국민으로부터 오만원씩 받아서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해서입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주인은 시청자예요. 지금 KBS만 공영방송이고 나머지 상업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업방송이 쓰고 있는 모든 광고 수익은 결국 우리들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상업방송도 결국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방송의 문제점은 방송사가 소비자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지 않는 방송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못났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머슴을 제대로 부릴 줄 알면 머슴이 막가지 않는데 우리는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시청자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내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얘기가 시작되어야 할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쟁쟁한 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학천 교수님도 말씀은 해법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시지만 제일 일선에 나서서 이런 일을 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해법이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토론해주실 다섯분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분 한분씩 토론을 들겠습니다. KBS TV 2국 주간을 하시는 광명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열린 음악회'가 상을 받도록, 시작을 하고 이끄신 분입니다. KBS를 대표해서라기보다 방송계 전체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덕여대 여성학 교수이신 김경애 선생님입니다. 동덕여대가 이번에 여성학 연구소를 만들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여하시기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분은 김희천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방송을 즐기지 못하고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아주 피곤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위원회의 연예·오락 심의 위원으로 계시는 윤청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윤청광 선생님은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모든 분들이 무서워하는 분입니다. 아주 칼날같고 송곳같아서 눈치 안보고 직격탄을 쏘시는 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국방송 개발원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전규찬 선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화가 나신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죠.

▶ 김경애 교수: 저는 김학천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어쩔 이렇게 속상하고 그냥 막 욕이 나갈 것 같이 써야 할 얘기를 이렇게 절절하게 잘 쓰셨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논문을 잘 읽었구요. 저의 논문 쓰는 방법에도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더더욱 열심히 지난 몇 주간의 주말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방송국에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답답해집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모니터를 시작하니-제가 80년대 초반에도 관여했던 적이 있는데-10여년이 되었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시청자 운동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하게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논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엘리트주의, 교양주의, 계몽주의라면서 한마디로 방송국에서 일 축해 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도 또 다음 주말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더욱 배반감 때문에 분할 것 같아서 시작전부터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강조하거나 덧붙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성학자로서도 말할 부분이 있겠지만, 10대의 두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제가 TV를 같이 보면서 아이들에게 놀상 물어보고 또 재제도 가하고 또한 싸우기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했던 먼저 입장도 병행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부모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89년 영국유학을 가서 '94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문화적인 쇼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년동안 상당히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영국은 거의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한국은 5년만에 왔더니 너무 변화돼 있어서 제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적인 쇼크를 받은 것중에 텔레비전도 큰 부분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가기 전에는 한국 TV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가서도 TV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 쪽으로 생각하고 '안 봐야지,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대만친구가 '영국에서는 TV를 많이 보라'고 하면서 '영국에서는 다른 거 안하고 TV만 보고가도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문방송학과 학부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BBC의 다큐멘터리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BBC의 다큐멘터리, 뉴스 프로그램, 그리고 BBC뿐만 아니라 아이 TV라고 기억하는데 채널 4같은 상업방송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TV만 보고 있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생생하게 보입니다. 뉴스 프로그램도 정치기사해설을, 제가 있을 때 은퇴를 했는데, 70세가 넘은 노인 대 기자가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50대의 여자 기자가-천안문 사건 당시에 총알이 날아가는 현장에서 보도한 그런 분들이, 세계 뉴스의 쟁점이 되는 곳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영국 TV에 빠져서 시간이 나는데로 TV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세계적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에인'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이런 비슷한 모임을 가졌을 때 그때 PD가 얘기하기를 'TV는 오락매체'라고 규정하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TV 방송에서 TV를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는지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얻는 정보가 있긴 있습니다. 요즘 소위 뜨는 인기 연예인이 누군지 알려면 며칠만 TV를 보면 같은 시간대에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중복 출연하기 때문에 그 정보만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TV방송이 오락 매체로 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생각다못해서 아이들과 7시반 이후에 TV를 전혀 안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까 개선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0여년전 방송 모니터 활동을 해보았지만 이렇게 점점 상황이 나빠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7시반 이전에도 대체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오면 TV에 붙어 늘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아예 TV를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TV를 아예 창고에 넣었더니 우리 아들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이 한 반에서 전부 다 유행가를 부를 때 저만 몰랐던 경험이 있어요. 드라마만 드라마는 전부 다 보고와서 얘기할 때도 전 드라마를 한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깰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하는 이 프로그램까지 못본다면 전 친구들 사이에서 영원히 소외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토요일, 일요일만 보자."하고 주말에는 다시 TV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여덟시 이전에만 보고 특별히 8시에 하는 일요일 스페셜을 봅니다. 일요일 스페셜이란 프로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맨날 없어져서 제가 좋아한다고 하면 또 없어질 것 같아서 초조합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과 같이 봤으면 하는 프로는 선정해서 봅니다. 얼마전에 어떤 섬의 분쟁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영국에 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참

많이 봤지!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주말 프로그램하는 시간이 저녁먹는 시간 아닙니까? 밥먹는 시간에 TV를 식탁 쪽으로 돌려놓고 기어이 보면서 밥을 먹겠다고 하니깐 안 볼 수도 없어서 저도 같이 보게 됩니다. 또한 토요일 그시간쯤되면 그냥 멍청하게 있고 싶기 때문에 봅니다. 또 하나 열심히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TV프로그램의 남녀 진행자의 역할'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하면서 봅니다. 진행자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멘트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보게 되지요.

오늘 KBS에서도 나오시고 하셔서 긍정적인 면에서도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주말에 '슈퍼선데이'라는 프로그램과 거기 나오는 이영자라는 코미디언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많은 여성상중에 코미디언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코미디언만이 유일하게 외모로 등장하지 않는 여성이기 때문이죠. 실력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코미디언입니다. TV가 젊고 예쁘지 않으면 여자는 써주질 않아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말이지요. 그런데 연예계에서 쓰는 경우가 유일하게 코미디언입니다. 저는 코미디언을 보면 그 여성코미디언들이 다 실력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기가 좋고 예뻐하게 됩니다. 웃겨서 좋기도 하구요.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영자라는 코미디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볼 때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서 남녀 진행자의 역할은 여자의 경우 남자 진행자가 다 얘기한 뒤에 '네, 네, 그렇습니다.'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가 비판했더니 몇마디 더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수십년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인 남자 진행자와 비교해 엇그제 미스코리아나 슈퍼탤런트에 뽑힌 여자 진행자는 미숙하기 때문에 진행을 주도하는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영자만이 프로그램을 주도했고, 저는 그 여성이 주도하는 걸 보기 위해서 열심히 슈퍼선데이를 보고 있습니다. 주도하는 여성상을 보는 일이 이 주말 프로를 보는 즐거움입니다. 지금은

아마 바뀌었죠? 그런데 그 코미디에서 섭섭했던 점은 이영자씨가 소위 말하는 미스코리아를 뽑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코미디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체형과 외모를 비하하면서 웃기는 것이 대부분이라 여전히 왜곡된 여성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성희롱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인기있는 연예인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으며 청소년이 보고 싶어하는 연예인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 시청자인 주말 프로그램에 요즘 인기 있다는 공주병에 걸린 여성을 등장시켜, 시골 다방 마담으로 분해 아버지와 바람을 피우는 역할을 시키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아버지가 한눈파는 것을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우려되며 생각있는 사람이 만드는 프로인지 새삼 의심스러웠습니다.

웃기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우습지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한시간내내 저는 물론이고 아들도 전혀 웃지를 않았습니다. 방송내에서는 방청객들이 웃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웃기는 건지, 한번 걸려져서 우습지가 않은 건지 방송을 보는 우리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가 없기 때문에 TV가 유일한 분출구라 생각하면 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TV에 등장하는 인물은 거의가 젊은 남녀들입니다. 이는 프로듀서들이 20대, 30대여서 40~50대가 되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서 쓰지 않는건지 모르겠어요. '40대들이 왜 저렇게 살아있지? 빨리 죽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는 노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옛날 흘러간 가요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는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자 연예인의 경우는 성형수술 안하고 TV에 등장하는 경우가 오히려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성형수술하지 않은 얼굴로 너무나 편안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너무나 예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이러한 경향이 일본TV 베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TV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일본 TV프로를 베끼되 조금 못하게 베끼는 것이 우리 방송의 악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고시라고 불리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실력있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창의력이 부족합니까? 베끼더라도 BBC것을 베끼면 안 됩니까? 제작 여건을 탓할 수도 있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그래도 아직도 제작 여건이 나쁜가보죠? 창의력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창의력이 부족한 점을 걱정합니다.

또한, 주말 프로그램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효과음으로 넣고 있는 10대 소녀들의 비명소리입니다. 한국의 10대들은 너무나 입시에 시달려 시간이 없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내서 저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끔씩 비춰주는 방청객의 모습을 보면서 몇 되지도 않은 방청객이 질러대는 소리가 아니라 효과음으로 비명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예인들의 옷차림을 말하고 싶어요. 서태지 하나 입고 나오면 그건 눈에 띄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하고 싶은게 튀는거 아니예요? 남들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고, 왜 똑같이 춤을 춰니까? 튀려면 그만해야 합니다. 서태지는 좋지만 서태지의 아류는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명도 아니고 아류역할을 무더기로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띄지도 않고 짜증만 날 뿐이에요.

김학천 교수님도 종전에 결론에서 답답한 얘기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70개의 방송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더더욱 상황을 나쁘게 몰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3~4개 채널로 방송하고 있지만 편성을 잘 하기 때문에 온갖 프로그램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70개 채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가 떨어져서 망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저질 프로를 만들어 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청률이 성공의 기준이 안되는 새롭고 역설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청소년문제를 대중 문화가 부추기는 건 아닌지, 유일한 오락이며 관심의 주요축인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청률 거부운동을 다시 벌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영국사람들은 우리보다 대학을 덜 갑니다. 우리는 학벌만 높고 학력은 낮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이제 앞장서서 청소년과 국민들을 저질문화로 이끄는 TV 방송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 이연숙: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논평을 해주셨는데 영국사람이 학벌이 낮아도 BBC와 그밖의 방송들이 재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학벌이 아무리 높아도 방송을 보다보면 바보들이 되는거예요. 바보가 되기를 거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전규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문제가 연구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부분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3년반동안 방송개발원에 있으면서 연예·오락 부분으로만 제

관심을 집중시켜서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나 심야 토크쇼, 가요 순위 프로그램 등 모든 부문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뉴스라든지 드라마·다큐멘터리같은 부문에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프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TV프로에서 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즐거움, 재미를 높이는 정도를 더하기 위한 수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TV의 오락부분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허약한 내용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외양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반드시 TV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덕여대에 강의를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여대생들이 굉장히 화려하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복장에서나 화장에서나... 그것이 상당부분 스스로의 초라함이나 이른바 외모를 감추기 위한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 삼거리에서의 아이들의 갱스터 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까만, 저도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인 힘없음, 사회적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을 감추기 위한 상징적인 화려함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TV오락이 이렇게 튀고,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이유도 일본, BBC, 미국에 비해 50년정도 뒤쳐있는 내용적 후진성을 감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TV오락이 가능성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수준이 떨어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음악 대신에 팝송을 찾았지만, 90년대 들어서 국내가요로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TV제작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기자·제작자 시장에서도 앞으로 역량 있는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해답을 찾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고민

했습니다. 주말 가족 시간대 TV프로그램의 문제점 중 KBS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TV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는데 열린음악회라든지 빅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열린음악회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이 10대에서 40대, 50대까지 그리고 학력수준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대학교 수준까지 아주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30대, 고등학생 수준을 표적으로 하는 KBS의 기본 틀 유지가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비교해 왔을때 빅쇼는 10대들도 안볼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안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의 존재는 새롭게 따져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KBS1의 경우는 그런 시비가 많이 없습니다만 아톰 채널 차별화의 방향은 말씀 드린대로 30~40대의 고졸 정도의 취향이라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타채널의 경우가 사실은 가장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10대 지향적이다, 내용·형식이 천편일률적이다, 그리고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맞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취향의 차별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예·오락 프로그램들이 10대 지향적이지만 '슈퍼 선택'이라든지 '일요일 일요일밤에' 등 몇가지 정도는 약간의 차별성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차별성을 좀더 확대시켜서 10대 뿐만 아니라 30대라든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라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졸이라는 차별화가 있어야 TV 연예·오락에 대한 사회적 시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대가 아닌 30대를 잡으면 우리나라의 TV오락은 성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대여서가 아니라 30대가 그래도 이성적인 비판과 대중문화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풍성함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집단 뿐만 아니라 만일에 30대 남성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 프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드라마 한편을 찍으려고 4~5천만원을 투자하는데 비해 쇼프로그램을 만드는데는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제작비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제작할 때 돈없이, 소품없이, 세트없이, 좋은 프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프로그램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방송사내에서 반드시 드라마가 코미디보다 더 많은 제작비를 써야한다, 또는 다큐멘터리도 코미디나 쇼보다 많이 투자해야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코미디를 보는 사람에게도 1억이 들어가는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코미디의 차별성인데요. 주말 5시부터 8시까지 TV프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음악프로그램 아니면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퀴즈프로그램 같은 것이 주중엔 상당시간 편성되어 있는데 왜 퀴즈는 주말에 같이 한번 편성해 보지 않을까,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양과 오락성을 겸비한 프로그램들이 만일에 편성된다면...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라마 '형제의 강'에서처럼 10대부터 30, 40, 50대의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볼 수 있는 재미의 깊이가 있는 드라마를 그 시간대에 편성해 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추상적으로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프로를 구호뿐 아니라 실제로 편성을 해서 가족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행사의 취지가 TV가 온 가족을 안방에 같이 앉혀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기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 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TV를 보는 것은 이야기나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이지 현실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그런 이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개발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연휴때, 추석때, 설날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TV프로그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휴때는 기가막히게 좋은 프로그램이 편성돼서 온가족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될 듯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엉터리같은 기대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연휴때 가족들이 앉아서 다른 일을 하거나 놀이·애기를 해야지 어떻게 TV를 보면서 연휴의 의미를 새기는지 저는 그건 정말 저급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의 방향이나 가정속에서의 오락의 매뉴얼을 TV와 떼어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다들 모니터 활동을 하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엉뚱한 대안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TV를 보지말자'가 아니라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연예 오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재미를 줄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안다면 TV오락의 수준이 높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잘 모르면서 저건 아니야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얘기한다면 그 얘기의 내용은 빈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즐기면서 그 내용을 소화해 낸다면, 제작자 뿐만 아니라 방송사 모두와 싸울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모니터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이겠고,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술을 이렇게 취합니다. 'TV보지말라, 가요 쇼는 저급하다'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TV제작 현장에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도 즐기고 아이들도 즐기라는 의미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할까 하고 비난하면서 TV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 아니라 제 소견은 예컨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스튜디오에 가서 방청석에 앉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남들에게 빼앗겼던 TV오락의 장을, 공간을 되찾는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0대 아이들이 지금 대중음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비난을 통하거나 말로써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모니터 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어떻게 생산적으로 얘기해서 현장에서의 변화를 끌어내는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거대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연구팀에서 지난 9~10월의 TV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모니터했습니다. 그래서 30~40쪽 정도의 보고서를 내면서, 그 안에 10대에서 대학생까지의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가요순위프로의 담당 PD에게 보고서를 보여주고, "우리의 학자적이고 계몽적 시각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를 특히 당신들이 표적으로 하고 있는 10대들이 립싱크에 대해서 문제화하고 있고 관객들의 지나친 시끄러움에 대해서도 거부하더라"하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PD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립싱크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것이 생산적인 모니터 비평이고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맨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남을 위한 모니터링이나 막연하게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 방식보다는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기 것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이들이 같이 노력할 때, 제작자의 폐쇄적 의식이랄까, 엘리트 주의, 거리두기 등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연숙: 감사합니다. 김희천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 김희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학천 교수님께서 힙합 바지나 무스 바른 머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전규찬 선생님이나 김경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와 다른 시

각도 접할 수 있어서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TV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를 주면서 도덕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구요, 요즘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재미있어야 한다는 점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과 더불어 문제가 지적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다른 분들의 말씀과 겹치지 않는 면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산만한 진행과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회자들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MC가 많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책임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져서 잘못된 행동을 같이 덤터기 쓰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럿이 우르르 물려왔다 물려갔다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는 요즘 사람들의 세대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도 한명의 진행자로 성패를 가르게 되는 위험부담을 덜 갖고 대중 넘어갈 수 있다는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내용중에 한가지를 언급하자면, SBS의 경우인데, '여군 미쓰리' 코너에서 군복의 의미입니다. 올바르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이미지로만 쓰인다는 것입니다. 출연자들이 하기 어려운 행동을 시킴으로써 억지로 웃음을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10대 취향인 것을 이용하여 '교복'을 착용하였고 머리를 짧아 내려 학생을 우스개거리로 만듭니다. 실제로는 10대를 위한 프로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부적절한 언어사용과 여성비하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TV프로를 보다 보면 목소리가 아주 큼니다. 조용히 설명해도 되는 데도 큰 소리를 내어서 듣다보면 싸우는 건지 말하는 건지 분간이 안될 지경입니다.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수선히지는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강호동이 유행시킨 말인데요 '다리 뭉둥이를 딱딱 비틀어 토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생각해보면 섬뜩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의미를 생각치 않고 재미로 사용하는 코미디언의

코믹한 표정과 억양만 남기 때문에 따라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옛날 유행어들은 말의 묘미를 살린다거나 재치가 있어서 말 자체로도 운치가 있었는데 요즘 유행어는 무섭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과장된 언어표현을 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단순히 피성으로만 전달해서 내용의 부족을 뭉뚱그려버리지 않나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방송국의 제작자나 작가, 또 출연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좀더 장인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니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대안입니다. 더 큰 일은 저희가 나서서 할수는 없고 지금하고 있는 모니터 작업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학천 교수님의 논문 내용중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락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들의 문화환경에서 진부하긴 하지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재미없다고 보지 않을수는 없어요. 다른 대체할만한 대안이 없거든요. TV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주는대로 넘겨줄 수는 없구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모니터 작업을 놓고 많은 분들이 왜 똑같은 소리를 자꾸하는냐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되는 장면을 자꾸 내보내니까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거구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드라마나 쇼프로가 올해는 좀더 개선되어서 방송된 경우도 있고 세태나 환경에 맞게 저희 모니터들도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묵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니터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이 무가치하다는 여감을 받거나 문제로 지적된 코너가 계속 화면에 나타날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니터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크게는 사회를 위해서 시청하고 모니터하는 작업만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큰 목소리로 거들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연숙: 감사합니다. 윤청광 선생님, 하루 종일 하셔도 얘기가 끝이 안날만큼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 윤청광: 제가 김학천 교수님을 모시고 심의위원도 몇년했고 이연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저희 심의위원들 간에 심의회의가 끝난후에 사담 비슷하게 심정들을 얘기하면서 최근 몇몇 방송사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속된말로 막가파들이 장악하고 있는게 아니냐, 막 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들 지적을 해 주셨습니까만, 시청률만 올라가고 방송국 돈벌이만 된다면 자기 마누라 사 생활까지 까발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무슨 'TV동창회' 프로그램이라고 여자 동창들을 모아놓고 그중 한사람 남편의 위선을 공개하고,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남자로서의 체면과, 아버지로서의 위엄같은 것을 완전히 까발려서 방송을 합니다. 자식들도 다 보았을텐데, 이름을 다 실명으로 알리고 합니다. 시청률만 높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방송의 오락·연예 프로그램이 이사회에 알게 모르게 가정 파괴하는데에 주범이었다고 극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전에 라디오방송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TV시대가 되면서, 특히나 경쟁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전세계적의 언어 가운데서 경어가 있는 고유한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런데 TV의 드라마나 코미디나 웬만한 토크쇼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경어쓰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각 가정에서 유심히 체크해야 합니다만, 경어를 쓰는 애가 '어머니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하고나서 가방 벗어서 던지지는 않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하는 애는 여지없이 가방을 집어던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TV에서 정당하게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등장했을때 제대로 어른께 존댓말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경어쓰는 모습은 아주 보기 힘들습니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언어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서양 아이들처럼 할아버지도 'You', 아버지도 'You', 친구도 'You'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어가 아이들의 행동까지도 완전히 서양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섹스가 시청률 올리기엔 동원되고 이것이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아이들 사회에 할렘가에서나 있을 법한 퇴폐문화, 음란·저질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또한 버라이어티 쇼는 보면서 정서 안정이나 정서 순화를 주기는 커녕 기상·피성과 정체 불명의 춤사위·

.....

폭력이나 섹스가 시청률 올리기엔 동원되고 이것이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사회에 할렘가에서나 있을 법한 퇴폐문화, 음란·저질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



광란을 보여주어 정서불안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송 프로그램을 예술이나 문화로 분류하려면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방송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광란과 난장판만을 보여주어 정서순화와 카타르시스와는 영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너무 시청률을 의식하고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니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동적이고 쾌락적·찰나적인 프로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독이 되어버린다고나 할까요.

MBC의 '1318'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뛰어나가는데 감동과 문법이 있습니다. 슈퍼 선데이나 화려한 다른 프로와는 차별화되지요. 막가파들이 장악해서 가고 싶은데로 막가는 프로들과는 다릅니다. 전국민의 귀중한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게하는 프로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 이유는 방송사들이 하는 PD의 선발과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PD나 기자들은 다들 일류대 졸업생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 잘하면 합격하고 공부벌레들이 다인데, 이들이 슈퍼 선데이 같은 단순한 프로만 양산하는 겁니다. 시청률을 높여서 승진 기회로 삼고 개인의 출세만을 생각하지, 이 방송이 나가서 어떤 역기능이 있을 것인가, 어떤 유익함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PD의 선발과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소양이나 올바른 인생관·세계관·가치관이 중요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혁,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은 공동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과 방송의 표현의 자유는 스스로 정화해야 합니다. 폭력과 섹스를 저지하는 모니터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심의 규정도 별점제를 이

용하여 별점이 어느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방송 시간 규제와 같은 구체적인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D를 선발·교육시키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며, 전통문화와 윤리교육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청자 운동도 더욱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연숙: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윤창광 선생님은 '오발탄'의 작가입니다. 이제 광명세 선생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세: 제가 이 초청을 받고 속으로는 안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방송사 측에서 누군가는 참석을 해야하고 KBS에서 마다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왔고 여기와서 고견들을 듣고 방송을 제작하는 PD에게 전달하여 반영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말가족시간대 프로의 담당PD는 아니고 주로 음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BS, MBC의 두방송사를 공영방송으로 한 80년대 이후의 방송구조에서 SBS가 개국한 90년대부터 지금 지적하신 여러 문제들이 붓물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들, 방송채널의 홍수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한 홍수가 아니라 기술적·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모니터들의 기대를 바라는 것은 자구책으로서 '몽친 소비자의 힘'의 위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SBS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고 민간 상업방송인 SBS가 도를 지나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나서 MBC와 KBS에서도 이러한 프로를 양산하게 된 셈입니다. '93년도가 이런 문제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10대위주의 프로에 대한 반동으로 '열린 음악회'가 생겨났고 타겟을 30~40대층으로 옮겼던 이유가 바로 이 프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TV프로그램이 막가파로 갔던 때는 사실상 '93년도 입니다.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연예·오락 분과에 불러 간적이 있었는데요. '93년 당시에는 괴성-청소년들이 환호성이라고 좋게 표현을 합니다만-때문이었습니다. 이 괴성을 지르는 청소년들은 무절서하고 버릇없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프로의 관객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만을 보기위해서 온 아이들이 문제인데, 생방송이 진행되어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소리를 질러대서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주로 매니아나 팬클럽에 속한 일부 아이들이고 늘 오는 아이들이 계속 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보통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3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고 긴장이 풀어진 상태라 단체 방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인솔하고 처음 구경하느라고 진지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분의 1이 채되지 않는 매니아들이 소리를 질러대긴 했습니다만 그런대로 방송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요 순위 프로그램의 대상이 청소년 프로가 아니었는데 최근들어 가요계의 판도가 10대 위주로 바뀌면서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언을 많이 해주시고 그것을 여론화·공론화시켜서 사회의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방송사들이 결심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도 보람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창광 선생님께서 아까 PD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PD의 선발과정이 시험인데요, 5년정도의 AD과정을 거친뒤 입봉을 하게 됩니다. 정식 PD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연예·오락 PD의 경우이고 일반 교양·생활정보 프로그램들은 불과 1~2년안에 PD가 됩니다. 남자는 20대 후반 여자는 20대 중반에 PD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한 상태에서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방송시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스카우트제도와 같이 만들수는 없는 입장이라 입사시험을 보고 뽑습니다. 짧은 연수기간을 거쳐 양산된

PD가 방송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정도 경력을 갖춰야 제대로 판단능력을 갖춘 PD가 나오는데, 채널이 다양화되다보니 스카우트 열풍이 불어서 제대로된 PD가 더 귀해진 거죠.

방송이 단순히 오락적인 것 만이 아니라 사회적, 교육적인 책임을 느끼는 자질을 갖춘 사람에 대한 PD선발시의 측정치는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할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연숙: 감사합니다. 몇가지 얘기를 보태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3학생들을 방청석에 끌어들이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연극이나 운동시합에 참여할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학생들의 TV방청을 의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방청을 시간제로 의무화해서 확인을 받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대학교의 방송반 활동과 연계해서 그 인력도 눈여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방송 학원에서 소정의 훈련을 마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길도 열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MBC 노조위원장을 지내셨고 지금 방송개혁 국민회의 사무총장을 맡고계신 최문순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좋을 말씀 주십시오.

▶ 최문순: 저는 얼마 전까지 윤선생님이 말씀하신 막파에 소속되어 있다가 막가파를 하기 싫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해고된 후 주위에서는 걱정을 많이 해주었는데 저는 등허리에 얹혀있던 멧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 다. 한 발 떨어져서 방송을 바라보니까 방송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송 자체가 권력기구화가 되었고 정치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대거 진출하고 매우 TV적인 인물들이 정치권에 흡입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TV가 간접적인 정치의 장이자 사교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무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TV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된 방송의 오락적 문제의 원인을 저는 방송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방송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상업화 정책이 그중 가장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상업방송이라는 것은 방송을 장사, 곧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가장 중요해 집니다. 그래서 현업자들에게 압박이 돌아오게 되었으며, 시청률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청률이 낮은 프로의 PD를 교체하거나 프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SBS가 10대 위주의 방송을 하면서 MBC와 KBS도 거기에 끌려들어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를 현혹시키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조명과 화면을 현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송정책의 두번째 문제는 통제정책입니다.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시청자 주권을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를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며 방송 순서만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우습습니다. 말로만 시청자 주권을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정치적 독립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땡~ 김뉴스'도 문제가 되며, 정치적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에 괴리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를 양산해서 경쟁구도로 가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으로 가다보니까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질이나 공정성은 뒷전입니다. 그안의 개혁세력들은 논리를 잃고 무너져버립니다. 위에서 사탕과자와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분할 통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방송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개혁적이고 공익성과 공정성,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 방송의 주인이 정부나 재벌이 아닌 시청자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방송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격과 설득으로 방송사를 바꾸어야 하는데, 외국에 다 있는 Prime time access rule을 만들어 가족 시간대의 합의 내용인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을 위주로 방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슈퍼 선데이나 일요일 일요일 밤에 같이 시끄러운 프로들은 통제로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KBS와 MBC가 공영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이 지켜야 합니다. 교양·토론이나 정보프로그램 위주로 방송해야 하며, 여성·장애인·농촌 프로그램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모니터 할때도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굵고 크게 편성을 위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시청자운동이 운동으로써 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의 투자·시간과 정열을 투자한 자원봉사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모니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도 선택시청을 통해 선정적 장면을 선호하기 보다 안목을 길러서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해야 합니다.

▶ 이연숙: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 김인규: 시청률 측정의 방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요.

▶ 권명세: 참고로 시청률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전화 조사가 아니고 people meter 방식입니다. 각 가정의 표본집단의 기계적 장치를 통해 채널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컴퓨터에 입력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보았는지도 식구들의 도움을 얻어 측정하고 있습니다. 100% 확신이 가지 않지만 나름대로 people meter 방식은 참고할만 하고 신뢰를 주는 방법입니다.

KBS 시청률은 ITV쪽이 더 높습니다. ITV의 프로들은 공영방송으로서 자랑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방송의 시청률이 타 방송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시청자들의 선택이 올바르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연숙: 감사합니다. 김학천 선생님 마무리해 주시죠.

▶ 김학천: 모두들 심각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리 첨가해서 말씀드릴건 없구요. 프로그램 하나 하나의 단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 우리만이 가진 특이한 이데올로기의 지배문화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갑작스럽게 붙여박힌 상업주의가 바로 그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업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문화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지로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락 부분을 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연숙: 네, 오늘 저희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모두들 느끼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방송법을 바꾸어야 하고, 시청자들이 나쁜 방송은 하지말라고

충고를 해야겠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서 야단맞으면서도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여성들이 가족법을 바꿔냈습니다. 시청자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지성인들과 함께 연대활동을 해서 법을 바꾸기 위한 시작이 오늘 싸움 띄운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동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상 정립을 목적으로 지난 '86년부터 매년 '주부의 날 기념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도내 여성을 선정하여 '경기도 여성상'과 '주부기에 경진대회'입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각 여성단체간의 협조와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 단체의 발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하고 9개 단체가 모여 1985년 9월 11일에 발족하여, 현재 16개의 도단위 단체장과 직원 1명등 17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은숙 회장이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해왔으며, 제2대, 제3대, 제4



김선규 (회장)

대, 제5대, 제6대 신영순 회장을 거쳐, 현재 제7대 김선규회장이 맡아 경기여성들의 복지에 힘쓰

고 있다.

이후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상 정립을 목적으로 지난 '86년부터 매년 '주부의 날 기념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도내 여성을 선정하여 '경기도 여성상'과 '주부기에 경진대회'입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 행사는 금년에 11번째로 기념식을 가졌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매

년 아름다운 가족 화음을 통해 가족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기풍조성과 경기도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가족중장경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민간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고용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각계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여 근로여성정책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고용평등의 달인 10월에 '21세기를 대비한 고용평등의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생활 개선교육과 폐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가졌다.

지난 9월에는 생산과 에너지·환경보건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절약 의식이 크게 해이됨과 더불어 자율화와 개방화의 과정에서 호화·사치·낭비와 향락풍토가 확산되면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고 결국 국가 경제마



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이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입개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화·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199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수는 865명에 다다랐다. 이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건씩은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정부는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성폭력의 실태를 고발함과 아울러 대처방법을 제시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 21일에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성폭력 예방 및 대책세미나를 가졌다.

그밖의 주요사업으로는 사랑의 모자학교,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토론회,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범여성 실천결의대회,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여성교육 등이 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단체간의 연계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등의 운동에 주력할 것이다.





획일화된 주말 쇼, 코미디 프로그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 각 방송국의 주말 쇼, 코미디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였다. 주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황금시간대 중의 황금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TV앞에 불러 앉히고 마음껏 신나는 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TV를 보면 그 시간은 쇼, 코미디라는 한가지 장르가 독점하고서 시청자들에게 오로지 그것만을 보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편성은 다양한 장르가 있는 방송에서 극히 편파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다가 방송시간의 차별성도 없음은 물론이다. 같은 방송사 내에서조차도 프로그램별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제목만 바뀌며 토요일과 일요일 4시간에 걸쳐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회에서는 95년 7월에도 주말 쇼,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다. 이번의 모니터 결과를 가지고 그때의 모니터 결과와도 비교·검토해 보았는데 그때에 지적되었던 문제점이나 이번 모니터 결과나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이번 대상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참조)

방영 시간대의 문제

주말의 오후 시간은 가족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겨냥하는 연령층은 거의 10대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 시청층은 초등학교생들이라고 한다.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표 1)

요일	시간	KBS2	MBC	SBS
토	6~7	웃음 천국	인기가요 베스트 50	기쁜 우리 토요일
	7~8	토요일 전원출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웃으며 삼시다
일	6~7	슈퍼선데이 1부	환상여행	코미디쇼 대단한 일요일
	7~8	슈퍼선데이 2부	일요일 일요일 밤에	아이 러브 코미디

심대 취향으로 치우친 진행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보다 뿔뿔이 흩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청장년, 노년층은 볼 프로그램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나마 KBS1이 '빅 쇼'와 '열린 음악회'로 소외된 시청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지만 그 두 프로그램도 이제는 지나치게 정형화되고 도식화되어 식상할 지경에 이르렀다.

세 방송사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은 시청자를 어느 한 방송사에 빼앗기기 보다는 차라리 나누어 갖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포맷이 구분이 안될 정도로 비슷한 것을 보면 어느 프로그램을 보든지 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이다.

95년 7월의 보고서에서도 '방송시간의 차별성 결여'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어느 방송사의 어느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지경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산만한 진행과 내용

세 방송사의 주말 쇼, 코미디 프로그램의 진행자, 코너별 제목과 초대손님 등에 대한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다. (표 2, 3, 4 참조)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표에서 보여 주듯이 너무 많은 진행자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살리기 보다는 진행자들끼리 엉키어 더욱 혼란을 부채질한다. 주 진행자들 외에 코너마다 투입되는 보조진행자, 출연자들로 인해 진행이 산만하고 코너별 특성도 잘

(표 2)

KBS2

토(11/2)		일(11/3)	
웃음천국	토요일 전원출발	슈퍼선데이 1부	슈퍼선데이 2부
MCY: 최양락, 이봉원, 엄정화, 이란숙	MC: 신동엽, 이재룡, 이경실	MC: 임백천, 이본, 정선희, 클론	MC: 이정현, 임백천, 이본, 이민우
1. 빨간 소파: 유재석, 터보	1. 토요일 스타쇼: 이문세(가위손이 된 이문세)	1. 스타와 만나요: 송재환	1. 작은 연인들(정현이의 두 남자)
2. 랩 남매: 3명	2. 조군아-!: Ref	2. 땀과 세 남녀: 마운틴, 양원경	2. 일요스페셜: Ref(슈퍼 카메라)
3. 모정: 유경숙(엄정화 어머니)	3. 가을편지: 정성환	3. 여인극장: 오현경, 김원준(사랑을 위하여)	3. 슈퍼 비디오(임백천 연기 하이라이트)
4. 제3체험: 정준(재수없는 날)	4. 행복동 1번지(장남? 차남!)		4. 금손택네 사람들: 김미화
5. 개그가 흐르는 방: 엄정화			
6. 열집 아저씨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개편후 황신혜 혼자서 진행하는 '토토즐'이 오히려 신선하고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시트콤과 드라마 형식의 타 코너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애매하다. 어느 프로그램이건 간에 출연자에게 늘 춤을 추도록 강요하고 진행자들도 춤을 취 보이는 것도 식상하다.

SBS '아이 러브 코미디'에서 '여군 미쓰 리'는 단지 군복만을 입고 있을 뿐 여군들의 생활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군인들의 구호나 구령을 곁들인다고 여군 묘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레놓고 스스로 겸연쩍은 지 '...군인...감사합니다'를 보내고 있다. '천연의 사랑'에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게임으로 다 이빙을 누가 더 높은 데서 뛰어 내리나로 시합을 하는 흥륙기나 박수홍은 너무 무모하고 여자들

을 쟁취의 대상으로 물화시키며 여자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승자에게 선택당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맨'의 '무조건 받아라'편에서 밤송이, 물풍선, 산낙지 등을 던지며 무대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도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KBS2 '슈퍼 선데이'의 '금손택네 사람들'은 기존의 출연자들이 빠지고 새 사람들로 자리를 메꾸면서 새로운 배역을 대폭 늘렸다. '금손택네 사람들'은 '슈퍼 선데이'의 간판 코너였다. 그 코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방송사를 옮기느라 도중 하차하는 것도 문제고, 굳이 이 코너를 끝내지 않고 무리하게 배역을 바꾸면서까지 계속 코너를 꾸려가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옮겨간 방송사에서 비슷한 포맷으로 '장군이

〈표 3〉

MBC

토(11/2)		일(11/3)	
인기가요 베스트 50	토요일 토요일은...	환상여행	일요일 일요일 밤에
MCY: 김용만, 김남주	MC: 황신혜 초대손님: 신승훈, 채시라, 신인 탈랜트	1. 좌우대청 2. 야누스	MC: 이경규, 김용만, 김국진 1. 못말리는 영화: 임현식, 신신애 2. 화를 대도전: 아이돌, 터보 3. 요리천하: 임하룡, 김정민 4. 해뜨는 집: 장윤정(제1화 가 풍) 5. 이경규가 간다: 민용태

〈표 4〉

SBS

토(11/2)		일(11/3)	
기쁜 우리 토요일	웃으며 삽시다	코미디쇼 대단한 일요일	아이 러브 코미디
1.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홍록기 외 6명	1. 포장마차(1, 2, 3, 4): 이봉원 외	MC: 김원희, 강호동	MC: 김호진, 홍진경, 이영자, 김정민
2. 천년의 사랑: 박수홍, 송선미, 홍록기	2. 놀부가 기가 막혀: 김병조 외 3명	1. 파워 댄스, 댄스	1. 여군 미쓰리: 홍진경, 이영자와 3명
3. 게임맨(무조건 받아라)	3. 사과장수(1, 2): 김은태 외	2. 늙어서 불시다	2. 장군이네 동네
4. 신혼 행진곡: 강호동, 이상아	4. 윤희빈: 김옥주 외	3. 저 하늘에도 슬픔이	3. 스타 따라잡기: 이정재
5. 청춘극장(100일째 만남)	5. 슈퍼차 부부: 최양락, 평현숙 외 2명	4. 대단한 법정: 클론, 콜라	4. 학장시절: 클론, 이현도
6. 용서해 주세요: 김완선	6. 달동네 사람들: 김병조, 김미화 외		5. 무제

네 동네'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 주말의 쇼, 코미디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다. 그들에게 어른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새롭게 단장한 MBC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는 진행을 맡은 황신혜의 연령에서 느껴지듯이 십대에서 벗어난 청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반가웠다.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눈요기거리에 치우친 타 프로그

램과는 차별화된 내용과 진행이 신선하다. 다만 심야 시간대의 음악 프로그램과 유사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기가요 베스트 50'은 시청자의 참여로 선정된 가요순위이긴 하나 지나치게 댄스뮤직으로 치

우쳐 있다. 50위 안에 들어있는 노래들 중에서 신중한 선곡을 통해 다양한 노래를 들려주면 좋겠다. '환상여행'도 환상적이고 기이한 주제를 옴니버스식으로 다루고 있으나 구성이나 내용이 아직도 엉성하여 어색하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못말리는 영화'는 주제가 부적합하다. 예로 영화를 찍는다면 배우를 캐스팅하고 '에마'나 '젯소'나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십대 여학생들을 비롯해 이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인 10대를 염두에 두었다면 그런 내용은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경규가 간다'에서 우리 사회의 '숨어있는 양심'을 찾는 과정에서 보여준 장애인 부부의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그나마 MBC는 쇼와 코미디 일색인 주말시간대에 다른 방송사와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보인다.

지난번 모니터에서도 내용에 있어서 허술한 구성과 구태의연한 내용, 그리고 기존 작품의 패러디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코너마다 나름대로 자리가 잡혀 있어 안정감을 주고 있으나 내용의 질적 향상면에서는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본다. 다만 한때 유행하던 '패러디'가 사라지고 '시트콤'이 대신 자리를 잡은 것이 눈에 띄는 변화로 볼 수 있다. 패러디에 비해 '시트콤'은 여러가지 면에서 바

람적하다고 보나 어느 한 방송사에서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여 인기를 얻으면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슷하게 복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남의 것을 도용하기보다 자기 것을 새롭게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여성비하

유행어는 그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한다. 또 유행어만큼 그 프로그램을 빨리 뜨게하는 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유행어는 자칫 우리 언어생활을 저속하게 만들고 정서를 해칠 위험을 안고 있다.

SBS '기쁜 우리 토요일' 중 '신혼 행진곡'에서 강호동과 이상아는 번갈아 가며 '다리뭉둥이를 딱딱 비틀어 뽀와 버린다...'는 대사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혐악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쓰여지는 방송이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 의심스럽다. 영화 '보스'를 보고 흥내냈다는 막가파의 살인극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언어가 거칠어지면 행동 또한 거칠어질 것은 당연하다. '장군이네 동네'에서 김보연과 이영자는 '정신나간 여편네', '미친 여편네'라는 표현을 계속 한다. 아버지(연규진 분)도 아내에게 가부장적인 언어와 폭력을 사용하며 심지어 아들

에게조차 '네 엄마는 걱정 많아. 이 아버지가 다 막아줄게' 하는 식으로 불건전한 가족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엄정화는 홍록기에게 '자기, 나 좀러워'라는 이상한 유아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다. SBS '코미디 쇼, 대단한 일요일'의 '늙어서 봄시다'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언과 폭행, 비하가 난무하다. 물론 늙어서는 반대로 당한만큼 갚아준다는 설정을 하고 있지만 양쪽 다 불건 강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단한 법정'에서는 '죽돌이'라는 속어 까지 소개하고 내용 또한 유치하기 그지없다.

KBS2 '토요일 전원출발'에서 MC 이재룡이 김정민과 최지우를 향해 '다음 코너엔 두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지칭했다. 또한 가을 개편 축하 방송에서 고창근 아나운서와 레슬링 해설가 김영준은 '빠메루'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올림픽 이후 갑자기 유행한 레슬링 용어이긴 하나 올바르게 사용한 용어를 아무데서나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인격이다. 요즘 아이들은 많은 부분 TV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다. 방송은 방송언어로서 적합한 언어를 골라 쓰는 신중함을 갖추어야 한다.

언어사용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었었다. 입에 담

기조차 거북한 말들, 생각없이 내뱉는 단어들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런 지적은 아무리 많이해도 지나친 것이 아닐 것이다. 또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끝날 때마다 '재미 있었죠?' 혹은 '너무 재미 있었어요'하는 식의 멘트는 자화자찬에다 억지로 동의를 구하는 것 같아 어색하다.

맞는 말

우리 TV 주말 저녁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데 있다.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양할 수 밖에 없고 또 당연히 다양해야 하는데도 TV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말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웃어야 된다는 사명이라도 있는 듯이 같은 시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비슷한 심정으로 웃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정말 코미디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채널을 돌리다 보면 방송사가 다른데도 같은 출연자가 똑같이 나오고 비슷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왜 방송사가 3개씩이나 있어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주말 오후에는 꼭 가벼운 내용을 방영해야 하는 근거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피로를 풀게 하는 방법으로 오락성이 강한 쇼와 코미디를 선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피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지난

일주일을 진지하게 반추해 볼 수도 있고 사는데 바빠서 미처 돌아보지 못한 이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TV의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여 방송사별로 독특한 개성을 살려 나간다면 시청자들의 취향이나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사가 '주말을 가볍게'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다면 시청자도 채널 선택권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리: 김희천(본회 매스컴 모니터)

▶ 매스컴에 비친 여성



소모적인 아침 일일연속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아침시간에 방영되는 일일연속극을 모니터하였다. 3개 방송사, 4개 채널에서 각각 한편씩의 드라마가 아침 8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영되고 있는데 KBS1 '하얀 민들레'와 KBS2 '유혹', MBC '길위의 여자' 그리고 SBS '때로는 타인처럼'이다.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였다.

아침에 하는 드라마라고 해서 타 시간에 방영하는 드라마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들의 소재가 거의 남녀간의 사랑에 머물러 있듯이 아침 드라마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드라마는 주부를 주 시청층으로 삼고 있어서 모니터하면서 주부에 대한 방송사의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읽을 수 있었다. 주무대가 가정이면서도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이나

주부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묘사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부의 관심사는 남편의 행보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침부터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남편에 대한 편집증적 행동 등을 보며 시작하는 주부들의 하루가 어떠할지 염려된다. 이런 현상은 제작진의 주부에 대한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무성의함과 구태의연한 제작태도를 드러내는 처사라고 본다.

요즈음 여성들의 의식이 날로 달라져 가고 있고 사회에서의 주부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가는 추세를 방송은 외면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을 보면서 방송사의 획기적인 인식 변화가 시급함을 느끼게 되었다.

소재의 진부함

진부한 소재에 대한 언급은 드라마 모니터 보고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아침 드라마

에서는 특히 심하다. 네개의 드라마 모두 어느 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남녀간의 애증과 그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자잘한 신변잡기만을 나열하고 있다.

더우기 '애인' 이후 유행처럼 번지리라는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려는듯 '유혹'과 '길위의 여자'는 불륜을 다루고 있다. 불륜 드라마가 미치는 피해는 굳이 여기서 다시 짚을 필요가 없을만큼 '애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거론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끌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고 생각한다. 사랑이란 인간사의 영원한 주제인데다 그 사랑이 우여곡절을 겪는다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단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만들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륜은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무대를 가정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몇개의 세트와 약간의 야외촬영만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얀 민들레’의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딸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이나 ‘때로는 타인처럼’의 남자 한명에 세 여자라는 구도도 역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여성비하

아침 드라마는 주부, 즉 여성이 주 시청자이다. 그런데도 타 시간대 드라마보다 여성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더 심하다. 올바른 의식을 가진 여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비뚤어져 있거나 모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 ‘길위의 여자’에서 김청이 하는 역은 치기어리다 못해 한심하다. 누구에게나 거의 반말이고 하는 짓도 미숙하여 어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터 그런 성격을 주어서 극에 재미를 주려고 했겠지만 정도가 심하다. 이런 사람을 드라마마다 꼭 한명씩 양념처럼 끼워넣는 것도 식상하다.

대사도 너무 구태의연하게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의선(조옥희 분)이 정아 엄마(이효준 분)에게 ‘돈버는 재주 없는 거 다행인줄 알아. 죄많은 여자가 돈버는 거 같애’(11/8)라는 말을 하고 있다. 요즈음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주부가 늘어나는 추세에 이런 대사를 쓴다는 것은 작가의 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아침부터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남편에 대한 편견적 행동 등을
보며 시작하는 주부들의 하루가 어떠할지
연려된다. 이런 현상은 제작진의 주부에 대한
무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무성의함과 구태의연한 제작태도를
드러내는 처사라고 본다.

●●●
이외에도 ‘끈끈하게 구는 건 질 색이거든. 더구나 여자’(11/7)라던가 ‘여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입 맞추지 말어. 그런 날에는 혼날 줄 알아’라는 등 여성비하는 물론 이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구태의연한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 의선역의 연기가 너무 서툴러 어떤 상황이나 똑같은 표정인 것도 보기에 거북하고 이야기 전개도 맥없이 늘어져 있다.

‘유혹’에서도 혜선(양금석 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가부장적인 사고이다. ‘바깥에서 큰일하는 남자 성가시게 하지마’라는 아버지도 문제는 항상 여자들이 만들고 수습은 남자가 나서야 되는 것으로 정형화시키고 있다. 그리

고 가정부가 상주하는 상황에서 집안에 차가 떨어졌다거나(11/6) 당근이 떨어진 것으로 혜선의 살림에 관심이 없음을 표현하는 것도 무리이다. 주부의 생활을 가정에만 묶어두고 그것을 벗어나면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

‘하얀 민들레’에 나오는 아버지(임동진 분)는 자상하고 모범적으로 보인다.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태도도 무척 다정하고 아버지의 처지를 측은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외도하여 밖에서 딸을 낳아오고 그 일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설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영의 친어머니로 밝혀지는 영주 아줌마(최지민 분)는 사업가로 나오는데 전혀 일에 관계되는 묘사가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안계신 집안에 혼자 사는 이모가 있어 살림을 한다는 설정도 무리이다. 우리사회의 관습상 고모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홀로 된 형부와 혼자 사는 처제가 함께 기거한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본다. 또 이 드라마는 처음에는 남자 나레이터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여자 나레이터로 바뀌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농아로 나오는 연기자의 수화가 너무 엉성한 것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다. 모처럼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따뜻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만큼 더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이다.

‘때로는 타인처럼’에서도 엄격한 성격의 회장(이순재 분)에게 간병인(선우은숙 분)이 이런저런 충고를 하고 그로 인해 회장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은 사실 현실감이 희박하다. 그러나 비록 현실감은 없지만 부자간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민엄마의 모습은 타 드라마에 비해 바람직한 여성상이다.

‘길위의 여자’에서 정아엄마의 친구(오미희 분)는 무용 선생님인데 한번도 무용을 하거나 가르치는 장면이 안 나온다. 그저 정아엄마의 말상대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인물들은 모두 친구거나 혈연 사이로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기타

‘유혹’에서 남편(강석우 분)의 옛 애인(정애리 분)에 대한 호의는 무척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반면 아내의 옛 남자친구에 대해선 위협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 아내인 혜선의 모든 행동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묘사는 남자의 외도와 여자의 외도에 대한 근본적인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부부의 윤리는 남녀가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사람의 선악과

는 별개의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 ‘길위의 여자’에서 친구 남편과의 불륜을 다루는 것도 남자들은 의리를 중요시하는데 여자들은 친구사이에도 의리없는 짓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네편의 드라마 모두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이야기의 흐름이 느리고 지루하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그대로 찬찬히 보여주는 것은 시간때우기라는 인상이 짙다. 드라마는 보통의 일상을 표현하더라도 압축해서 묘사해야지 있는 그대로 나열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혹’의 경우 회상 장면이 자주 길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침 일일연속극들은 대충 만든다는 느낌이다. 연기자들 성의없이 연기하고 세트나 배경 등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 한동안 일일연속극의 폐해를 자인하고 방송사들이 일일극을 없앤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사이엔가 슬그머니 모두 만들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치열해진 시청률 경쟁이 크게 한 몫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일일연속극은 한번 시작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그 틀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 이외에 일일연속극을 다시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시간과 재

원의 낭비를,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간 낭비를 유발하는 소모전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측의 주부에 대한 인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주부는 더 이상 집에만 머무르면서 급조된 프로그램을 아무런 생각없이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온 집안의 대소사를 담당하는 주부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밝은 장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부는 누구보다도 사회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하고 바른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부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TV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TV에서는 현 주부들의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해오던 관행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한동안은 주부의 시선을 붙잡아 둘 수 있을지 몰라도 조만간 외면 당하고 말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주부 대상 프로그램의 과제이다.

정리: 전상금(본회 매스컴 모니터)

日 노동성, 유명무실한 남녀고용기회평등법 개정 논의

김은주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남녀고용기회평등법은 고용주들이 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쳐 노동조합들과 여성 단체들은 이 법이 용어선택에 있어서 허점이 많고 위반했을 경우 처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을 비난해왔다.

일본 노동성, 유명무실한 남녀고용기회평등법 개정 논의

일본 정부는 지난 '86년 제정된 남녀고용기회평등법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논의 중이다.

노동성 산하 '여성 근로자 위원회'는 남녀고용기회평등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1월 20일 위원회 대변인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용주들에게 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남녀고용기회평등법에 여성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 "금지"라는 용어가 이 조항을 위반한 고용주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남녀고용기회평등법은 고용주들이 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노동 조합들과 여성 단체들은 이 법이 용어선택에 있어서 허점이 많고 위반했을 경우 처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을 비난해왔다.

'여성 근로자 위원회'는 올해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 건의문은 노동성이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 의회에 제출할 남녀고용기회평등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위원회 대변인이 말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노동자측 위원들은 이 남녀고용기회평등법에 지원, 고용, 승진, 기타 직업 환경에서 기업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리거나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제재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측 위원들은 이같은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남녀고용기회평등법과 관련 또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무 및 철야 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의 폐지 문제인데, 위원회는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출판업자, 전화교환수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여성 근로자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일하지 못하게 돼있다.

노동자측은 이 조항의 폐지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으나 일부 노조에서는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보다 오랜 시간 일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남아공, 흑인여성에 대한 가혹행위 극심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들은 오랜 세월 백인들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하여 투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흑인 여성들에 대한 흑인 남성들의 폭력은 간과돼왔다.

이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흑인 여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폭력행위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여성기구의 조너스 포스터 회장은 11월 14일 영국 브라이트에서 열린 여성 학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가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하고 "가정내 폭력은 여성생활의 일부"이라고 강조했다.

남아공의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 테호코 마이체는 남아공의 흑인 여성들은 "우리는 우리의 적이었던 백인들

에게 흑인남성들이 우리들에게 폭력을 가하고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을 지켜왔다"고 밝히고 "우리가 받은 폭력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데 이제 전력이 났다"고 말했다.

남아공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여성들에게까지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여성운동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인권감시 아프리카' 보고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하루에 1천명의 여성이 강간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남아공 여성 3명중 1명이 평생에 한번은 강간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간당한 경우중 2.8%만이 보고된다고 이 단체가 지적했다.

포스터회장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 남편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성들은 미성년자로 취급받아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은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없애기 위해, 짐바브웨, 모잠비크, 앙골라에서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성들과 나란히 투쟁했으나 일단 상황이 끝나면 여성들은 다시 전통적인 역할로 "후퇴"해 "여전히 얻어맞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아공이나 모잠비크같은 국가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의회로 진출했으나 이들은 정치인이 아닌 단지 "여성"으로만 취급되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포스터회장이 전했다.

사우디국왕, 여성취업 확대 약속
보수적 회교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드국왕은 정부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파드국왕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발전 목표중 하나는 "여성들을 위해, 또한 회교 율법에 맞게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은 전체 노동 인구의 5%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은 가까운 친척이 아닌 남성들과의 접촉을 가져오게 될 직업에는 취업이 금지돼 있으며 여학교 교사나 사회복지관련 직업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 나라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회교 율법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사춘기 이후에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심지어 운전도 할수 없게 돼있다.

미군, 훈련소 여군 성폭행 사건 조사 착수

최근 미군 훈련소 2곳에서 여군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미군은 11월 11일 메릴랜드주 애버딘 소재 훈련소에서 발생한 여군훈련병에 대한 성폭행 및 성적학대사건과 관련, 5명의 교관을 기소 혹은 행정처분했으며 또다른 피해사건을 찾기 위해 지난해 이후 이 훈련소를 거쳐간 여군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관은 훈련소에 입소한 수십명의 여군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교관중 1명은 훈련병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폭로할 경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군은 덧붙였다.

미군은 이밖에 미주리주 포트 레너드

우드 소재 훈련소에 대해서도 지난 9월부터 성폭력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존 셸리캐슈빌리 미합참의장은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열린 TV 대담프로에서 훈련소내 성적 학대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전 훈련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연구소의 군사문제 전문가 로렌스 코브 전국방부 인사국장은 "많은 남성들이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군인이 여성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또한 여군 훈련병이 성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수개월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는지 그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국방부가 발표한 군대내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군 전반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는 보고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해군의 경우 육군이나 해병대 등에 비해 성희롱 척결에 보다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에서는 지난 88년 여군의 64%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대답한데 비해 지난해에는 55%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의 경우 88년 75%가 성희롱을 불평한데 비해 지난해는 64%로 줄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성희롱 비율이 높았다.

군인 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육군의 경우 여군의 45%만이 상사가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 여성문화

연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세기(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작으로 손꼽히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마 소설로 읽지 않았다면 영화로 본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대한 소설분량과 그 속에 얹힌 여러 인물들의 사건을 영화로 소화하기란 어딘지 미흡하다. 더더구나 제한된 시간에 연극무대에서의 스토리 전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프랑스작가 자크 코포의 각색본을 바탕으로 이진순·심희만 연출로 공연된바 있으나 작품의 스케일이 너무 방대하여 전작공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러시아에서도 이틀에 나누어 공연되거나 부분 발췌 공연에 그치고 있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극단 신화가 전작대본을 완전 연극화해서 3시간짜리 무대로 만들고 있다.

관련 연극에서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복수와 사랑은 어떤 비극적 결말을 보여줄 것인가.

'천부 살해'라는 특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연극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통해 인간의 본능과 탐욕, 지성과 종교, 사랑과 증오를 철저하고 냉엄하게 파헤치면서도 가족의 결속과 혈연의 소중함을 감동적으로 일깨워 준다.

다.

먼저 아버지 표도르는 후안무치의 호색한이며 장남 드미트리는 자존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정의파, 둘째 이반은 이지적인 무신론자이고 셋째 알료샤는 순수한 심성을 지닌 견습 수도생이다. 이 연극은 유산상속에 따른 분쟁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표도르와 그의 세아들이 수도원에 모여면서 시작된다.

줄거리는 집시여인 그루셴카를 사이에 둔 아버지 표도르와 장남 드미트리의 삼각관계, 그리고 드미트리의 약혼자이면서 드미트리의 동생인 이반을 사랑하는 카체리나가 이중의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들의 미움과 갈등은 증폭되고 고조된다.

결국 드미트리는 탐욕스럽고 야비한 아버지 표도르를 살해하려하지만 실제로 표도르를 죽인 사람은 이반의 제자격인 스메르자 코프이고 이를 확인하는 순간 이반은 미쳐버리고 스메르자코프는 자살한다. 막내 알료샤는 지구상에 두번다시 없어야 할 이 참담한 비극을 신앞에 절규하면서 연극은 비극적 낙관주의로 막을 내린다.

특히 영화에서 윌브린너가 맡았던 드미트리역의 김학철은 외모에서 풍기는 강한 힘과 무대를

장악하는 묘한 매력을 절제의 선감으로 표출해 내고 무대에 오를때마다 깜짝놀랄 변신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정경순이 그로센카의 복잡다단한 캐릭터를 총칭 무진으로 펼쳐보인다.

결코 쉽지않은 작품이면서도 소설속의 인물과 극중배역의 이미지가 이상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연기자들의 불꽃튀기는 연기의 대결만으로도 지루하기 십상인 긴 연극을 극적 긴장과 재미에 흠뻑 빠질수 있게 한다.

공연에 앞서 지난 6개월간 단국대 노어노문학과와 함영준 교수와 페테르부르크대 안드레이 교수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사상·예술·종교에 대한 책임자문으로 공연대본을 완성시켰고 러시아 모던극장의 야닉 세르게이가 무대 디자인과 의상감수로 19세기 최고의 명작을 현대적 감각으로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다. 제작비만도 7억여원. 명량한 코러스로 완급을 조절한 김영수 연출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무대에서 내년 2월 2일까지 공연예정이다.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강기청 (총무처 인사기획과장)

I. 현황

가. 여성공무원 현황

'9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은 전체공무원 903,823명 중 246,468명으로 27.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87년 21.4%, '91년 24.5%, '95년 27.3%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경제성장 및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기회확대 및 가치관 변화 등으로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활동증가동향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행으로 채용에 있어서 남·녀 구분모집이 철폐되고

보수·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남성과 동등 대우, 결혼·출산 후에도 계속 근무가능 및 신분보장, 노후 연금지급 등으로 장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여성들이 공직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추이는 다음과 같다.

나. 직종별 여성공무원 현황

'96년도 여성공무원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교육공무원 135,868명, 일반직공무원 52,082명, 기능직공무원 46,114명, 경찰 등 기타 공무원 12,404명이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여성이 전체 교육

공무원중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공무원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87년도에 22,276명이던 것이 '95년도에는 52,08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의 여성점유비율 또한 10.3%에서 18.1%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출이 거의 없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여성경찰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여성이 공무원 전반에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직종별 여성공무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공무원채용시험 여성합격자 현황

총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은 '88년 5급(행정·외무·기술고시) 1.5%, 7급 0.5%, 9급 10%이던 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직종별 여성공무원 현황('95)

연도	구분	계	일반직	교육	기능직	경찰	기타
'95년	전체공무원	903,823명	288,482명	283,628명	190,058명	90,174명	51,481명
	여성공무원	246,468명 (27.3%)	52,082명 (18.1%)	135,868명 (47.9%)	46,114명 (24.3%)	1,327명 (1.5%)	11,077명 (21.5%)
'87년	전체공무원	697,538명	216,955명	236,855명	47,847명	65,997명	129,884명
	여성공무원	149,570명 (21.4%)	22,276명 (10.3%)	94,234명 (39.8%)	4,230명 (8.8%)	818명 (1.3%)	28,012명 (21.6%)

5급은 3~9%, 7급은 4~7%, 9급은 30~40%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공무원 공개시험 여성합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 공개시험 여성합격자 현황

(여성합격인원/총합격자)

구분	5급	7급	9급
'88년	3명/195명(1.5%)	2명/364명(0.5%)	216명/2,154명(10.0%)
'92년	12명/361명(3.3%)	65명/881명(7.4%)	1,135명/2,847명(39.9%)
'95년	22명/257명(8.6%)	15명/414명(3.6%)	477명/1,405명(34.0%)

II.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정책

가. 필요성

'9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인구는 22,208,707명으로 전체인구의 49.8%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인구에 있어서는 여성이 40.6%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있어서는 여성이 27.3%이고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여성이 18.1%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정책결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에 불과하여 여성인구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인구비율과 비교할 때 아주 낮은 편이다. 이 경우 공직에 있어서 여성대표성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입안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날로 증가하는 우수한 여성고급인력을 공직에 유치, 적극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공직참여기회 확대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 정책내용

1) 공무원채용 남·녀 구분모집 철폐

'88년 이전에는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남·녀구분모집제를 적용하여 여성은 선발예정인원의 10%내외를 채용하여 오던 것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고학력자 증가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89. 6. 16 공무원임용시험

령을 개정, 이를 철폐하였다.

그 결과 종전('88년 이전)에는 9급공무원 공개시험에 여성합격자가 10%이던 것이 '90년에는 30.2%, '92년에는 40.7%, '96년에는 33%로 여성합격자가 대폭 늘어났다.

2)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도입배경

'9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역할을 담당하는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여성비율은 2.3%에 지나지 않아 여성이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사정되고 있는 우수한 고학력 여성인력을 적극활용하고 여성의 상위직 진출

여성공무원의 증가추이

연도	'87년	'91년	'95년
전체공무원	697,538명	837,582명	903,823명
여성공무원	149,570명	205,531명	246,468명
(점유비율)	(21.4%)	(24.5%)	(27.3%)

9급 행정·공안직 공채시험 여성합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전체 합격자	2,134	4,284	4,155	3,241	2,727	3,298	1,840	1,281	2,260
여성 합격자 (비율)	215 (10.1%)	1,068 (24.9%)	1,256 (30.2%)	1,406 (43.4%)	1,109 (40.7%)	1,152 (34.9%)	581 (31.6%)	413 (32.2%)	747 (33.0%)

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중요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투입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㉑ 적용대상

여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채용 시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성합격자가 적은 상위직급인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와 7급행정·공안·외무행정직 공채시험에 적용되며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30% 이상인 9급공무원 공채시험과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소수인 기술직 그리고, 직무특성상 남·녀 구분모집이 불가피한 교정·보도·보호관찰직은 제외된다. 또한 선발

예정인원이 적어 현실적으로 목표인원 설정이 어려운 10명미만의 채용단위 시험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㉒ 여성채용목표비율

도입 첫해인 '96년도에는 10%를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적용된다.

㉓ 적용실적('96년도)

제30회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여성채용 목표 비율

연 도	'96	'97	'98	'99	2000
적용비율	10%	13%	15%	18%	20%

연도 최소 목표율

연 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목표율	12%	15%	18%	20%	22%	25%	27%	28%	30%

최종합격자 41명중 여성이 4명 합격(여성 1명 추가합격)하였고 제40회 행정고등고시에 있어서는 최종합격자 192명중 여성이 19명 합격(여성 2명 추가합격)하였으며, 7급 행정·공안·외무행정직 공채시험에 있어서는 최종합격자 285명중 여성이 25명 합격(여성 15명 추가합격)하였다.

3) 정부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확대 의무화

정부 각종위원회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5년도 기준 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수는 총 324개이고 동위원회의 위원수는 16,546명에 이르나 이중 여성은 1,153명으로 전체위원수의 7%로서 여

성참여는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통하여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도록 '95. 12. 30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위원회 등 정책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각급 기관장은 당해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유엔권고기준인 30% 이상이 되도록 '95년도의 7%를 2005년까지 3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위원회 여성참여 최소목표율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최소목표율은 다음과 같다.

4) 공무원 육아휴직제 및 가사휴직제 도입시행

여성의 공직진출확대 추세에 부응하여 근무여건의 실질적 보장과

공무원 육아 및 가사휴직 현황('95년도)

구 분	합 계	육 아 휴 직					가 사 휴 직				
		소계	3월 이하	6월 이하	9월 이하	1년 이하	소계	3월 이하	6월 이하	9월 이하	1년 이하
합 계	2,942	2,647	307	381	264	1,695	295	80	77	32	106
남	83	12	1	2	3	6	71	25	20	5	21
여	2,859	2,635	306	379	261	1,689	224	55	57	27	85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처는 지난 '94. 12. 22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육아휴직제 및 가사휴직제를 도입하여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휴직당시 1세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또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1년범위내(재직중 3년범위내)에서 가사휴직이 가능하다. 도입시행 첫해인 '95년의 육아휴직 및 가사휴직 실적을 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자 2,647명(남자 12명, 여자 2,635명), 가사휴직자 295명(남자 71명, 여자 224명)이다. '95년도 공무원 육아휴직 및 가사휴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여성공무원의 연수기회 확대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잠재력 개발과 능력발전기회 확충을 위하여 '95년도에 정부부처 4·5급 여성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2주간 일본 및 독일 관련기관에서 연수를, '96년도에는 4·5급 여성공무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체공무원	275,900	78	404	825	6,068	20,356	64,651	75,881	68,144	39,493
				27,731						
여성공무원	51,345	-	2	13	87	532	3,541	12,071	18,897	16,202
(비율)				634(23%)						

* 연구·지도직공무원은 제외됨

원 20명을 영국·노르웨이·네덜란드에, 6급이하 여성공무원 45명을 미국·일본에 연수를 실시하여 여성공무원의 국제적 안목배양과 감각을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96년에는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에는 여성관리자발전과정(1주일과정)을 신설하여 4·5급 여성공무원 9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관리능력개발을 위하여 동 교육과정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6) 여성공무원 평등대우에 관한 인사지침 시행

사회전반의 여건변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공직진출이 날로 증가하고 그 역할이 중요시되고, 또한 여성공무원들이 더욱 창의와 열의를 가지고 능동적 자세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활용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93. 12 여성공무원 평등대우에 관한 인사지침을 시행하였다.

동 지침의 내용을 보면 채용에 있어서는 자격과 능력에 따라 남·녀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보직관리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되 직무상 남·녀구분이 불가피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 직위를 지정·제한적으로 운영하며, 승진에 있어서는 남·녀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함과 아울러,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여

성공무원에게 적기에 교육실시, 해외연수와 외부기관 위탁교육시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근무환경에 있어서는 보건휴가실시, 탈의실 설치 등 여성공무원에 필요한 시설보완 등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려하도록 하였다.

III. 향후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정책 방안

가. 공무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여성입학비율 확대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세무대학의 경우는 여성입학비율을 현행 11%에서 2000년에는 50%까지, 철도공무원을 양성하는 철도전문대학의 경우 '96년도 20%, '99년도에는 50%까지 점차 확대할 방침이며, 경찰간부공무원을 양성하는 경찰대학의 경우도 여성입학비율을 현행 4%에서 '97년에는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 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 도입검토

남편의 해외근무 또는 연수시 일반직여성공무원도 남편과 함께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96. 8. 14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이미 도입하였다.

▶ 손쉬운 요리

인삼영양술밥

추천인 : 안승춘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부원장)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12월. 가족 모두의 균형있는 영양식단이 필요한 때이다. 육류, 어패류, 야채류, 견과류 등 산해진미의 모든 재료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영양술밥이라는 맛을 풍부하게 지닌 우리 고유의 일품건강요리이다. 밤, 수삼, 버섯, 은행, 대추를 주재료로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으로 온가족이 즐길수 있는 겨울 별미이다.

♣ 재료

쌀	3컵
인삼(수삼)	150g
대추	50g
은행	50g
밤	50g
표고버섯	3종
간장	1큰술
청주	1작은술
육수	3컵

♣ 만드는 법

- ① 쌀은 씻어 30분정도 불려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놓는다
- ② 수삼은 솔로 문질러 깨끗이 씻은후 잔뿌리는 떼어내고 굵은쪽을 칼로 썰어 놓는다.(잔뿌리는 대추씨와 함께 끓여 차로 이용하면 된다.)
- ③ 대추는 포를 떼서 살을 굴겨 채썰고 대추씨는 수삼 잔뿌리와 함께 끓여 차로 마시면 좋다.
- ④ 밤은 껍질을 벗겨 2~4등분해 놓는다.
- ⑤ 은행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긴다.
- ⑥ 표고버섯은 불려 기둥을 떼고 가늘게 채썰어 놓는다.
- ⑦ 돌솥에 인삼, 대추, 밤, 은행, 표고버섯을 넣고 간장과 청주를 넣고 살짝 익힌 다음 쌀과 육수를 붓고 인삼 영양술밥을 지어낸다.
- ⑧ 육수는 물 3컵에 감치미 1/2큰술을 타서 사용하면 편리하다.

※ 양념간장을 곁들여 낸다.

주부 자기개발 실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주부들의 66%가 자기개발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하지만 실제 취미생활을 자기개발을 하는 주부들은 27.8%에 그치고 있다. 자녀교육과 살림살이에 치여 생각만큼 자기만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주부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어렵사리 시간을 쪼개 자기개발활동을 하는 주부들은 ‘심리적·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털어놓는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반응도 적잖다.

최근 주간신문 ‘사람과 사회’가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개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많은 주부들이 자기개발의욕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사대상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도시의 20~59세 주부들이다.

자기개발의욕은 20대, 30대일수록 높아져 20대 주부의 76.1%, 30대 주부의 71%가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대(59.1%), 50대(48.7%)는 상대적으로 욕구가 낮았다.

그러나 자기개발을 위해 실제 하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40대주부(36.5%)가 그중 실천력이 강했다. 20대(18.8%), 30대(25.8%)에 비해 자기개발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40대 주부가 훨씬 많다.

40대 주부들이 자기개발에 열중하는 것은 중년에 찾아드는 ‘빈둥지 증후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부나이 40대이면 자신을 쟁길 겨를 없이 가족 뒷바라지에 파묻혀있다 느닷없이 중년의 위기를 맞을 시기다. 자기개발을 틈틈이 하면서 자신을 쟁기는 중년주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개발의 유형으로는 스포츠(38.9%), 취미활동(30.7%), 어학·컴퓨터공부(17.3%), 종교·봉사활동(6.7%) 등이 꼽혔다. 자기개발에 쪼개는 시간은 1주일 평균 12.24시간. 자기개발비용은 월평균 7만 8천 4백원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관점은 연령별로

달랐다. 20대, 30대 주부의 경우, 자신만 뒤쳐지는 것 같은 불안감때문에 자기개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40대, 50대 주부들은 심신의 건강에 자기개발이 보탬이 된다고 답했다.

자기개발의 유형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14.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취미살리기(13.4%), 잠재능력 키우기(13.4%), 남에게 뒤쳐지지 않기(10.8%)순이었다. 도전할만한 새로운 일, 적성에 맞는 소규모사업등을 자기개발의 범주에 넣는 주부들도 있었다. 자기개발활동을 한 뒤 일어난 변화로는 심리·정서적인 변화(46.1%)가 가장 컸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다. 생활 패턴이나 행동양식이 달라졌다는(24.3%) 주부도 꽤 있었고 건강상태가 좋아진(17.5%) 예도 있었다.

TV여성차별지표 개발

TV 드라마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거나 집안을 주배경으로 제한적으로 묘사되는 등 여성차별현상이 적잖다. TV뉴스에서도 외제선호 사치성 소비 등 잘못된 소비행태 보도 때 주로 여성들이 인터뷰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이 TV의 여성차별지표를 개발, TV뉴스와 드라마를 분석한 결과 등장인물의 배역, 대사 등에 여성차별요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대상 드라마는 ‘목욕탕집 남자들’ ‘사랑할 때까지’ 등 2개 ‘목욕탕집 남자들’의 장면 68개 중 절반가까운 31.7개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사랑할 때까지’는 62개 장면 중 44.4%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차별적 요소로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구조, 남존여비사상, 남아선호 사상, 여성비하의식이었고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장면도 적잖았다.

25개 성차별항목을 ‘아니다’는 1점, ‘그렇다’는 2점으로 매기면 성차별요소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다.

이같이 측정된 성차별정도는 ‘목욕탕집 남자들’의 경우 43점, ‘사랑할 때까지’는 44.25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여성수첩 발간

한국여성의 전화가 펴낸 97년 여성수첩이 나왔다. 다이어리형태로 된 여성수첩에는 월간계획표, 매일의 계획표, 전화번호부와 함께 여성운동의 역사, 여성문제에 관한 어록들이 간간히 곁들여져 있다. 수첩 말미에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등 법률을 짚아놓아 정리해 놓았다.

아내구타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필요성과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여성은 분명히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목격자와 당시의 느낌등을 ‘일지’처럼 기록해두라는 것이다. 성희롱문제를 혼자만 삭히지 말고 주위에 알려 도움을 구하고 가해자가 한 직장에 있을 때는 상사, 동료직원,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알리라고 조언하고 있다.

“들고 다니면서 일상의 기록을 하면서 틈틈이 읽으면 여성문제에 밝아지도록 꾸뻘었다”고 여성의 전화 정유경간사는 말한다.

가로 11cm·세로 15cm의 이 수첩은 여성의 전화가 사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다. 단체가 구입할 경우 표지에 단체이름을 새겨준다. 색상은 짙은 녹색, 검정색, 짙은 밤색 3가지가 있다. 값은 7,000원. (02)269-2962

성폭력 가해경험·피해경험

남녀중학생의 3.5%가 고의적인 신체접촉, 음란성 농담 등 성폭력가해경험이 있으며 가해후 죄책감대신

재미있었다거나 다시 하고싶었다는 ‘가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는 남중생의 6.9%, 여중생의 15.5%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가 서울지역 남녀중학생 1,489명을 대상으로 성폭력및 성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성폭력가해경험에 대한 질문에서는 1,489명 중 3.5%(45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중생이 10명(12%), 남중생이 35명(5%)으로 나타났다. 가해유형은 신체접촉(50%)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음란성 농담이나 대화, 성기노출, 지하철에서 치근거리는 유형 등이었다.

성폭력가해후의 느낌으로는 ‘재미있었다’(26.7%), ‘다시 하고싶었다’(24.5%)는 반응이 절반 가까이 됐다. 죄책감이 들었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가해상대가 어떻게 느꼈겠느냐는 질문에는 ‘재미있어했을 것’(40.4%), ‘별로 신경쓰지 않았을 것’(23.8%)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상대가 기분이 나빴을 것(16.7%)이라거나 충격이 컸을 것(11.9%)이라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성폭력피해는 전체의 11.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학생(15.5%)에 비해서는 낮지만 남학생(6.9%)의 피해경험도 적지 않았다. 피해유형은 갖가지 성추행(89.7%)과 강간(3.9%) 등이 있었다.

성추행을 분류하면 지하철, 버스에서 추근거리거나 전화등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가 주된 유형이었다.

피해자가 밝히는 가해자는 이성친구(31%), 친족(6.3%) 등 아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 모르는 사람은 38.7%였다.

여성지지 대통령후보

여성계 인사들이 호감갖는 예비대통령 후보로는 조순 서울시장, 여성발전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로는 김대중 국회의 총재가 각각 선정됐다. 그러나 여성유권자의 표를 많이 받을 인물에서는 조순시장, 김대중총재가 박찬중 신한국당 고문에 밀렸다.

최근 여성신문사가 현대리서치와 공동으로 서울 거주 여성계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호감가는 예비대통령후보로 조순시장(26%)에 이어 김대중 국회의 총재(19%), 이회창 신한국당 고문(13%)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정당, 후보와 관계없이 여성문제에 관련된 자질을 평가하는 조사에서는 김대중총재(26.9%)가 가장 높은 점수를 땀다. 그 다음 조순시장(14.9%), 박찬중고문(10.9%)순이었다.

여성장관을 가장 많이 기용할 인물로는 김대중총재(34%), 조순시장(19%), 박찬중고문(10%)이 꼽혔다.

그러나 정작 여성표가 가장 많이 나올 인물로는 박찬중고문(29%), 조순시장(25%), 이회창고문(10%), 김대중총재(9%)순으로 여성발전 기여도순위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인이 영부인감으로 적합한 후보로는 김대중총재(27%), 박찬중고문(8%), 이회창고문(4%)순으로 꼽혔다.

성차별위원회

김윤덕 정무제2장관은 11월13일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남녀차별적인 법제도 개선등을 다루기 위한 성차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성차별개선위원회 위원 9명은 다음과 같다.

▲ 강무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49) ▲ 김영신 연합통신 부국장(54) ▲ 문형식 변호사(45) ▲ 이배용 이화여대교수(50) ▲ 이원덕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수석연구원(46) ▲ 정옥순 전의원(59) ▲ 조배숙 변호사(41) ▲ 조우철 정무제2장관실 제2조정관(53)

전·현직여성의원 간담회

신낙균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마련한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간담회가 1월 13일 낮 12시 서울 삼청동 한식당 용수실에서 열렸다. 전·현직 여성의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여성특위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여성의 정치진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도영심, 이우정, 김영정, 김현자, 문용주, 이윤자, 이영희, 김윤덕, 서영희, 신영순, 이범준, 신동순, 김정례, 이경숙씨등 전직 의원들과 신낙균, 권영자, 이미경, 오양순, 임진출의원등 현직의원들이 참석했다.

가정폭력방지법 진행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운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법안을 내놓고 법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에 들어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가정폭력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국여성의 전화등 전국 22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적인 조직이다.

각 정당도 가정폭력방지법의 법안을 각각 마련,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고 있다. 국회의회의

사랑의 조끼뜨기

'따뜻한 사랑으로 찬 조끼를 보냅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12월 10일까지 1차, '97년 1월 15일까지 2차로 무의탁 장기수들에게 사랑의 조끼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는 무의탁 장기수들에게 전해질 조끼는 어른 사이즈로 실로 떠서 보내면 된다. 뜨개질에 자신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조끼값(한벌 1만원)을 교회여성연합회 계좌로 보내면 조끼를 구입해서 보내준다.

어른용 조끼를 뜨되 단추없는 통자모양으로 떠야 반입될 수 있다. 화려한 색깔이나 밝은 색깔도 피해야한다. 검정, 밤색, 회색등 어두운 색깔이 무난하다. (02)708-4181~3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경우, 국회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한 상태이며 신한국당은 손질한 법안을 상정할 체비를 하고 있다.

자민련은 11월 13일 오후 가정폭력방지법안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을 범죄로 규정, 가정의 울타리밖으로 끌어내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상담기관에 아내구타문제, 아동학대문제가 접수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그 동안 '집안일'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하자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각 정당의 법안은 일부 조항에서 차이가 나지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명시해놓은 것은 공통적이다. 범국민운동본부의 법안은 가정폭력문제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에 경찰이 출동하며 불구속수사가 간중 가해자가 '재범'할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를 격리하는 긴급처분등도 조항에 포함돼있다.

범국민운동본부의 법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거주지역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토록하는 명령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신한국당, 자민련등 정당의 법안에는 명시돼있지 않다.

"가정폭력의 가해자중 상당수가 가장인데 이 때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다시 가정에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양육비, 생활비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춘숙 여성의 전화 부장의 설명이다.

이밖에 범국민운동본부의 법안에는 18세이하의 청소년·어린이나 노인이 피해자일 때는 보조인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 다시 읽는 글 1

이 글은 신한국당 이흥구 대표위원이 일간지('96. 11. 4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에 기고한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권당 대표의 생각은 여성계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어 이를 재게재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이흥구 신한국당 대표

여성의 사회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이른바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는 최선의 해결책일 수 있다. 지금 정치·경제·윤리·치안 등 여러분야에서 발전보다는 정체의 적신호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고비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여러번 약속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모든 분야에서 과감히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지런한 일손이다. 그것도 감성과 창의성과 부드러움이 넘치는 일손이다. 21세기로 향한 경제전쟁에서 영상·패션·정보 등 점차 다양화해가는 많은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근면하고 섬세한 손이 최대무기인지도 모른다.

우리 여성을 가사활동에만 얽매게 하지 않고 경제도약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보다 많은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보육시설의 확대, 방과후 아동지도제도의 도입, 학교급식의 전면적 실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회기에 학교급식확대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우리의 정치도 새로운 스타와 스타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폐해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바로 정치인지도 모른다.

우리 정치는 해묵은 관행과 대본에 얽매어 있다. 이러한 정치의 틀을 단숨에 깨어버리는 방법의 하나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과감히 확대하는 것이다. 여성의원이 9명이 아닌 50명 이상의 국회는 상상만 하여도 신선함을 느끼게 된다.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제고도 이미 설정한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이고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생산성과 관료의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지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다. 그것은 사고가 없는 사회, 치안이 확보된 사회를 뜻한다.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관리체계의 운영에도 여성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획기적 능률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치안문제해결도 우리여성이 선두에 서서 범국민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때 그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여성들이 앞장서서 강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도처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윤리의 붕괴가 수반하는 병리현상을 발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치료는 여성의 적극적 참여없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함께 꾸며 가려는 가정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여성의 꿈과 지혜와 결단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사회활동 수준은 조사대상 42개국 중 41위라는 딱한 처지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후진성이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견 모순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여성참여가 경제의 부피나 수출의 크기에 비례하여 세계 11위로 뛰어오른다면 이른바 총체적 위기는 확실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민간부문에 내놓고 있는 많은 타개책에 더하여 어떤 의미에선 그 어느것 보다도 여성의 참여확대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키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것도 선택의 문제이며 결단의 주체는 우리국민 모두인 것이다.

▶ 다시 읽는 글 2

이 글은 라그네 비르테 룬드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일간지('96. 12. 13 한국일보 '한국에 살면서')에 기고한 것으로 노르웨이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한국여성의 지위향상도 시간문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한 노르웨이 대사의 생각은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여성계가 주목하고 참고할 만한 자료라 생각되어 이를 재게재합니다.

'신기한 여성대사'

라그네 비르테 룬드 주한 노르웨이대사

한국 여성의 상황을 보는 것은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 내가 처음 한국에 부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성대사를 신기하게 보았고, 어떤 이들은 나의 가정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 했으며, 외교관으로서 '사교생활'을 얼마나 잘 해낼지 궁금해 했다. 또다른 이들은 여성의 역할이 매우 다른 사회에서 내가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을지를 못미더워 했다. 그러나 나는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한국정부가 고위공직에 여성을 발탁하는데 나의 예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나는 여성의 진보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여성단체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세미나와 워크숍에 초대돼 노르웨이의 남녀평등 정책과 제도에 관해 얘기하면서 한국여성들이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꼈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들이 가정에서 무척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남성은 월급을 통째로 아내에게 주고 용돈을 얻어쓰고 있을 만큼 무력한 반면, 여성이 모든 가정을 관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막강한가라고 말했다. 여성들의 말은 달랐다. 그들은 식구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고, 남편은 늦게 귀가하며, 많은 여성들이 결혼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이 점은 얼마전 노르웨이 여성들이 가졌던 불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가정에 많은 책임을 져고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았다. 그러나 내가 대학생이었을 무렵 여성의 지위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부의 가시적인 남녀평등 정책을 통해 가능했다.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여성은 정치 등 남성이 장악해온 영역에 용기있게 뛰어들었다. 정당은 자발적으로 성별쿼터제를 도입했다. 그결과 공공기관의 여성 비율이 40%를 넘도록 규정됐고, 장관들은 남녀평등 정책을 세워야 했다.

여성문제 연구자들은 정책에 관여했고, 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성의 잠재력을 발견하였다. 그 결과 어린 아이를 둔 부부를 위한 자유근무시간제가 도입되고 탁아시설이 늘고 남녀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여성의 정계진출을 장려하고 여성후보자들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캠페인도 벌어졌다. 그 결과 이제 노르웨이의회의에서 여성의 비율은 40%에 이른다. 18명의 각료중 8명이 여성이다. 쿼터제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고 있다. 나는 남녀 모두가 해야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확신한다.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한국여성의 지위향상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 2년간 많은 여성과 교류하면서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 '여성개발법안'을 비롯,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발판이 될 것이다. 내가 만났던 많은 여성의 우수한 자질은 한국사회가 남녀간 새로운 차원의 조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런 미래가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순 서울시장 초청 여성정책간담회



본회는 지난 11월 29일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조순 서울시장 초청 여성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본회 임원 및 회원단체장, 타여성단체장, 서울시의원 등 11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조순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적극 늘리고, 여성발전기금 60억원을 '97년까지 조기 달성하여 그 이자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 응답 시간에는 여성부시장 임명문제, 학교급식문제, 남녀공학교육학교의 내신불리산

정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 조순시장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여성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뜻을 비쳤다.

이 간담회는 대우재단에서 후원하였다.



주말 가족 시간대 TV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본회는 1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주말 가족 시간대 TV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TV가 가정 오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에 있어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주말 가족 시간대의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도 오늘날의 TV프로그램은 10대 위주의 획일적인 포맷의

쇼형식으로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 이들 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건전한 웃음과 휴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의 주제강연은 김학천 교수(건국대 신문방송학과)가 맡아 주말 오락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강연에 이어 이연숙 본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김경애 교수(동덕여대·여성학), 전규찬 책임연구원(한국방송개발원), 김희천 부회장(본회 매스컴 모니터회), 윤청광 심의위원(방송위원회 연예오락분과), 광명세 주관(KBS TV 2국)이 지정토론자로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기획위원회 개최

본회 기획위원회가 11월 22일 서울클럽에서 개최되었다. 김영자 위원장(한국여학사협회 회장)주재로 열린 이 기획위원회에서는 올해의 기획연구부 사업보고와 내년의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한대사부인 초청 간담회

본회는 지난 12월 2일 정오에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 C에서 주한대사부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여성대사인 노르웨이 대사를 비롯하여 각국의



대사부인과 정희경, 신낙균 국회의원, 신태희 서울시여성정책보좌관을 비롯한 본회 임원, 이사, 국제관계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경화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연숙 본회 회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국내여성계의 현황과 본회의 올해의 주요활동사항 소개가 있었고 이어서 노르웨이 대사의 인사말 그리고 여성계의 현주소와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본회는 주한대사 및 대사부인들에게 비공식 민간외교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한국여성계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발전하는 한국여성을 인식시켰다. 또한 국가를 초월하여 전세계 여성이 처한 문제점과 대안을 나눔으로써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

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가정 안전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

본회에서는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 안전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란 주제로 지난 12월 6일 오후2시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용자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태진 세계백화점 완구담당 바이어, 박연홍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훈련국장, 윤강림 와이케이물산 대표, 이덕영 현대산업개발 이사, 한정석 연세대 안전간호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온 이날 행사는 이연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단체 회원 및 소비자모니터, 관련기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 3가구중 1가구가 안전사



고를 경험했으면서도 사고후 예방 조치를 한 가정은 29.9%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진정한 안전문화가 이룩됨을 강조했다.

또한 응급처치법이나 안전지식이 미흡하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서울대에 교수채용시 여교수 목표할당제 도입 촉구

본회는 서울대 교수협의회에서 교수채용시 여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측에 건의한데 대하여 적극 환영하며, 서울대학교가 급변 건의를 채택하여 여성교수채용 목표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선우중호 총장앞으로 발송하였다.

서울대 교수협의회에 의하면 '95년말 현재 서울대 교수 1천4백17

명중 여교수 비율은 6.6%(94명)에 불과해 전체 학생중 여학생 비율 25.2%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19개 단과대중 가정대·음대·간호대 등 3개 대학에 전체의 52%인 49명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4%에 그친다고 한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따라 ▲여교수 비율을 10%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사관련법규에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며 ▲여교수채용확대를 대학차원에서 집행할 기구를 신설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창립 37주년 기념행사

본회는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2월 10일 오후 6시 상공회의소 12층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위원, 정종택 환경부 장관, 김윤덕 정무제2장관, 이미경, 오양순, 신낙균, 박종용 국회의원, 허신행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정금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및 본회 임원, 이사, 시도여협회장, 언론사 등 130여명의 여성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연숙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올해 본회에 가입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생활공예협회,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등 가입단체에 가입증 전달 및 협동회원단체인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증을 전달했다. 또한 본회 활동에 도움을 준 강경화 국제관계위원, 윤자야 근로여성위원, 정영숙 조직관리위원회장, 채영자, 장화실 본회 소비자모니터에게 공

로상을, 조문자 화가에게 감사장을 증정했으며, 남·녀고임선발고사 성차별 합격선을 재조정하는데 앞장선 학부모 임재소씨에게 특별상 증정이 있었다.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위원과 김윤덕 정무제2장관의 축사에 이어 신혜숙, 김현정씨의 축가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만찬을 함께하며 여협의 발전과 여성계의 발전을 축하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 담소를 나누었다.

주부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간

본회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조사와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평가, 직업훈련프로그램 실시기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주부대상의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정책방안 등을 제시한 『주부인력 활용방안 강구 및 실천』을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30·40대 주부 74%가 취업의사가 있으며 이들 중의 80%가 시간제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의 42%가 지금 당장 취업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부분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나 교육훈련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위한 재취업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취업프로그램 수강생들도 교육의 내용이 양재나 홈패션 등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원했으며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회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제안한 새로운 주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인터넷 정보자료검색원', '자료전산입력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 등 전문 상담요원' 양성 프로그램들이다.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본회는 지난 12월 14일 본회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 주관 '우리는 하나' 가두 캠페인에 참여하여 모금행사를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명동에서 오후 1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데이 프커팅 및 풍물놀이로 이어 성금 모금을 위해 거리의 행인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고 모금운동을 벌이며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다.

본회에서는 이연숙회장 및 회원 단체장과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금 모금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였고 모금한 성금은 이웃돕기운동추진

협의회에 전달했다.

영양사 의무고용 폐지 부당성에 관한 성명서 발표 및 결의대회

본회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협의회,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협의회와 공동으로 "영양사의 의무고용 폐지 부당성"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11월 28일 1시에는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앞에서 전국의 영양사, 식품영양(학)과 학생 및 교수, 학부모 등 7천여명이 모여 영양사 의무고용 폐지가 근로자들에게 끼치는 피해 등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총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영양사 의무고용폐지 부당성」에 관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양사 의무고용 폐지 부당성』에 관한 성명서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영양사 의무고용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 11월 18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치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며, 또한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및 공기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정책화하면서 한편으로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후퇴시켜 여성전문직종인 영양사 의무고용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정책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양사 의무고용제 폐지 방침은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 회의시에 거론되지도 않고 바로 경쟁력 강화 보고대회 자료에 게재되었으며, 여성전문 직종인 영양사를 제외시키는데 있어 소속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견이나 여성담당 부처인 정부 제2장관실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책 목표가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들 모두가 서로 상충할 때는 정책 결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의 이익과 피해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사를 들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 사례가 많으며 기업측 주장대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치더라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를 폐지함으로써 급식을 받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장을 잃게 되는 영양사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입니다.

네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영양관리가 중요한데 경제발전예 따라 영양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기에 의무고용을 폐지함은 삶의 질을 낮추시키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영양사는 없어도 괜찮은 인력같은 인식을 심어주어 영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성 전문인력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이번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양사, 학생, 학부모, 교수, 여성단체들은 모두 연대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더 많은 여성단체들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유도해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1996. 11. 28

우리들의

광장

여성문제연구회

창립 44주년 기념 행사 개최



여성문제연구회는 금년 11월로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창립 4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에서는 '다시 생각하는 한국의 혼례문화'라는 주제로 최영희 대표이사(내일신문)의 기념특강을 가졌다.

3부에서는 2년동안 준비해 온 제3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문제 실태조사 연구' 발표회가 있었다. '한국 노인의 독서 실태조사 연구' 김유선 박사(장안전문대), '노인의 정신건강 특성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애선 박사(숙명여대),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과 노인의 안녕' 최은정 박사(매릴랜드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성림 박사(명지전문대), 우애령 박사(서강대), 김문조 박사(고려대)가 토론하였다.

여성문제연구회와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공동으로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출판기념회도 가졌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가평 꽃동네 방문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에서는 지난 11월 5일 가평 꽃동네를 방문,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날의 활동은 주로 식사마련, 시설물 청소, 필요한 물품 정리등 일손부족으로 인해 미뤄졌던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몇개의 조로 나누어 맡은 부문의 일을 책임있게 완수하도록 진행되었다.

가평 꽃동네는 시설이나 재정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와 달리 모든 면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수용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의 부족함을 알수 있었다. 앞으로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사회복지사업은 일손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 세미나 및 캠페인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에서는 지난 11월 26일 무역센터 52층 회의실에서 건전소비생활실천을 위



한 세미나를 가졌다. 창립 제18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현순덕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회장의 기념사와 이연숙 본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발제강연과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준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도시민의 과소비'라는 강연을 통해 과소비의 경제적 여파, 과소비의 올바른 개념, 과소비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시사평론가 고성국박사는 '국가경쟁력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아래 가정도 스스로 경쟁력 향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로서 여성의 효율적인 가정경제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미나후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30여명은 무



역센터 현대백화점 앞과 삼성역 주변에서 만화로 제작된 전단, 피켓으로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대한영양사회

'영양사 의무고용폐지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대한영양사회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1시 과천 제2종합청사 앞에서 본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전문대학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협의회, 식품영양(학)과 학생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영양사, 식품영양(학)과 학생 및 교수, 학부모 등 7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영양사 의무고용폐지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정부당국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영양사 법정 의무고용제 폐지"를 전격적으로 추진·발표함에 따라, 지난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영양사 의무고용폐지 부당성"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개최된 이날 결의대회는 그간의 경과보고와 대회를 시작으로, 정부방침의



허구성을 규탄하는 여협, 교수, 영양사, 학생 등 참여단체 대표들의 연대사와 대통령께 드리는 글, 국민에게 올리는 글의 발표, 영양사 면허증 장폐식,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근로자에 있어 최소한의 복지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건강증진에는 일대 위협이 되며, 여성인력인 영양사에 대한 고용박탈과 미래의 영양사로 활동을 준비하는 학생의 취업기회를 전면봉쇄하는 정부당국의 대책없는 반국민적, 반근로자적, 반여성적인 행동에 대해 여성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민과 근로자 건강을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영양사 의무고용 폐지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경쟁력 10%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의무고용 폐지방침을 재검토, 5일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국여학사협회

'건전한 소비생활' 캠페인

한국여학사협회는 본회와 공동으로 11월 22일 오전 11시 부터 혜화동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혜화동과 동숭동 일대에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김영자 한국여학사협회 회장을 필두로 회원 및 순영노인대학 학생들은 '낭비없는 생활습관' '윤리적인 생활보장' '너도 나도 해외 관광' '나라살림 망친다' '물가안정으로 웃음짓는 국민들' '수입품 외면하고 국산품 애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반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날 캠페인에 앞서 한국여학사협회는 지난 10월 25일 본회 강당에서 건전하고 효과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이한구박사(대우경제연구소장)의 특강 '과소비 확산과 수입품의 취급'을 열었다.

한국퇴역여군회

육군본부 여군대대 방문

한국퇴역여군회는 지난 12월 11일 임원 12명이 육군본부 여군대대를 방문하여 여군과장 엄옥순 대령과 추순삼 중령을 비롯하여 장교 및 하사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부대현황 설명을 들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로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부식당에서 알뜰하게 장만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난 군복무시절의 옛 추억을 되새겼다. 오후에는 대대장 양혜정 중령의 안내로 발전한 부대시설을 견학하고 위문품으로 하사관들이 내무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세탁물 찰수기 10대를 전달하였다.



국제존타서울제1클럽

서울존타클럽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국제존타 서울제1클럽은 지난 11월 25일 전문직 여성들의 국제 자원봉사단체인 국제존타 서울클럽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우리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백영훈 산업개발 연구원 원장의 주제강연과 창립회원과 역대회장, 새 클럽을 창설시킨 회원 및 유공자 표창 증정, 회원이 직접 출연한 노라노 패션 쇼, 그리고 존타 30년사를 발간한 축하 행사를 가졌으며 이날 행사에는 내외 귀빈과 존선(존타 회원) 230여명이 참석하였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96 임원연수 개최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11월 16일~17일 1박 2일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김현자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연맹 이사, 지방클럽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BPW 임원연수'를 가졌다. 세미나 '직

장인의 소비문화를 진단한다', 특강 '정보사회와 여성의 대응방안'(장인경 마리텔레콤 사장), 워크숍 'BPW 위상 재정립과 중점사업 및 지방클럽 운영 방안'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임원들은 진로지도 등 BPW 고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화, 통신 개설, 새 직종의 회원 영입을 위한 포럼 개최, 지방클럽 뉴스레터 발간 등 BPW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세미나 개최 '직장인의 소비문화를 진단한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11월 16일 오후 5시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직장인의 소비문화를 진단한다' 세미나를 가졌다. 이정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직장인의 소비형태(호경환 소비생활연구가), 직장문화와 소비구조(김정태 경총 조사부장)에 대한 발제에 이어 박인례 녹색소비자운동 사무국장, 나용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에너지가죽운동 추진팀장, 이한순 조흥은행 이화여대 출장소장(BPW 제1부회장)으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 박인례 국장은 소비문제는 환경과

표지의 말



자연

조문자 작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소비자운동은 전지구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 '건전소비'로부터 '지속가능한 소비'로 개념전환되어야 하며, 과시적 소비를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소비행태 고유의 모순을 인식하여 소비자간의 정보구축을 통해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주권있는 소비자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용환 팀장은 직장인이 소비 중심주체는 아니라고 전제, 현대의 소비 전략은 '절약' 차원이 아닌 '소비효율화'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직장인의 소비건전화는 기업의 비용절감의 혜택이 종업원 복지에 쓰여지는 연대 프로그램으로 실시될 때만이 종업원의 자발적 참여와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순 소장은 기업의 비자금 처리구조, 실력보다는 로비에 의존하는 기업풍토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업의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외에도 회식문화, 경조사비 과다지출 등 직장인 스스로의 자각과 각성을 통한 불건전한 기업문화의 개선을 위해 직장여성의 노력을 부탁하였다.

조문자씨는 1940년 경기도 송탄에서 태어나 1963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95년 조선헌에서 개인전까지 10회의 개인전과 1983년 '83 현대미술초대전, '88년 조선일보사 미술관 개관 기념초대전, '90년 예술의전당 개관 기념전, '90년 한국여성미술가 55인전, '91년 Art Fair(조선화랑초대), '93년 제8회 인도 트리엔날, '95년 600주년기념 서울 국제현대미술제와 서울 미술대전, 제10회 '95화랑 미술제 '화상 10년의 눈', 1995년 한국여성미술제, 한국미술 50인 초대전(Paris, 유네스코 회관) 등의 국내외 다수의 초대전 및 단체전을 가졌다.

또한 1991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1992년 부산일보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1993년 MBC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82
전화 : 924-756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주년을 축하합니다.

〈축전〉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계절에 한국여성계를 대표하는 협의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활동을 연대화하며 여성활동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힘을 기울여 오신 회원단체 관계자분들에게도 안부인사와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혹의 나이와 함께 맞이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오늘 축하의 자리가 미래지향적인 여성운동을 펼쳐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어봅니다. 또한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큰 보람속에 회원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여성지도자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손명순 (대통령 영부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 공정한 지위 향상과 함께 훌륭한 역할을 보장하는"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 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김수환 (국회의장)

뜻깊은 모임에 성원을 보내며 바라시는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창립 37주년 기념식 축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몇해가 한국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를 바꿔놓는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고비는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여러 지도자들과서는 그러한 밝은 전망을 가지시고 힘을 합치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은 여협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위원)

창립 37주년 기념식 축하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37돌을 맞이까지 수고하신 여러 여성지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 변화를 우리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협의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리며 여협이 더 성장하여 사회의 구심된 힘으로서 사회변화의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윤덕 (정무제2장관)

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조국 근대화의 시기에 이 나라 모든 여성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그 대변자로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연합

뜻깊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앞날의 큰 번영을 기원합니다.

이기택 (민주당 총재)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조광현

창립 37주년을 축하합니다.

신낙균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창립 37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금자

여성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

회장 서은경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돌을 축하드리
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광일 (대통령비서실장)

창립 37주년을 축하하오며 앞날에 번영을
기원합니다.

진 념 (노동부장관)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리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영애 (국회의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YWCA연합회

회장 김갑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37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숙향

창립 37주년을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박종웅

국회의원 이미경

신한국당 당무위원 겸 도봉 갑 지구당 위원장

사단법인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양경자

소장 김정숙

사단법인 국제소름티미스트한국협회

사단법인 중앙부인회

총재 김보금

회장 김취복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

사단법인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안선아

회장 윤용숙

사단법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사단법인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회장 오세화

총재 신영순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창립37주년기념 축하회 찬조금 •

본회 조직관리위원회 정영숙위원장의 위원 일동	200,000원
구정고 3학년 이과반 여학생 학부모 10명	200,000원
김숙희 (서울YWCA 이사)	100,000원
김영희 (서울시 의원)	100,000원
조동민 (본회 조직관리위원)	100,000원
김인규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0원
하중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100,000원
천보경 (천도교여성회본부)	100,000원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100,000원
이보섭 (<주> 태평양 이사)	50,000원
주일억 (국제존타서울클럽)	50,000원
김은수 (재향군인제주도부인회 회장)	50,000원
김명자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	50,000원
은방희 (한국여성문화생활회 회장)	50,000원
조선형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50,000원
정영숙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50,000원
신태희 (서울시 여성정책 보좌관)	50,000원
신영순 (원자력을 이해하는여성모임)	50,000원
오세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50,000원
양정자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50,000원
김복영 (쌍용제지(주)고객상담실장)	30,000원
서명숙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30,000원
남상민 (한국자수문화협의회 회장)	30,000원
윤수자 (본회 조직관리위원)	20,000원

• 찬조금 •

대한영양사회	2,000,000원
전상금 (본회 마스크모니터회 회장)	300,000원

• 조순 서울시장 초청 정책간담회 찬조금 •

이길녀 (의료법인 김병원 이사장)	1,010,000원
최승혜 (IMC 대표이사)	1,000,000원
여성문제연구회	100,000원
김인규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0원
김보금, 권오영 (국제소름티미스트 한국협회)	100,000원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0원
정숙자 (황해도중앙부녀회 회장)	100,000원
신태희 (서울시 여성정책 보좌관)	100,000원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60,000원
문수자 (국제여성승공연합 회장)	50,000원
김영희 (본회 근로여성위원, 서울시 의원)	50,000원
오정인, 이순화, 서명숙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50,000원
김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50,000원
조완선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50,000원
홍성옥 (수지회 꽃꽂이중앙회)	50,000원
홍옥연 (연지꽃예술중앙회 회장)	50,000원
남상민 (한국자수문화협의회 회장)	50,000원
고광순 (대한여한의사회)	50,000원
조동민 (본회 조직관리위원)	30,000원
구마다가쓰모 (부용회 회장)	30,000원
정금자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20,000원
윤성원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20,000원
이인숙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원
최병애 (청년여성문화원)	10,000원
임경희 (한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	10,000원
서명숙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부회장)	

창립 37주년 기념사진 촬영

김영자 (한국여학사협회 회장)

기획위원회 오찬 제공

편집후기

올 한해는 여성계가 많은 수확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안이 상정되어 제정 진행중에 있으며 올 4.11총선을 통해 적으나마 9명의 여성국회의원이 배출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제 하나씩 우리사회의 왜곡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마련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마련된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토착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면에서 볼 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힘써 온 것에 더 힘을 실어 노력한다면, 우리사회가 남녀구분없이 개인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正

월간여성 · 1996년12월호 통권347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이연숙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헤럴드

사식 · 편집 : 한라기획

발행날짜 : 1996년12월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代) 794-4560, 794-4450~1, 794-4766~7,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서은경

위 원 :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 김신정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부부서	회장	김이영	경연영	오숙혜	회계	이	사	이	오	식	출판공보위원장	서은경
회	장	박정	연영	혜심	감	이	사	양	은	숙	국제관계위원장	최영자
부	장	정	연	심	조	관	리	김	경	애	근로여성위원장	이정애
부	장	이	옥	기	직	원	장	정	영	숙	소비자보호연구원	박금래
서	기	미	인	순	회	원	장	현	순	자	사무총장	김

회원단체

회원단체명	회장	주소	전화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중구 성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전례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종자동 35-26	754-1707
한국여학사협회	김영자	도봉구 성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안선아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용산구 한남동 738-20 화성빌딩 302호	797-9185
중앙부인회	김취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박애주	중구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이정자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704-2284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엄경미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508호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김노영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희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제존타한국연합회	박정순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76-5 신광중학교	(062)528-6444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자	종로구 평창동 537-9	379-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곽순덕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음	이윤정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53-9 남옥치과 1층	(042)252-7033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련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국제여성총연합한국본부	현순덕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미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협회	서은경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603호	842-2466
국제여성승공연합회	문숙향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숙희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고기효	동대문구 전농4동 582-5	244-5208
한국퇴역여군회	정영숙	성동구 용답동 236-10 삼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박정자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국자수문화협의회	남상민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양회관 807호	736-5350
한·일여성친선협회	박성자	중구 북정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73-7645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광진구 화양동 48-3 동진빌딩 3층	463-2445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서대문구 연희동 137-10 영원빌딩 4층	3141-7840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나성숙	강남구 논현동 192-6 범한빌딩 3층	545-6789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김묘주	종로구 견지동 39-1 삼문중심 2층 1호	738-5586
천도교여성회본부	천보경	종로구 경문동 88번지	732-6867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이기호	강서구 등촌동 645-11	3662-9417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오세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동 100 한국과학연구소	(042)860-7663
한국생활공예협회	임기선	용산구 원효로 1가 116-2 지산빌딩 3층	703-0168
원자력에너지여성모임	신영순	마포구 도화 2동 536 청우빌딩 304호	714-7451

협동회원단체

협동회원단체명	회장	주소	전화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기숙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42 신포동 동사무소 3층	032-763-8354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은종인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4-55 전북여성회관 3층	0652-76-9675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선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회관	0331-39-8813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은숙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 2동 484-21 여성회관 2층	042-532-1610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윤병길	춘천시 효자 2동 333 효자종합사회복지관 내	0361-262-1306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난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 2가 116	0431-55-7222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조영자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4-10 제주도 여성회관 내	064-22-6428